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07. **2** Vol. 182

www.bsCulture.busan.kr

반갑습니다 _ 웰빙콘서트 지휘자 금난새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_ 전통음악에 작곡자를 알 수 없는 이유?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_ 시애틀

연극속으로 _ 연극과 여행



2007 하반기 부산문화회관 대관안내

대 상

극장(대·중·소), 전시장(대·중)

대관내용

- 대관기간 : 2007년 7월 ~ 12월 (6개월간)
- ※ 무대공사로 인한 대관 불가기간
 - 대극장 : 7. 13(금) ~ 8. 20(월) (39일간) : 무대설비공사
 - 중극장 : 7. 25(수) ~ 8. 20(월) (27일간) : 무대설비공사
 - 소극장 : 7. 13(금) ~ 8. 20(월) (39일간) : 무대조명기공사
- 접수기간 : 2007. 3. 19(월) ~ 3. 30(금) (10일간)
 - 접수시간 : 월 ~ 금요일 09:00 ~ 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 대관심의 및 결정 통보
 - 접수 마지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사용허가 통보

기본방향

- 순수문화예술 공연·전시에 우선 대관하고, 대중 예술공연에 대해서는 제한적 허용
- 국제적 수준 또는 순수예술인,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 문화창달을 위한 공연·전시에 우선 대관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종합예술공연에 우선 대관
- 소규모 연주회는 소극장으로 대관안내, 대·중극장 편중지양
-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공연·전시

대관신청 및 허가 절차

- 상담(구두, 전화) → 신청 및 접수(적정여부) → 대관심의(일정조정) → 통보

대관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공연계획서(프로그램, 프로필 등 첨부) 1부

사용료 납부

- 계약금(기본시설 사용료의 10%) : 사용허가 후 30일 이내 납부, 계약체결
- 잔금 : 공연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
- ※ 기한내 사용료 미납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용자 측의 사정에 의거 대관 취소시 납입된 사용료 중 기본시설 사용료의 10%는 시에 귀속됩니다.

문 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 607-6051~5)



20th Busan Symphony Orchestra Subscription Concert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Antonin Dvorak
Cello Concerto in b minor, op.104
Symphony No. 8 in G Major, op.88

2007. 3. 3.(토)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첼로 김우진
(KBS교향악단 첼로 수석 단원)

지휘 박성완
(부산대학교 교수)



• 주 최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음악감독 임병원) www.bso21.com • 후 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 의 : BSO 051) 620-4917, 4918
• 예매처 :  부산은행 티켓365 www.ticket365.co.kr 1588-2528 • 입장권 :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청소년 5,000원
/ 남포동 문우당서점(245-3843), 국도레코드(246-0705) / 서면 영광도서(816-9500), 교보문고(806-3501) / 금정 신나라레코드부산대점(518-0686), 음악자료창고(582-9143) / 대연동 면학도서(623-9404)

부산문화회관 2007 지신밟기

복 받으러 오세요

3월 2일 금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한해의 액을 떨치고 2007년 부산 문화계의 번성과 안녕을 기원하는
부산문화회관 2007 지신밟기가 열립니다.**

예부터 전해오는 지신밟기는 지신을 위로하여 집집과 온 마을의 안녕과 복을 비는 우리의 민속놀이입니다.
조상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지신밟기를 통해 2007년 한해의 행운을 기원하십시오.

■ 여는 마당

부산문화회관 전체를 도는 길놀이로 땅의 기운을 밟고, 곳곳에 깔려있는 액운과 온갖 잡귀를 내쫓아 부산문화회관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당

■ 기원 및 소리마당(비나리)

- 기원 : 지전무-극장안의 무대 및 시설물의 안전을 춤으로 표현
- 소리마당 : 비나리-공연을 보러오신 모든 시민들, 그리고 부산 문화예술인들의 안가 태평을 빌고, 모든 액과 살을 풀어내며 소원 성취를 비는 마당

■ 놀이마당 : 판굿 및 모듬북 합주 '타귀'

비나리가 끝난 후에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무대공연. 선반 풍물놀이를 비롯 모듬북 합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

■ 출연/버습새 예술단

■ 입장료 : 무 료

■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45),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Contents

2007 · 02

- 06 부산문화회관 2월 공연 일정
- 10 마음을 여는 글 | 한박자 천천히 · 이구일
- 12 반갑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웰빙콘서트 지휘하는 지휘자 금난새
- 14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시애틀, 또다른 세상이 열리다 · 김현숙
- 18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 전통음악에서 작곡자를 알 수 없는 이유? · 강성일
- 20 김형술의 그림에세이 | 무거운 꽃 · 김형술
- 22 캠페인 1인 1기를 배웁시다 | 오카리나 이야기(6) · 박종근
- 24 연극속으로 | 연극과 여행 · 유상흠
- 26 그곳에 가면 | 김해 한옥 체험관
- 28 우리는 문화가족 | 오류도 무용단
- 30 이 사람 | 정년퇴임 연주 갖는 부산대학교 나광자교수
- 31 쉽게 듣는 클래식 | 소품 4 · 곽근수
- 32 특집 | 2007년 부산의 축제
- 36 문화가화제 | 극단 61 창단
- 37 공연화제 |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 KNN 신년음악회
- 38 전시화제 | 부산박물관 기획전시
- 40 부산시립예술단 관람가이드
- 44 2월 프로그램 가이드
- 58 새로 나온 음반
- 59 새로 나온 책
- 60 새로운 문화공간
- 62 부산문화회관 소식
- 63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64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테마여행 안내



·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번지)
TEL. 625-8130, FAX. 607-6204
· 발행인 조병규 | 편집인 공영훈 | 편집장 백경옥 · 발행일 2007년 1월 25일
· 인쇄처 디자인헤드(612-819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345-10 3F)
TEL. 747-8064 FAX. 747-8066

※ 예술의 초대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게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 표지설명 :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청중들을 위해 2007년부터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일보사가 의욕적으로 준비한 '웰빙콘서트' 첫 무대가 2월 8일 금난새 지휘, 해설로 열린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을 비롯한 부산문화회관 공연은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2월 공연일정

부산문화회관 2007 지신밧기 복 받으러 오세요

3월 2일 금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한해의 액을 떨치고 2007년 부산 문화계의 번성과 안녕을 기원하는
부산문화회관 2007 지신밧기가 열립니다.

예부터 전해오는 지신밧기는 지신을 위로하여
집집과 온 마을의 안녕과 복을 비는 우리의 민속놀이입니다.
조상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지신밧기를 통해 2007년 한해의 행운을 기원하십시오.

- 여는 마당
- 기원 및 소리마당(비나리)
- 놀이마당 : 판굿 및 모듬북 합주 '타귀'
- 출연/머슴새 예술단
- 입장료 : 무료
-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45),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약하십시오. (안내 : 9쪽)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극장

MAIN THEATER

1	thu	2007 부산국제음악제 '피날레 콘서트' 19:30 4만원 · 3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2	fri	
3	sat	테너 김진수와 함께 떠나는 세계 음악여행 18:00 5만원 · 3만원/국제오페라단(627-0839, 011-212-1777)
4	sun	
5	mon	
6	tue	
7	wed	
8	thu	부산문화회관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웰빙콘서트 '금년새와 11시에 만나요' 11:00 균일 1만5천원/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9	fri	
10	sat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 KNN 신년음악회 19:30 9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KNN(1577-7600)
11	sun	
12	mon	
13	tue	
14	wed	
15	thu	
16	fri	
17	sat	
18	sun	
19	mon	
20	tue	
21	wed	
22	thu	
23	fri	
24	sat	
25	sun	
26	mon	
27	tue	2007 남성성악가 앙상블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부산일보사(461-4434), 김길수(016-9294-7268)
28	wed	
3/1	thu	Love 콘서트 with 서경희 19:30 프리모아트매니지먼트(622-5529, 016-861-6105)
3/2	fri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초청연주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3/3	sat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20회 정기연주회 '드보르작의 음악세계'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 · 5천원/BSO(620-4917, 011-9533-4917)

중극장

MEDIUM THEATER

1	thu	
2	fri	세계 명작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10:20, 11:40 균일 1만5천원/동그라미그리기(818-1772)
3	sat	세계 명작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12:00, 14:00, 16:00 균일 1만5천원/동그라미그리기(818-1772)
4	sun	세계 명작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13:00, 15:00 균일 1만5천원/동그라미그리기(818-1772)
5	mon	
6	tue	
7	wed	
8	thu	제 18회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귀향 연주회 19:30 초대/명예술기획(011-9503-4498)
9	fri	뮤지컬 '미녀와 야수' 14:00, 16:00 균일 1만5천원/극단 파란(02-922-7292, 011-337-4176)
10	sat	뮤지컬 '미녀와 야수' 14:00, 16:00 균일 1만5천원/극단 파란(02-922-7292, 011-337-4176)
11	sun	
12	mon	나광자 교수 정년 퇴임 기념 음악회 19:30 초대/가은예술회(010-6772-6404)
13	tue	부산시립합창단 신춘 특별연주회 '한국 합창 음악'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6126)
14	wed	신춘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30 초대/명성커뮤니케이션(010-750-6564)
15	thu	
16	fri	
17	sat	
18	sun	
19	mon	
20	tue	
21	wed	
22	thu	
23	fri	
24	sat	뮤직포럼 교육연구회 창립연주회 '꿈을 그리는 음악이야기' 17:00 균일 3천원/최대열(011-9308-9500)
25	sun	심정운, 이상준 2인 음악회 19:30 균일 1만원/이상준(010-6801-9733)
26	mon	
27	tue	
28	wed	풍류 송아 두번째 나들이 19:30 초대/유경조(017-557-6184)
3/1	thu	
3/2	fri	
3/3	sat	부산멜로소오케스트라 제 4회 정기연주회 18:00 초대/부산멜로소오케스트라(611-7855, 010-5077-0097)

소극장

SMALL THEATER

1	thu	
2	fri	뮤즈 음악가들의 이야기-황옥신 제자 발표회 18:00 무료/황옥신(018-570-2249)
3	sat	토요상설무대-부산국악협회 공연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4	sun	김희정무용단 제2회 발표회 16:00 무료/김희정(622-6638, 019-474-8247)
5	mon	
6	tue	정혜영 클래스 정기연주회-재즈와 함께하는 겨울여행 19:00 무료/정혜영(635-8760, 016-718-1570)
7	wed	
8	thu	
9	fri	
10	sat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공연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11	sun	
12	mon	
13	tue	
14	wed	
15	thu	
16	fri	
17	sat	
18	sun	
19	mon	
20	tue	
21	wed	효원 바이올린 음악회 18:00 무료/전은희(010-3198-9117)
22	thu	友연주회 19:30 무료/신현아(010-2677-8068), 이미라(010-9944-3109)
23	fri	클라리넷 카니발 19:30 무료/신혜숙(011-887-7929)
24	sat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합창단 연주회 '앙코르 앙상블'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25	sun	경희바이올린 클래스연주회 15:00 무료/김경희(626-2335, 011-579-2339)
26	mon	예림 피아노 제2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임문건(016-575-2849)
27	tue	임경화 음악학원 정기연주회 18:00, 20:00 무료/임경화(743-4878, 019-548-6284)
28	wed	제2회 김향임 클래스 연주회 17:00 무료/김향임(625-8659, 019-553-6095)
3/1	thu	제 9회 푸른 소리 아카데미 음악회 15:00 무료/야창완(868-8375, 010-2262-2375)
3/2	fri	
3/3	sat	국제음악학원 정기연주회 15:30 무료/국제음악원(637-0286, 011-567-8456)

부산시내 기타공연 ②월 달력

부산시민회관 | 문의 : 시민회관(630-5200)

1	thu	
2	fri	
3	sat	가족뮤지컬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12:00, 14:00, 16:00 -소극장 균일 1만5천원/제일기획(557-4277)
4	sun	가족뮤지컬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12:00, 14:00, 16:00 -소극장 균일 1만5천원/제일기획(557-4277)
5	mon	월요일영화 '해피피트'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6	tue	
7	wed	
8	thu	
9	fri	
10	sat	
11	sun	
12	mon	월요일영화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13	tue	
14	wed	
15	thu	
16	fri	
17	sat	
18	sun	
19	mon	
20	tue	
21	wed	
22	thu	
23	fri	경향음악콩쿠르 09:00 -소극장 경향신문사(462-7071)
24	sat	경향음악콩쿠르 09:00 -소극장 경향신문사(462-7071)
25	sun	경향음악콩쿠르 09:00 -소극장 경향신문사(462-7071)
26	mon	월요일영화 14:00, 19:3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경향음악콩쿠르 09:00 -소극장 경향신문사(462-7071)
27	tue	한낮의 휴 콘서트 11:0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동백대상전국학생음악콩쿠르 09:00 -소극장 스포츠한국(201-0222)
28	wed	동백대상전국학생음악콩쿠르 09:00 -소극장 스포츠한국(201-0222)
3/1	thu	동백대상전국학생음악콩쿠르 09:00 -소극장 스포츠한국(201-0222)
3/2	fri	
3/3	sat	

금정문화회관 |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2)

1	thu	새우리음악회 5주년 기념콘서트 19:30 -대공연장 새우리신경외과(513-9999) 라르렛 퀸즈 연주회 19:30 -소공연장 정아람(011-9315-5198)
2	fri	
3	sat	
4	sun	
5	mon	
6	tue	
7	wed	금정수요음악회 '플루티스트 손소정 독주회'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박진홍(017-563-7966)
8	thu	양상블 클라시아 브런치 콘서트 11:00 -소공연장 균일 1만5천원/양상블 클라시아(506-6306)
9	fri	첼로 양상블 트라움 콘서트 19:00 -소공연장 초대/전명희(018-560-2944)
10	sat	5인 음악회 15:00, 19:00 -소공연장 손욱(011-9520-4649)
11	sun	
12	mon	
13	tue	옥샘하모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대공연장 초대/박진홍(017-563-7966)
14	wed	금정수요음악회 '이탁교 오카리나 독주회'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박진홍(017-563-7966)
15	thu	김영지 제자음악회 18:00 -대공연장 초대/한미수(017-541-9425) 신은진 피아노 독주회 19:30 -소공연장 초대/김희남(011-9543-7706)
16	fri	
17	sat	
18	sun	
19	mon	
20	tue	
21	wed	
22	thu	김성숙 피아노 독주회 19:30 -소공연장 균일 1만원/클래식 프로인트(521-5729)
23	fri	전통가곡 연주회 19:00 -소공연장 부산대학교 국악과(510-1739)
24	sat	어린이 영어뮤지컬 '흥부와 놀부' 15:00, 19:30 -대공연장 한국피아노지도자협회 겨울시즌 페스티벌 16:00 -소공연장 박선연(011-9508-6846)
25	sun	어린이 영어뮤지컬 '흥부와 놀부' 15:00 -대공연장 무료/Song and Soul(512-5868)
26	mon	아마데우스 바이올린 클래스 연주회 19:30 -소공연장 무료/박정희(515-2439)
27	tue	조현선 피아노 독주회 19:30 -소공연장 클래식 프로인트(521-5729) 아퀴스그라나 리코더양상블 내한공연 19:30 -소공연장 강희숙(016-562-6561)
28	wed	신인음악회 19:30 -대공연장 음악춘추(582-9143) 금정수요음악회 19:30 -소공연장 박진홍(017-563-7966)
3/1	thu	부산아버지합창단 3번째 이야기 19:00 -대공연장 부산아버지합창단(516-1616) 마술피노키오 12:00, 14:00, 16:00 -소공연장 가람뮤지컬(019-264-4842)
3/2	fri	
3/3	sat	기타리스트 띠또 코방 리사이틀 19:00 -대공연장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배효정 가야금 독주회 17:00 -소공연장 초대/배효정(016-866-0844)

❖ 예술단 정기회원이 할인에매할 수 있는 공연

장 소	일 시	공 연 명	관 람 료	할 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8(목) 11:00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	균일 15,000원	30% (1인 4매)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2/10(토) 19:30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초청 KNN 신년음악회	VIP 90,000원 · R석 7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	10%	KNN방송 (1577-7600)
	3/16(금) 11:00	박호성, 심수봉과 만나는 11시 립스틱 콘서트	균일 15,000원	30% (1인 4매)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2/2(금) 10:20, 11:40 2/3(토) 12:00, 14:00, 16:00 2/4(일) 13:00, 15:00	세계명작뮤지컬 아기돼지삼형제	균일 15,000원	3,000원 할인	동그라미그리기 (818-1772)
시민회관 대극장	3/10(토)-3/21(수) 평일 20:00, 주말 오후 3:00, 7:30	프랑스 오리지널 캐스트 내한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R석 150,000원 · S석 120,000원 A석 80,000원 · B석 60,000원 C석 40,000원	10%	요요기획 (622-5744)
KBS부산홀	2/3(토) 19:00 2/4(일) 18:00	빅마마 콘서트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10%	(주)에이엔씨티 (1644-4484)
	2/10(토) 19:00	김건모 콘서트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A석 44,000원		
	2/18(일)-2/19(월) 14:00, 18:00	이은결 10주년 콘서트	1층 55,000원 · 2층 44,000원 3층 33,000원		
가마골소극장	1/26(금)-2/15(목) 평일 19:30, 토요일 16:30, 19:30, 일요일 15:00, 18:00 (월요일 공연없음)	부산연극제작소 동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10%	가마골소극장 (245-0042)
창원성산아트홀	2/9(금) 19:30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초청 KNN 신년음악회	VIP 90,000원 · R석 7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	10%	KNN방송 (1577-7600)

예 / 매 / 창 / 구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예 / 매 / 방 / 법

직접 또는 전화 신청

예 / 금 / 계 / 좌

부산은행 036-01-034848-7
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지정 예매처

- 부산은행 전 지점, 티켓 365(www.ticket365.co.kr)
- 중구/남포문고(245-8911)
- 부산진구/동보서적(서면 제일은행 옆 803-8000), 영광도서(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 남구/면학도서(경성대 앞 623-9404)
- 사하구/향학서점(동아대 하단 캠퍼스 앞 203-9381)
- 북구/대한도서(덕천로타리 332-7339)



선택은 한번, 감동은 영원히...

가족처럼 늘 가까이 야마하가 함께 합니다

야마하 공식 A/S점



부산 야마하 피아노 악기

- 양정 본점 : 051) 863-0900
- 롯데백화점 부산점 6층 : 051) 816-0089
- 사직동 홈플러스 : 051) 506-7332

한박자 천천히

이구일 · 한국바로크음악연구회 회장, 첼리스트



요즘 우리들의 새해 덕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보다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듯하다. 부자(富者)! 분명히 넉넉하고 풍요로워 편안한 느낌이 드는 단어이다. 그러나 진정한 부자는 무엇일까? 부자라 하면 '돈'이 많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을 말하겠지만 음악을 하는 나로서는 그보다 정신적,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진정한 현대 사회의 부자가 아닌가 싶다.

주위에 간혹 아픈 사람이 있어 병문안을 갈 때면 절실히 생각하게 된다. '건강이 제일이라고...'. 물질문명이 발달한 만큼이나 현대 사회의 질병의 종류 또한 다양하다. 현대에 발병하는 많은 질병들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라고들 한다. 모든 일에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경쟁심, 말없는 시기, 질투... 엇갈리는 이러한 많은 감정들이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일 것이다.

사람들은 제각기 스트레스를 풀어나가는 방법들이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잔잔하게 흐르는 선율을 듣는 것으로도 충분히 격한 감정을 정화시킬 수 있다. 파랗게 높은 하늘만 봐도, 아니면 드넓은 바다만 보아도 우리는 위대한 자연속에 우리의 존재가 참으로 작다는 것을 알게된다.

인간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음악을 알고 접할 수 있다는 건 큰 행운이라 생각된다. 나아가 자신이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더없는 '인생의 로또'가 아닐까 싶다. 더욱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 중에서 서양 음악의 모태인 '바로크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정 삶의 여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하고 싶다. 물론, 음악은 바로크 음악 뿐만 아니라 모든 장르의 음악은 너무도 좋다.

하지만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 듯 음악에 있어 나무요, 흙인 자연은 '바로크 음악'이라 생각된다. 나 스스로 바로크 음악은 '굳어지기 없이 깔끔하게 차분히 할 말만 하는 음악'이라 정의 내리고 싶다. 현대 음악에 비해 웅장한 파워(power)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란한 테크닉(technique)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인간의 마음에 잔잔하게 다가와 마음껏 많은 것을 속삭이는 듯하다.

뿌리가 견고한 바로크 음악! 이는 또한 신뢰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연상시킨다. 인간은 최후에는 자연을 찾고 단순한 것을 찾는다고 한다. 복잡하기 보다는 단순하게, 빠른 박자(tempo)보다는 한 박자 천천히... 각박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달래는 좋은 말인 듯하다. 모든 생각들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

바로크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는 만큼이나 사소한 일상의 많은 것들을 소중하게 느끼며 평범한 것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간다면 이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좋은 지혜인 듯싶다. 늘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지도 않으며 때론 지루하게 생각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조그만 나쁜 일이 있고 난 뒤라면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느끼게 된다. 그렇다. 우린 신이 아닌 인간이기에 실수도 하고 화도 내고 울기도 하고 싸우기도 한다.

그러나 늘 변함없이 다가오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많은 것을 계획하게 된다. 그 중에는 실천에 옮기는 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 뜻 새 마음 갖고 늘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진정 아름다운 사람일 것이다. 자신의 한 가지 목표를 향해 꾸밈없는 얼굴로 그저 묵묵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다. 자신을 깔고 닦는 마음에서 자신감과 당당함은 쌓여 자신의 미래를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시간의 손실을 아까워 한다'는 말이 있다. 20대, 30대, 40대... 각각의 연령대에서 해야 할 일은 다르지만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가장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새해에는 자신의 삶만큼이나 타인의 삶도 존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지나치게 화려함을 추구하며 돈이 되는 것만을 좇기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도움과 나눔을 줄 수 있는 따스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바쁜 일상에서 한 박자 천천히, 한 잔의 차와 함께 바로크 음악을 자주 접하는 한 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웰빙콘서트로 부산시민들과 만나는 지휘자 금난새



무대 위에서 행복을 전하는 클래식계의 스타지휘자 금난새가 2007년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웰빙콘서트 지휘자로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2월 8일 첫 공연에 앞서 웰빙콘서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면인터뷰를 통해 지휘자 금난새를 만나본다.

▶ 웰빙 콘서트를 지휘하는 소감

클래식 음악에 대해 '딱딱하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이 클래식 음악회에 와서 음악만 듣고 간다면, 그 이후 음악회에 오기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악회를 이끌어가는 지휘자가 청중을 위한 작지만 의미있는 아이디어를 고안한다면 청중들로 하여금 클래식에 대해 호의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2003년 유라시안 앙상블이 처음으로 호암아트홀에서 '굿모닝콘서트'를 기획, 연주한

이래 오전11시 공연이 공연장 사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 시도되어 청중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잠재고객인 주부들이 이러한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고객층 확보에도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공연을 관람하고 공부하고 활용하는 습관을 가지고 늘 청중의 입장과 공연 주최자 입장에서 장소 및 공연 형태를 생각하다 보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웰빙 콘서트가 진정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좋은 음악회 형태로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 앞으로 이어질 웰빙콘서트의 간단한 프로그램 소개

오는 2월 8일 연주될 첫 연주회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곡가 차이코프스키의 작품으로 꾸몄습니다. 발레 모음곡 '백조의 호수' 중에서 일부 곡을 발췌, 2부에서는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서곡을 연주할 계획입니다. 일년동안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에서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를 연주할 계획입니다. 2월 8일 첫 무대에서는 부산의 중견 바이올리니스트 김영희 교수가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 '봄'을 연주하고,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가 협연하는 5월 18일 연주회에서는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 '여름'을 연주합니다. 8월 22일 '클래식은 내 친구'에서는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 '가을'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백재진이 협연하는 웰빙콘서트에서는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 '겨울'을 연주할 계획입니다.

▶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점으로 두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대편성의 관현악곡을 연주하되, 각 작곡가의 삶과 의지가 담겨있는 곡으로 선곡하고 있습니다. 시리즈로 연주회를 오시는 청중들은 매회 음악회를 볼 때마다 충분히 작곡가의 삶을 간접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청소년 음악회의 신화에 이어 부산의 주부, 여성 청중들에게도 새로운 바람을 기대합니다. 공연장에 첫 걸음을 망설이는 청중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클래식 음악은 무엇보다 많이 듣고 체험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대중가요나 팝의 경우, 한번 들으면 멜로디를 기억하고 이해하기 쉽지만, 클래식 음악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묘한 매력에 빠져드는 음악이 클래식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일단 직접 공연장에서 음악을 듣는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007년 올해 신년 계획이 궁금합니다.

작년 9월부터 경기도립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취임하게 됨에 따라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겸임해 두 개의 오케스트라를 각 특성에 맞게 최상으로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경기도립오케스트라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음악단체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국내 최초 벤처 오케스트라를 표방하며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유라시안 필하모닉의 연주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인 연주형태로 새롭게 꾸며보고자 합니다.

시애틀, 또 다른 세상이 열린다

김현숙 · 미국 통신원



시애틀의 상징인 스페이스 니들.

미국 시애틀의 워싱턴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으로 연수를 떠나던 날 아침, 걱정스러워 눈시울 붉히며 흘리시던 어머니의 눈물처럼 굵은 겨울비가 참 많이도 내렸다. 이민가는 사람인냥 큰 가방들 속에 쌓여 가라앉아있던 내게 “제발 건강에 신경써 가며 조심해서 생활해라”하시던 어머니의 걱정은 이미 시텍(SEATAC)공항에 도착해서 폭설기상특보를 접하고 앞으로의 유학생활의 환상이 아닌 현실에로의 초대로 다가왔다.

한국에서 최단거리에 위치한 미국 시애틀의 날씨는 내가 알고 있었던 온후한 날씨와는 거리가 멀었다. 시애틀은 매일 새로운 기상역사를 새기듯 잦은 폭풍우와 폭설, 비바람에 휴교되는 날이 많았고, 빙판길이라 해도 거리는 크리스마스 연휴에 들떠 있었다. 내가 출발하기 전의 부산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연말연시 분위기를 전혀 느껴보지 못했건만, 미국전역은 거리마다 캐롤송과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모두가 해피크리스마스에 들떠 있는 모습이 사뭇 부럽고 한편으로는 샘이 났다. ‘대한민국 파이팅!’ ‘다이내믹 부산 파이팅!’을 외치고 싶어졌다. 해외만 나오면 애국심이 생기는 건 왜일까?

1874년 인디언 대추장의 이름에서 유래되어 지어진 시애틀은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과 ‘발렌타인 데이’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시애틀은 동부에 위치한 수도 워싱턴 D.C와는 반대편인 서부해안가에 위치한 워싱턴(Washington)주에 있으며, 위로는 캐나다와 국경을 이루고 밑으로는 오레곤(Oregon)주 경계에 있는 서부 주요도시의 하나로, 보잉사와 온라인도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등 최첨단 하이테크 산업이 활발한 도시이기도 하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회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급성장한 워싱턴대학은 남부의 버클리대학과 함께 서부의 유명 주립대학으로 캠퍼스자체가 관광코스가 되고 있다.

나 또한 중앙캠퍼스와 연구실 건물들의 아름다움에 탄식이 절로 나와 앞으로 워싱턴대학에서의 연수 생활이 은근히 기대된다.

시애틀은 시애틀교향악단, 시애틀오페라단, 태평양북서발레단 등의 면모에서 보듯이 부산시립예술단과 맞먹는 세계 정상급 수준의 음악과 무용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시애틀에 예술박물관, 시애틀아시아예술박물관 등 여러 박물관이 있고 시애틀에서만 80여개의 극단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니 부산시립극단과의 교류도 기대해 봄직하다. 최근에는 부산처럼 영화산업도 발달하여 국제영화페스티벌도 열리고 있다고 한다.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산과 흡사한 모습이 많다.

유명관광지인 Public Market은 자갈치시장 만큼이나 수산물시장으로 유명하며 다양한 해산물을 접할 수 있다. 생선위주의 식단을 즐기는 나에겐 다행이지만 육류위주의 미국인에게도 생선과 해산물 값이 비싸다는 것이 놀랍다. 또 다른 시애틀 관광명소인 Space Needle은 주사바늘처럼 생겼는데 부산의 용두산 타워처럼 시내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게 특징이지만 소문만큼 별로 구경거리가 없는 게 아쉽기도 하다. 그 외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쇼핑매니아를 위한 Seattle Center와 미국 최대 높이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산 MT.Rainier와 Olympic Peninsula의 온천과 자연경관은 절로 감탄이 나온다고들 한다. 또한 Tillicum Village섬은 인디언의 유적과 전통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유명한 섬이다. 재작년에 작품안무를 하면서 인디언의 전통음악을 창작 작품에 적용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슬픈 인디언 특유의 소리에 감동받았던 나로서는 꼭 시간을 내어서라도 Tillicum Village섬을 방문해 인디언의 문화에 심취해보고 싶어진다.

또한 시애틀은 레저의 도시이다. 겨울에도 초록의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기에 곳곳에 천연잔디골프장도 많고, 스키어들이 좋아하는 Snoqualmie Pass같은 유명스키장이 생활권 주변에 많아서 생활에서의 레저스포츠를 빼놓을 수 없다. 대부분의 무용수처럼 나도 춤추는 것 외엔 할 줄 아는 스포츠가 없어 부끄러웠는데 이번 기회에 체력보강차원으로 내게 맞는 레저스포츠를 찾아 볼 희망을 가져본다.

그래도 시애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것이 겨울비의 촉촉함과 애절한 듯 비수어린 물기에 어울리는 것, 바로 스타벅스(Starbucks) 커피와 케니지(Kenny G)의 색소폰 음악이라 할 수 있다. 시애틀의 스타벅스 1호점은 세계 커피시장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퍼블릭 마켓의 맞은편에 위치한 스타벅스 1호점은 지금도 세계인들이 몰려와서 커피를 사들고 가며 가게 앞은 무명의 예술가들이 퍼포먼스를 하며 행복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 음악에 조예가 깊지 못한 나에게 전해지는 감동은 없었지만, 그들의 젊고 패기어린 모습에 앞으로 내게 필요한 부분을 발견해 봤다.



워싱턴 대학이 위치한 시애틀은 보잉사와 온라인도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사 본사 등 최첨단 하이테크 산업이 활발한 도시이기도 하다.



세계 커피시장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 스타벅스 1호점. 전 세계인들이 몰려와 커피를 사들고 가며 가게앞에 무명의 예술가들의 퍼포먼스가 열린다.(사진은 스타벅스 1호점과 필자)



시애틀의 유명 관광지 퍼블릭마켓. 자갈치시장만큼 유명한 수산물 시장이다.

한 끼의 식사 값과 맞먹는 스타벅스 커피는 현대의 사람들에게 커피이상의 다른 문화적 공간형성을 공유하면서 세계의 젊은 문화인에게 확산되는 것 같이 느껴졌다. 커피중독자라 할 만큼 애호가인 내게 스타벅스 커피와 가장 어울리는 케지니의 음악은 그의 고향인 시애틀 자연과 빗소리만큼이나 부드럽고 애절하기까지 해서 한국에서도 비 오는 날은 자주 들곤 했었고 공연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애정이 가는 음악이다. 그러나 시애틀에서 듣는 케니지 음악은 겨울바람과 비의 냄새와 어두움이 젖어들어 또 다른 느낌을 준다.

그렇지만, 이 좋은 환경과 현실 속에서의 나는 '이방인'에 불과하다. '이방인'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아직은 한 달반 정도의 짧은 생활의 부적응일 수도 있을 것이고, 미국인 특유의 민족적 우월감에 나 스스로 위축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주의와 실리주의를 대표하듯 이방인에게 불필요한 친절을 베푸는 미국사람이 드물다는 건 조금만 생활해보면 느낀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미소를 띄우고 손 흔들며 "Hi!"

하며 반기는 듯 보이지만, 결코 호의적인 것이 아닌 교육으로 몸에 밴 형식적인 것임을 알게 된다. 새로운 환경에서 길을 잃거나, 또는 뭔가 다른 요구를 하거나 물어보면 차분히 설명해 주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외국인(특히 동양계)이라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면 웃으면서 일부러 더 빠르게 그들만의 영어로 혼란케 만들기도 하고, 반복해서 물으면 얼굴에 '시간 아까워', '짜증'이라고 씌여져 있기도 하다. 젊은 학생 일수록 더 냉담할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화가 날 때도 있고 주눅 들기도 하고 '내가 이 나이에 웬 고생인가?' 하며 애들처럼 씩씩대며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미국행을 결심한 투지로 다시 마인드 컨트롤한 후, 든든한 한국 쌀로 힘을 돋워 다시 전쟁을 치르러 또 나가게 된다. "역시 한국 사람은 밥!심!"이라며 농담을 했던 후배의 말이 맞는 것 같다. 뱃속이 든든하면 어쨌든 힘은 나고 없던 용기도 생기니 말이다.

미국에 도착해서 이것 저것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만 간단히 준비하고 설치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한국에선 하루 날짜 정해서 모든 불일을 보지만, 미국에선 하루에 한 가지 불 일만 보면 된다는 웃스개소리가 맞다. 예를 들면, 미국에도 집집마다 무선인터넷을 대부분 사용하는데 신청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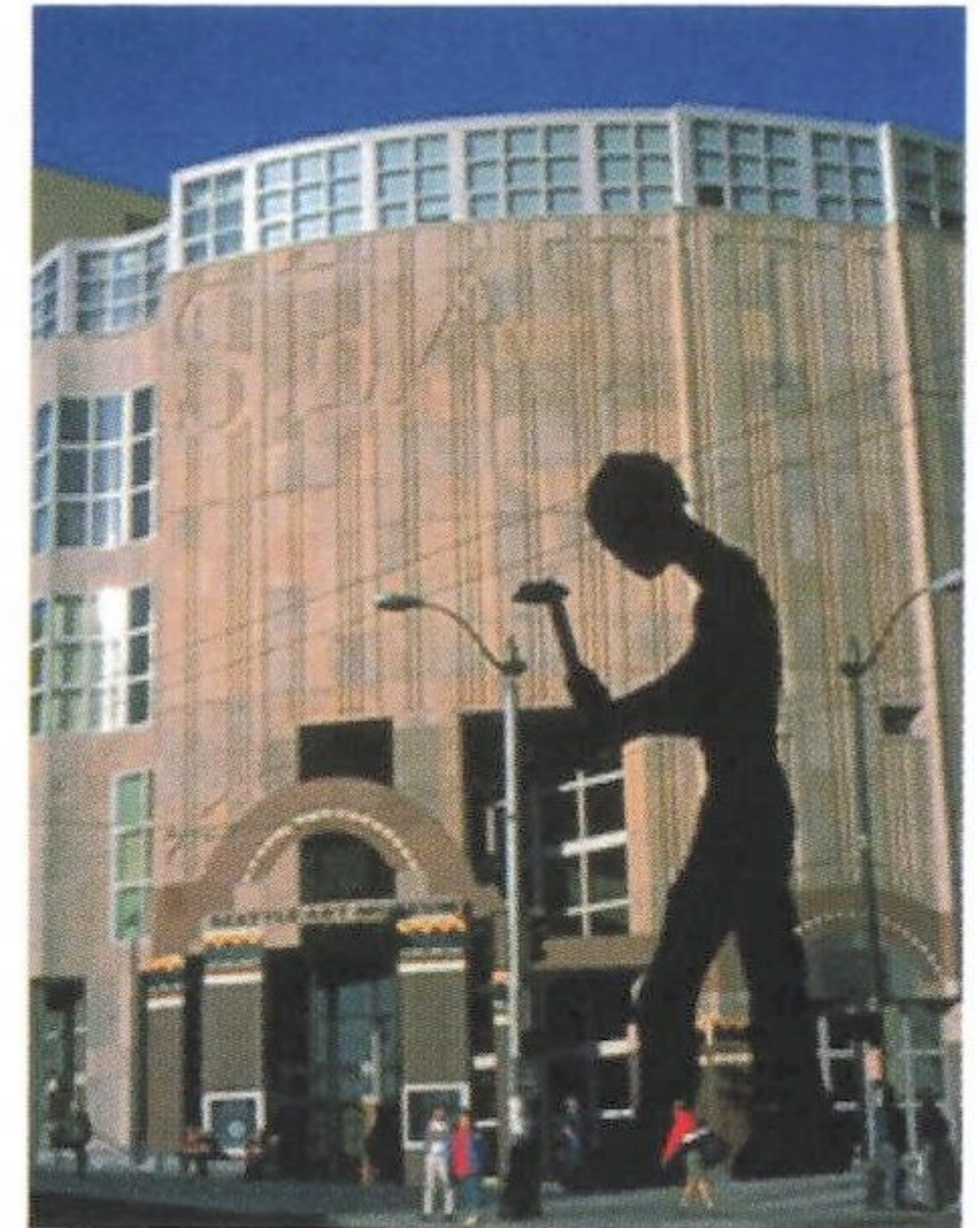
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다. 가령, 전화를 걸면 동부지역에 있는 본사에서, 때론 중부지역에서 상담원이 수천마일 떨어진 서부의 지사에 연결해 우리집에 인터넷 시설을 설치하는 형태가 많다. 또 번거롭고 재차 물어보는 등 절차도 까다롭거나와 반복해서 여러 번 확인하고 난 뒤 드디어 날짜를 정해서 설치하러 온다. 워낙 땅이 넓어서인지 정확한 시간을 말해주지도 않고 하루 종일 집에서 기다리게 만든다. 웬만한 부산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속이 터질 정도이다. 일처리가 느리고 반복적이긴 하나 서류 실수가 없고 완벽하게 마무리해 주는 게 다행한 일이라 위로할 수밖에 없다.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The Bank of America에 갔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시애틀의 넓고 큰 은행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다. 장소는 넓어 곳곳에 안락한 소파와 커피들이 즐비해 있어도 은행창구도 몇 개 안되고 줄서있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은행 업무는 아주 느려서 마음을 비우고 가야 한다. 그러나 통장과 신용카드 개설하는 것 뿐인데도 거액예치 고객을 대하듯 접객실을 마련해 섬세한 친절과 세심한 설명,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수표의 모양이나 색깔, 은행이용 후의 확인까지 다양한 서비스선택을 받게끔 해준다. 이는 핸드폰 개설할 때와 코스코(costco)나 대형마트에서의 친절서비스에서도 느끼듯이 미국에서 외국인이 제일 편한 대접을 받는 건 역시 돈 쓰는 것과 지출에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 씁쓸해지곤 한다.

하지만, 짧은 기간동안 미국에 대한 나의 느낌이 뭐 그리 중요할까? 내게 있어 미국은 필수조건이 아닌 필요충분조건에 해당했기에 뒤돌아보지 않고 마음 속의 꿈 하나만을 바라보며 그리 만만치 않은 2년 동안의 해외연수를 주저 없이 선택했다. 현실의 벽은 높고 높이 뛰어넘어 또다시 걸어 가야 할 길들이 장밋빛 드리워진 평탄한 대로가 아님을 잘 알고 있기에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과 배움과 시행착오를 거쳐 더욱 매진해야함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주변의 믿음과 애정어린 관심이 함께라면 이러한 고난의 길이 외롭지 않을 것이다. 이 길의 끝에 맺힐 꿈의 결과가 나 한사람만이 아닌 부산시립예술단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열매일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 절로 신명이 난다.

그리고 무용단원으로서 좀 더 성장하여 그동안 받아만 왔던 믿음의 몸짓을 내가 걸어온 길을 뒤따를 후배에게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벅차오르고 묵직해진다. 또한 부산시립예술단의 믿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연수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져본다.

마지막으로, 2006년 너무도 다사다난했던 일년을 보내고 곧장 출국하느라 제대로 인사 못해서 못내 아쉬웠던 관장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지인들께 이 글을 빌어서 안부인사를 전한다.



시애틀 미술관

지난해 12월 워싱턴대학으로 연수를 떠난 부산시립무용단 김현숙씨가 미국 통신원으로 앞으로 생생한 시애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부산과 공통점이 많은 항구도시, 산업도시 시애틀의 다양한 문화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음악에서 작곡자를 알 수 없는 이유?

강성일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음악의 형태는 자신의 사상과 감정으로 창작하는 작곡(Composition)과 작곡된 음악을 표현하는 연주(Performance)와 음악적 체험을 풍부하고 지적 이해를 깊게 만드는 감상(Appreciation)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음악의 세 가지 형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특히 작곡은 음악행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서양음악계에서는 작곡자를 위하여 탄생 몇 주년 하는 추모음악회가 종종 열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우리 전통음악계에서는 그러한 음악회가 적은 편이다. 그 이유는 서양음악에서는 이삼백년 전의 음악도 대부분 작곡자를 알 수 있는데 전통음악에서는 작곡자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우륵의 12곡, 옥보고의 30곡, 왕산악의 100여곡, 귀금의 3곡, 극종의 7곡, 백결의 대악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곡들은 너무 오래되어 이름만 남아있고 현재에는 연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후 고려의 청산별곡이나 서경별곡, 그리고 조선의 영산회상과 그 관련 곡, 예를 들면 중광지곡, 유초신지곡, 표정만방지곡 등의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등등, 그리고 술한 도드리와 가곡의 파생 곡, 청아한 청성곡은 물론이고 관소리와 시나위, 그리고 초기의 산조 등은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민요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와 같이 좋은 곡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하고 숙연해진다.

그렇다면 전통 음악에서 작곡자를 알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술이부작(述而不作)이다.

술이부작이란 〈논어〉 술이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로 구술(口述:傳述)하되 창작(創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성인(聖人)이 아니면 창작하지 말라는 뜻으로, 공자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시경〉이나 〈주역〉 〈춘추〉 등을 전술하되 창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기〉의 악론과 〈중용〉 21장에서 술(述)은 사리를 밝히는 것이므로 명(明)이라 하고, 성(聖)은 성실(誠實)이니, 밝은 것으로부터 성실하게 하면 바로 성인(聖人)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자는 술(述)을 현인(賢人)에, 작(作)은 성인(聖人)에 비유하였다.

이러한 공자의 뜻과 유가의 말을 받아들여 전통음악에서는 새로운 창작곡 보다 구음으로 전수하는 방법(肉譜)이 일반화되고, 그에 함께 새로운 파생 곡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작곡의 개념이 지금의 개념과는 크게 달랐다.

오늘날 전통음악을 창작한다는 미명아래 잡된 것과 특이한 것을 자꾸 만드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므로 전통사회에서는 필요 외의 창작은 사회 전체를 혼란시키고 자신이 유명해지려는 사욕에서 나온 것이라 하여



철저하게 제외시켰는데, 이러한 예가 종종 때 어숙권이 지은 패관잡기의 제 4권에 실려 있다.

정덕연간에 악공(樂工) 강장손(姜長孫)이란 자가 있어 거문고 잘 타기로 당시에 유명하였다. 귀거래사(歸去來辭)의 곡조를 창작하여 연주하니, 민간의 풍악을 배우는 자들이 꽤 많이 그 악보(樂譜)를 전하였다. 찬성(贊成) 이장곤(李長坤)은 음률을 알아 장악원(掌樂院) 제조(提調)가 되었다. 하루는 장악원에 앉아서 강장손을 시켜 귀거래사를 연주하게 하여 겨우 한두 줄을 희롱하는데, 호령하여 잡아서 곤장 80대를 때리고 말하기를 “네가 어찌감히 마음대로 거짓 풍악을 만들어 대중을 고혹(蠱惑)시키는가” 하였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죽으니 귀거래사가 드디어 끊어졌다.

귀거래사는 중국 진나라의 도연명이 지은 서정시로 지금까지 전해지는데 이러한 작품의 선율도 곤장으로 다스린 것이다. 아무리 좋은 가사라도 함부로 곡을 창작하여 농락한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전통음악에서의 창작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한말(韓末)의 이야기지만 어떤 악사 한사람이 거문고를 배우는데 재주는 있었으나 스승이 도무지 그 현묘한 가락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밤에 몰래 대청의 마루 밑에 숨어서 스승이 타는 거문고 가락을 들어 두었다가 돌아가서 그것을 거문고에 옮기고 또 이렇게 되풀이함으로써 스승의 가락을 옮겨 탈 정도가 되었다. 하루는 스승 앞에서 거문고를 배우다가 스승이 가르쳐 주지도 않은 가락이 튀어 나왔다. 어찌 되었겠는가? 그 스승은 그 가락을 어디서 훔쳤느냐고 호통 치면서 종아리를 때리고 다시는 거문고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한다(장사훈, 독서신문, 1976. 10. 3).

이렇듯 옛 스승들은 배우는 자의 마지막 현묘한 가락은 가르쳐 주지 않고 스승과 다른 가락을 연주케 함으로써 그 전통을 유지하되 자신만의 새로운 창작의 길로 안내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음악은 동양에서 중국음악이나 일본음악과 비교하면 서로 다른 예술세계로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거운 꽃

-이현양<蝶062/92x68cm. 칠, 칠분, 금박, 한지, 은, 나무칩, 숯가루>

김형술 · 시인



무거운 꽃 이현양<蝶062/92x68cm. 칠, 칠분, 금박, 한지, 은, 나무칩, 숯가루>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맨처음 어떤 사물을 자신의 의식과 의지를 담아 백지 위에 재현하는 사물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건 꽃이 아닐까. 서너 개의 동그란 꽃잎과 한 줄의 선으로 이루어진 꽃대, 그리고 그 꽃대에 매달린 두 어 개의 잎. 그 꽃이 우리가 그림이라 부르는 의식 또는 행위의 최초의 대상이지 않을까. 세상에 꽃이라 불리는 식물만큼 강렬한 친화력을 가진 존재는 드물다. 누구나 꽃을 좋아하고 가까이 두고 싶어하며 사랑한다. 다양한 색깔과 형태와 무엇보다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고 안정시키는 향기를 가진 식물인 꽃. 말하지도, 자기 의지로 걸거나 움직이지도 않는 꽃이 인간의 원초적인 미감을 건드리는 이유는 아마도 연약함, 부드러움, 시한부의 생명이지만 세상 무엇보다 아름다운 빛깔을 가졌다는 점에 있지 않을까 싶다. 아주 짧은 시간에 피었다 지기 위하여 꽃

은 대지의 무겁고 검은 암흑 속에서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숨막힐 듯 캄캄한 공간에서의 오랜 순응의 시간을 지나 피어난 꽃들이 마치 현자의 혀처럼 침묵으로 바람과 태양을 맞는 일은 그지없이 숭고해 보인다. 만약에

꽃들이 새나 짐승들처럼 혀를 가져 노래나 비명으로 자신을 알리는 존재라고해도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한 생명으로 태어나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아이들이 가장 먼저 재현하는 천진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인간에게 위안을 선사하는 아름다움의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 세상의 모든 꽃들은 대지의 향기로운 눈물로 이루어진 몸을 갖고 있다. 세상의 모든 꽃들이 눈부시게 환한 빛깔을 가진 것은 세상의 모든 어둠을 온몸으로 껴안아 자신의 몸 속에 숨긴 까닭이다. 그리고는 침묵. 이제 꽃들이 하지 않는 말, 꽃들의 침묵은 인간이 들어야 할 몫으로 돌아온다. 사람들은 꽃들에게서 어떤 노래며 비명, 속삭임과 탄식을 제 나름의 귀로 듣는다.

2007년 새해 벽두에 열린 이현양의 개인전 〈蝶〉 속엔 캄캄한 대지를 배경으로 일어서는 꽃들이 피어있다. 칠분과 은과 금박 등으로 피워낸 이 꽃들은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그려냈음직한 단순한 외형을 갖고 있지만 그 꽃들이 뿜어내는 울림은 깊고 그윽하다. 작가는 무슨 마음으로 어두운 배경 속에 한 그루 나무처럼 강한 존재감으로 일어서있는 꽃들을 그려낸 걸까. 이현양의 꽃은 장식이나 수식을 위한 사물이 아니라 꽃 그 자체가 가지는 존재감에 깊이 천착한 듯하다. 세세하게 묘사한 잎, 꽃잎, 꽃술 대신 그저 가장 단순한 상징의 형상만으로 힘차게 일어서있는 꽃들에게서 작가의 내면에 잠재해있을 강인한 열정과 의지를 느낀다. 꽃의 대척점에 놓여야 마땅한 나비의 존재가 그저 흔적 뿐인 하나의 무늬로 그려졌음에서 알 수 있듯이 어둠을 배경으로 서 있는 꽃들은 나비에 의해 번식하는 나약한 식물이 아니라 스스로 씨앗을 여물어 꽃씨를 뱉어 대지에 묻으며 새로운 생명을 기원할 듯 담대하고 힘찬 꽃들이다. 바람을 기다리거나 바람의 향방에 몸을 맡긴 채 나풀거리거나 흔들리는 가벼운 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만 사유하고 움직일 듯 한, 작으면서 또한 커다란 꽃. 확고한 존재감을 부여받은 이 꽃들은 작품 앞에선 관람객들에게 조근조근한 어조로, 혹은 낮지만 확신에 찬 어조로 많은 이야기들을 건넨다. 미감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말, 고독과 그리움 따위에게 위안을 주는 향기로운 말, 혹은 고통에 찬 탄식이나 독백, 그 어느 것이든 이제 꽃은 작가의 손을 떠나 관람객 자신의 말로 바뀌어 가슴에 담긴다. 이 꽃들에게 굳이 귀를 가까이할 필요는 없다. 멀리 있거나 근처를 서성이기만 해도 꽃들은 스스로 다가와 곁에 선다. 인간과 키높이를 같이하는 커다란 꽃, 인간과 맞먹는 무게를 가진 무거운 꽃. 이현양의 꽃은 이처럼 크고 무거워 보인다.

한동안의 맹추위가 물러가고 날이 많이 풀렸다. 아직 몇 번의 추위가 더 남았겠지만 이 겨울 햇빛에서도 봄의 예감은 어김없이 느껴진다. 뽕뽕 얼어붙은 대지의 어느 어둠 속에서 꽃피울 날을 기다리며 치열하게 꿈꾸는 생명들, 작은 씨앗들은 숨어있을 것이다. 그러니 길을 걸을 땐 늘 발걸음을 조심해야 한다. 내가 디디는 한 걸음의 발자국 아래 어찌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꽃씨들이 눈 뜨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니.

오카리나 이야기<6>

박종근 · 한국음악오카리나협회장



한 음악 단체가 태동하기 까지에는 산모의 고통못지 않은 아픔과 여러 장벽이 있다. 그 중에서도 최우선의 과제를 꼽으라면 단연 물질적인 지원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려워지며 물가지수는 올라가고 서민 가계부의 앵겔지수가 높은 이때에 선뜻 한 단체를 위해 헌신적으로 도와주시는 그 분을 보면서 좀 더 안정된 체계 속에서 그 분의 지원으로 많은 사람이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연주에 임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한 연주단체를 위해 헌신적으로 내 일처럼 용기내어 도와주신 그 분께 이 지면을 빌려서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이윤을 어려움에 있는 부산의 예술 단체를 위해 함께하는 모습을 자주 접했으면 한다.

■ 확장음

오카리나는 다른 악기와 달리 운지표에 나와 있지 않은 음정이 있다. 그런 음을 확장시켜 붙었다고 해서 우리는 '확장음'이라고 부른다. 이 확장음을 연습함으로 음폭이 좁은 오카리나를 한층 연주 곡목의 선택과 폭을 넓게 만들 수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배운 고음 F음을 보다 쉽고 고운 음으로 소리 낼 수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제일 고음인 F음을 G. A음을 낸다고 생각해 보자.

벌써 마음자세부터 F음을 낼 때 그 위의 G. A음이 있기 때문에 F음을 제일 고음이라고 생각지 않게 되어 F음이 확장음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낼 수가 있다. 그러나 이 확장음을 연습하여 익혀두면 좋지만 확장음은 각 악기제조사에 따라 혹은 같은 제조사의 악기라 할지라도 악기 성능에 따라 그 확장음의 운지가 제각각 다르다는데 있다.

오카리나가 폐관악기이자 작음 악기인 만큼 확장음에서는 다른 고음보다는 좀더 센 힘으로 불어야 한다. 처음에 소리가 잘나지 않고 '픽픽' 하는 소리가 나겠지만 아랫배에 힘을 주고 입술 모양을 좁게 하여 반복 연습에 임하게 된다면 이전보다 훨씬 고음에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 리코더를 응용한 운지

자신감 있게 연주를 하려면 먼저 충분한 연습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오카리나 운지표로는 빠른 tempo의 연주가 나왔을 때 필자도 하기 힘든 운지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즉 C#과 D#의 운지가 다른 악기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어렵게 되어있어 빠른 tempo의 연주에서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운지를 리코더의 C#과 D#의 운지를 그대로 접목시키면 오카리나 연주가 훨씬 부드러운 프레이즈로 이어질 수가 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악기가 작음 악기란 걸 잊지 말며, 반음 운지를 할 때 저음은 1/3을 열며 고음은 2/3를 연다고 생각하며 연습해보자. 음정이 이전보다 훨씬 더 정확한 음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리코더 운지를 응용하게 되면 음을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정확하게 막지 않았을 때에 엉뚱한 음이 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에 어느 정도 연습량을 가진 후에 실전에 응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퍼포먼스

연극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음악에서 더 큰 퍼포먼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아무리 연습을 충분히 하여 제 기량을 십분 발휘하였다 하더라도 퍼포먼스가 없는 정지된 상태의 연주가 계속된다면 결코 그 음악이 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과한 몸짓 또한 연주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그 음악에 어떤 몸짓이 어울릴지도 생각해서 연주에 임해보자. 한층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며 연주자 또한 만족을 얻을 것이다.

보통 오카리나는 어떻게 몸을 움직이는 게 좋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남에게 자신의 연주를 퍼포먼스와 함께 보였을 때 큰 부담감이 없다면야 괜찮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데 너무 몸짓을 과하게 하여 음정에까지 변화가 있다면 그 퍼포먼스는 결코 좋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생각한다.

■ 자연스런 자세

오카리나 강의 첫 시간에 거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손가락의 모양, 좋은 자세 등 여러 가질 이야기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잘 익히며 연습하였다면 연주 자세에서 자연스러운 자세가 나오리라 믿는다.

〈손가락의 모양〉

1. 손가락이 힘이 들어가 뻣은 상태가 아닌 자연스럽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2. 손목에는 힘을 빼고
3. 손가락의 끝은 힘을 실어서 누르고
4. 손가락으로 누르는 부위는 지문의 중앙부분으로 누름으로써 정확한 운지를 하게 되며 손의 모양 또한 자연스러운 모양을 유지하게 된다.

〈연주자세〉

1. 팔을 조금 들어서 자연스러운 각도를 유지하며
2. 눈의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3. 발의 위치는 어깨넓이에서 한발을 뒤로 조금 보낸 상태

이 세 가지 자세를 하게 되면 자연스러움이 더해져 멋있고, 당당한 연주자세가 되며 자연스러운 자세는 곧 자연스러운 연주로 연결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1인 1기를 배움에 있어 좀 더 끈기 있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연습에 임해 올해 정해년에는 꼭 1인 1기를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1인 1기를 배움시다는 2월호로 끝을 맺습니다. 그동안 단소편을 집필해주신 채수만님과 오카리나편을 집필해주신 박종근님께 감사드립니다.

연극과 여행

유상훈 · 연극배우

살면서 연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행일 수 있겠지만 공연을 십여일 앞둔 즈음이면 으레 한번쯤 공연이 끝난후의 여행을 꿈꾸게 된다. 연습의 막바지에 이른 지점이다. 작품의 대충에 그림이 그려지고 반복 숙달 과정 속에 디테일을 점검,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마지막 공정이다. 힘든 시간이다.

배우에게 연습이란 것이 남들 보다 더 강하게 집착하여 그걸 공중에다 던져버려 텅텅 비어가는 여정이라 치면, 모든 것을 새롭게 자극 받고 반응하는 고된 시간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 그 마지막 맺음인 공연이란 걸 마치고 채 아물지 않은 감각들을 부여안고 떠나,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는 풍경과 낯설음들과의 만남. 지난 공연을 되 씹어보고 앞으로의 구상과 삶에 대한 넓은 시야, 그리고 관조(觀照) 새로운 눈뜸..., 가슴 부푼 고상한 시간대에 대한 기대



대본이 던지는 작가의 세계와 연출의 의도, 잘 어울려 섞여가는 상대배우들과의 교감, 그리고 관객의 뜨거운 시선과 영감의 일치. 이 소중한 값진 경험들이 고스란히 연극작업이란 여행속에 준비된 것들이다.(사진은 거창국제연극제에 참가한 부산시립극단)

를 해 보는 것이다.

하지만 공연이 끝나면 심중팔구 그럴 기회는 없다. 여행을 갈만한 여유도 없거니와 그 동안 밀렸던 일과 눈앞의 것들을 좇다 보면 그 절절했던 여행의 이유들도 사라지고 없다.

하지만 가끔 공연과 여행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지방공연이나 해외공연일 때이다.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의 초청공연은 공연 후 관광일정이 잡혀 있었다. 공연을 마친 후 그 지역을 둘러 보게되면 신기하게도 그곳이 낯설거나 부담스러움 없이 편안했다. 그건 국내 공연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그 지역 관객들과 뜨거운 밤을 보낸 이후의 장소란 정겨울 수밖에 없는 건지. 마을회관에다 흑막(黑幕)을 설치하고 확성기로 무료공연의 광고를 내내 들려 주어 모인 마을주민이든, 이름난 극장에서 예약된 표를 찾아 차려입은 의상을 뽐내는 관객이든, 눈 맞추어 함께 갖다온 공연이란 세계는 다음날 그 사람들이 살고있는 그 지역을 더 이상 낯설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음식들...

경북 포항에서 공연을 마치고 다음날 바로 전남 어느 지역에서 공연을 올려야할 경우가 있었다. 무대인사를 끝으로 그야말로 뒤도 안 돌아보고 의상 도구 무대세트를 거두어 대기하던 차에 싣고 다함께 버스에 올랐다. 이미 밤은 늦었고 이 밤을 달려 가능한 빨리 도착해야 눈이라도 부칠 수 있는 지경이었다. 우리나라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에서 우리는 채 가시지 않은 공연의 열기를 안고 어둠과 별을 보며 함께 노래도 하고 두런두런 얘기도 나누었다. 생각컨대 한배를 탄 동질감과 삶이 흐르고 있다는 인식이 절절했던 잊혀지지 않는 순간들이었다.

하긴 2~3개월의 연극연습 중에도 우린 가끔 떠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술을 한잔 나누는 일이다. 지나쳤다간 왔던 길 되돌아 다시 시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하지만 출구 없는 비상구를 향해 함께 몰려 달려가는 재미가 쏠쏠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작업자들이 원하는 여행은 작업 속에서 일게다. 대본이 던지는 작가의 세계와 연출의 의도, 잘 어울려 섞여 가는 상대 배우들과의 교감, 그리고 관객의 뜨거운 시선과 영감의 일치. 이 소중한 값진 경험들이 고스란히 연극작업이란 여행 속에 준비된 것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긍정적 요인들만이 대기하고 있다면 여행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덧붙인다면 연극은 자신 속의 수직적 여행이 가능하다. 나의 능력, 크기 나의 세계에 대한 탐구, 그리고 이 모든 기회와 도움을 받들어 진보와 확인, 경지의 체험들로 성장하는 인성(人性)을 경험케할 여행이 준비되어있다. 멋진 일이다.



전통한옥의 소박한 멋을 체험할 수 있는 김해한옥체험관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주거를 그대로 재현한 김해한옥체험관은 지금은 거의 사라진 우리 전통한옥의 웅장하면서도 소박한 멋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갑갑한 도심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일탈을 꿈꾸는 현대인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김해한옥체험관은 지난 2005년 3월 가야문화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9월 문을 열었다. 1,200여평이 넘는 부지에 전문가들의 철저한 고증으로 한옥 7개동이 들어서있다. 원래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상징인 99칸 한옥을 재현하고자 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1동을 건립하지 못하면서 안채, 아래채, 사랑채, 별채, 바깥채, 행랑채, 사당 등 85칸 7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해한옥체험관은 가야대학교가 관리를 하며 우리 전통문화 알리기에 열심이다.

출입문을 들어서 바깥채, 행랑채를 지나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랑채는 '경전을 논하던 곳'이라는 뜻의 '담경헌(談經軒)'이란 이름이 부쳐져 있다. 사랑채를 지나서는 '편안하게 머문다'는 의미의 '거안당(居安當)' 안채와 '아름다움을 취한다'는 탐미당(耽美當)의 별채와 마주친다.

사랑채와 안채, 별채에는 2인실과 4인실 등 모두 13개의 숙박체험관이 마련되어 있다. 각 실내에는 다양한 고가구와 보료, 방석, 편지꽂이, 병풍 등 양반들이 쓰던 소품을 그대로 재현, 고풍스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더불어 샤워시설과 비데를 갖춘 화장실, LCD 모니터, 전화기, 인터넷선 등 특급

호텔 버금가는 편리한 시설도 갖춰져 있다. 거안당과 담경헌의 넓은 대청마루는 회의장소 뿐 아니라 단체객들의 숙박시설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김해한옥체험관은 우리 한옥의 아름다움과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문화관광 명소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개관 직후 단국대학교 역사학과 학생 70여명이 답사를 겸해 하루 묵어간 것을 비롯 지금까지 1,600여명이 이곳을 다녀갔다. 가야문화 유적지를 보기위해 김해를 찾는 외국인이 숙박객들의 발길도 이어져 전체 숙박객의 30여%를 차지한다. 입소문이 나면서 주말에는 가족단위 숙박객이 많이 늘고있다.

체험관 입구에는 궁중음식을 재현한 전통 한식당 감지방(甘旨房)과 다양한 전통차와 다도예절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다원 전향실(篆香室)이 있어 평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전통먹거리까지 즐길 수 있다. 또한 사랑채와 안채, 별채 사이의 넓은 마당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전통혼례가 수시로 펼쳐지고 있다.

매주 토요일에는 다도시연, 한지공예, 예절교육, 민속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시간이 마련되어 있어 전통한옥에서 보내는 색다른 하룻밤과 더불어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다. 또한 앞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기간동안 가야역사탐방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캠프, 전통예절을 배울 수 있는 예절학당 등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김해한옥체험관을 둘러본 후에는 바로 맞은편에 자리잡은 김해 건국시조인 수로왕릉을 비롯 김해민속박물관, 봉황대, 봉황동 고분군, 대성동 고분군, 국립김해박물관 등 수많은 가야 유적지가 20여분 거리내에 있어 온 가족이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역사탐방코스로도 인기가 많다.

■문의:김해한옥체험관(055-322-4735~8, www.ghhanok.co.kr)



김해한옥체험관은 조선시대 사대부집을 85칸 7동으로 재현했다.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한 객실내부.



김해한옥체험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다도시연, 한지공예, 예절교육 등 전통문화 체험시간이 마련되어 있다.(사진은 2006년 9월 개관과 함께 펼쳐진 다도시연)

최초의 區 무용단으로 새롭게 출발한 오륙도 무용단



부산 최초의 구청 무용단으로 출범한 남구 오륙도 무용단.

우리 전통춤의 매력에 빠진 어머니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뭉쳐진 오륙도 무용단. 2003년 2월 첫발을 내딛은지 3년만인 지난해 12월, 남구청의 공식무용단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최초의 구 무용단으로 탄생되었다.

부산시립무용단 단원이자 무형문화재 제 97호 이매방류 살풀이 이수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숙례씨가 단장으로 있는 오륙도 무용단은 출범 당시만 하더라도 김복실, 박성화, 허관득,

최필선, 감성희, 신서련, 이수옥, 최숙현, 김영숙, 한경희, 김선자 등 11명에 지나지 않았던 단원들이 지금은 45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10년이상 전통무용을 배워온 단원이 있는가 하면 더 늦기 전에 우리춤을 배우기 위해 가입한 초보회원까지 구성원들의 실력과 연령층은 다양하지만 우리춤에 대한 관심과 사랑만큼은 회원 모두 한마음이다. 오륙도 무용단은 전통춤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오륙도무용단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연습을 겸한 정기모임을 대연동 연습실에서 갖고 있다. 공연이라도 있는 달이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습에 참가할 정도로 단원들의 열의는 프로무용단 못지 않다. 토요일에는 우리춤을 처음 접하는 초보회원들을 위해서 기초반 강습도 따로 갖는다면 무용단 내에 교육부를 운영하는 등 단원들의 실력향상에도 큰 노력을 기울인다.

“춤을 배운 후 이곳 저곳 아프던 몸이 다 낫았다”는 김영숙 단원은 “몸이 건강해졌을 뿐 아니라 나이를 잊을 정도로 기분도 밝아지면서 누구보다 가족들이 좋아하다”며 요즘도 가끔은 ‘내가 춤을 안쳤으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춤의 매력에 푹 빠져있다.

가입한 지 두달째 접어드는 신입자 회원과 오륙도 무용단과의 인연은 바로 이웃사촌. 연습실

인근에 살던 신필자 회원이 건물 밖으로 흘러나오던 전통가락을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용기를 내어 연습실로 찾아와 단원으로 가입했다.

“요즘같이 스피드한 시대에 선인들의 정신과 여유로운 멋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우리 전통춤의 매력”이라는 김선자씨는 무용단 활동을 통해 정서적인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어 좋다고.

“처음에는 별 매력을 느끼지 못했지만 배우면 배우수록 매력적인 것이 우리의 전통춤”이라는 박성화씨는 특히 오륙도 무용단에서 춤을 통한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까지 펼칠 수 있어 무엇보다 즐겁다.

“지난해 남구청의 공식무용단으로 인정받은 만큼 그 이름에 걸맞도록 앞으로 더욱더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최필선 신임회장은 2007년을 맞는 각오가 남다르다. 오륙도 무용단은 그동안 대연성당 노인무료급식 경로잔치, 대연중앙교회 노인을 위한 위문공연, 용호3동 어르신 경로잔치, 신애관 위문공연 등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랑 나누기에도 앞장서온 만큼 앞으로도 찾아가는 무대를 통해 봉사하는 무용단으로서도 그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오륙도 무용단은 지난 한해 이기대 달맞이 축제공연, 기장 멸치축제, 밀양 아랑제 축제, 남해마늘축제, 부산시 주부클럽 자원봉사의 날 초청공연, 남구 오륙도 축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2005년 10월에는 노인생활과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세계 노인의 해 축제 문화교류공연 상해 방문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기도 했던 오륙도 무용단은 2006년 5월 서울 경희궁에서 열린 서울 신사임당 추모식 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2007년에는 이기대 정월대보름맞이 공연을 시작으로 남구청 준공식 축하공연, 신애관 위문공연, 달맞이축제, 오륙도축제, 유엔데이 등 다양한 무대가 예정되어 있다. 오륙도무용단은 오는 10월경에는 우리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힘을 발휘해 첫 창단공연도 가질 계획이다.



오륙도무용단은 2006년 12월 남구 어머니 무용단으로 출범식을 갖고 2007년 의욕적으로 출발했다.



오륙도무용단은 매주 화요일, 수요일 연습을 가지면서 우리 춤을 배우고 있다.



찾아가는 무대를 통해 무용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오륙도무용단은 지난해 오륙도 축제에 출연, 큰 박수를 받았다.

제자들과 함께 정년퇴임 연주 갖는 부산대학교 나광자 교수



“정년퇴임 연주를 준비하면서 피아노와 제자들과 함께 한 세월들을 새삼 돌이켜보게 됩니다.”

2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32인의 피아노 앙상블 무대를 마련하는 피아니스트 나광자교수는 요즘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다.

고향 대전을 떠나 20대에 부산에 정착해 많은 활동을 해온 나광자 교수는 교육자로, 피아니스트로 부산에서 많은 제자들을 키워냈다. 2월 12일 그를 보내는 아쉬운 마음을 담아 제자들이 스승을 위해 이번무대를 무대를 기획했다.

나광자 교수는 내유외강의 연주자이다. 부산 피아노듀오협회 창단 멤버로, 회장으로 다양한 연주무대를 가져온 그는 일본 국제피아노 듀오협회와의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지금도 부산 피아노듀오협회와 일본 국제피아노 듀오협회와 함께 가진 연주는 잊을 수가 없다.

“한 무대에 40명의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웅장한 피아노 페스티벌은 지금 생각해도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과 갖는 이번 무대 감동도 그때 못지않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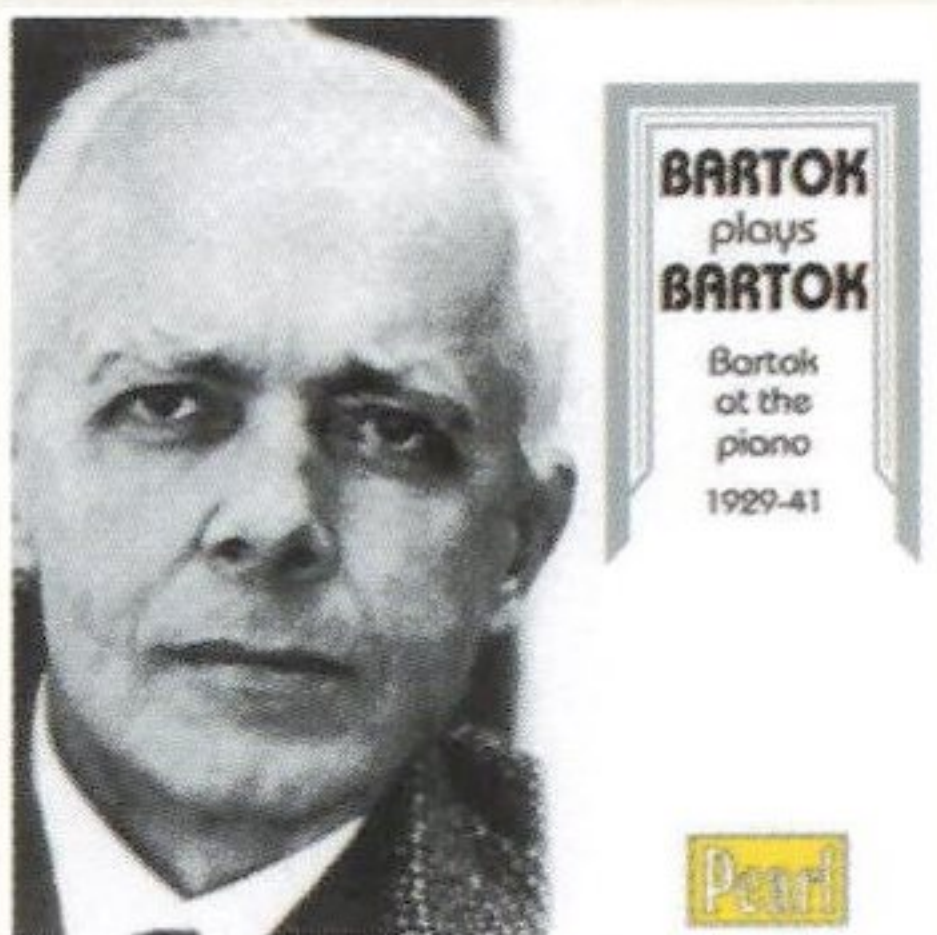
이번 퇴임연주에서는 나광자 교수와 제자 등 32명의 연주자들이 피아노 곡으로 편곡된 베토벤 교향곡 5번과 6번을 듀오로 연주한다.

정년퇴직이 또 다른 시작임을 강조하는 그는 그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 가는 아트홀에서 제자들의 연주를 기획하고 연주하며 기량이 뛰어난 제자들을 격려해나갈 계획이다.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오랫동안 피아노 교육에 열정을 바쳐온 그이지만 요즘 한 가지 바람이 생겼다. 그동안 대학에서 뛰어난 제자들을 만나왔지만 더 많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부산에 영재교육기관이 설립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게된 것. 퇴임 후 예술가로 할일이 더욱 많을 것이라는 나광자 교수의 열정이 많은 사람들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소품(小品, piece)의 세계4

곽근수 · 음악평론가,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자



바르톡 자신의 연주로 녹음된 다양한 소품 앨범 자켓 (제작사 / Pearl)

샤브리에(1841~1894)는 〈회화적 소품〉과 〈하바네라〉, 드보르작(1841~1904)은 〈슬라브 무곡집〉과 〈유머레스크〉 〈4개의 로맨틱한 소품〉, 그리그(1843~1907)는 〈서정 소곡집〉에서 노르웨이의 시정(詩情)을 농도 짙게 그렸다. 스페인 바이올린의 거장 사라사테(1844~1908)는 〈찌고이네르바이젠〉 〈하바네라 칼맨 환상곡〉등 주옥같은 소품을 썼고, 근대 프랑스 가곡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포레(1845~1924)는 13곡의 〈녹턴〉과 13곡의 〈벧노래〉 〈즉흥곡〉 〈비가(悲歌)〉를 써서 소품에서도 발군의 솜씨를 빛냈다.

20세기 전반기의 타레가(1854~1909), 모시코프스키(1854~1925), 야나첵(1854~1928), 쇼송(1855~1899), 리아도프(1855~1914), 알베니즈(1860~1909)등 은 표제악적 경향이 짙은 작품을 남겼다. 드뷔시(1862~1918)는 인상주의라는 새로운 미학을 들고 나와서 〈아라베스크〉 〈기쁨의 섬〉 〈전주곡집〉 〈작은 모음곡〉 등 신선한 매력을 발산하는 소품을 발표했다. 20세기의 기인(奇人)으로 오로지 자신의 음악어법에만 정진했던 사티(1866~1925)는 〈짐노페디〉 〈5개의 녹턴〉 〈배(梨) 모양의 3개의 곡〉 등 뛰어난 개성을 지니고 있는 작품을 발표했다. 그라나도스(1867~1916)는 〈12개의 스페인 무곡〉 피아노 음악의 귀재 스크리아빈(1872~1915)은 다수의 〈연습곡〉과 〈피아노 소품집 시곡(詩曲)〉을 발표하여 주목을 끌었다.

영국 작곡계의 자존심으로 불려진 본 윌리엄스(1872~1958)는 〈로맨스 날아오르는 종달새〉를 썼고, 러시아 근대 음악에 한없는 서정(抒情)을 심은 라흐마니노프(1873~1943)는 엄청난 분량의 피아노를 위한 소품을 남겼다. 〈전주곡〉 〈환상 소품집 악흥의 순간〉 등은 특유의 서정미를 지니고 있는 매력적인 작품이다. 무조음악(無調音樂)의 지평을 연 쇤베르크(1874~1951)는 〈피아노 소품집〉 〈피아노 모음곡〉을 썼다. 뛰어난 묘사력을 구사한 라벨(1875~1937)은 〈물의 유희〉 〈거울〉 〈쿠프랭의 무덤〉등을 발표해서 주목을 끌었고, 바이올린 소품의 명수 클라이슬러(1875~1962)는 〈사랑의 기쁨〉 〈아름다운 로즈마린〉등 단아(端雅)한 취미의 소품을 양산하였다. 파야(Falla, 1876~1946)는 서정미 넘치는 기타 소품 〈드뷔시의 무덤에 바치는 찬가〉를 써서 이색적인 탄식곡(lament)의 예를 남겼다. 헝가리의 피아노 거장 바르톡(1881~1945)은 〈헝가리 민요에 의한 즉흥곡〉 〈루마니아 민속무곡〉, 153곡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피아노 소품으로 엮어진 〈미크로코스모스〉를 썼다. 시마노프스키(1882~1937)는 〈녹턴과 타란텔라〉 〈신화〉를, 폰세(1882~1948)는 감상 어린 〈에스트렐리타〉를 썼다.

스트라빈스키(1882~1971)는 미국의 랙 타임(rag-time)을 채용한 〈피아노 랙 뮤직〉을, 브라질의 명장 빌라로보스(1887~1959)는 피아노를 위한 〈야만적인 시〉 〈연습곡집〉 〈전주곡집〉을 남겼다. 프로코피에프(1891~1953)는 〈피아노를 위한 4개의 소품〉 〈토카타〉 〈사르카슴〉 〈덧없는 환영(幻影)〉을 써서 피아노 소품에서 방대한 작품을 남겼다.

열정 넘치는 축제의 도시 부산

2007년 1월 1일 떠오르는 신년 해를 바라보며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펼쳐지는 '해맞이 축제'를 시작으로 부산은 1년동안 젊음과 열정이 넘치는 축제가 끊이지 않는다.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연극제, 부산국제어린이 영화제 등 국제적인 문화행사를 비롯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 사업 기념행사, 부산바다축제, 국제록페스티벌 등 축제의 종류도 다양하다. 2007년을 맞아 2007년 한 해 동안 펼쳐질 주요 문화축제, 국제 문화행사를 소개한다.

▶ 제7회 광안리어방축제 : 4. 6~4. 8



광안리어방축제는 아름다운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부산의 대표적인 봄 축제이다. 지역 특성을 살려 소규모로 열리던 민락활어축제, 광안리해변축제, 남천벚꽃축제를 종합하여 탄생된 축제로 2002년에는 부산시 최우수 지역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광안리어방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진두어화. '진두어화(津頭漁火)'란 배가 오가는 나루와 고기잡이를 하는 등불이나 횃불을 말한다. 특히, 올해는 3월말에 준공예정인 광안리아간경관조명사업(바다. 빛 미술관)의 준공식과 연계해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이벤트로 엮어지며 전국 최대의 회단지인 민락, 남천동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싱싱한 생선회도 맛볼 수 있다.

· 광안리아간경관 조명사업 준공식 : 2007. 4. 5

■문의 : 수영구청(610-4062)

▶ 기장 멸치축제 : 4월 중, 기장 대변항 일원

봄철 기장 대변의 특산물인 멸치를 알리기 위해 시작된 대변 멸치 축제는 전국 각지에서 미식가들이 찾아오는 이름난 축제이다. 대변항을 감싸듯 늘어서 있는 멸치전 판매좌판, 풍어제, 멸치 아지매 선발대회, 멸치 맛 자랑, 멸치 무료 시식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문의 : 기장군청(709-4081)

▶ 가덕도 송어들이 축제 : 4월 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통 어로방식을 계승하고 있는 가덕도 송어 잡이를 알리기 위해 2000년부터 펼쳐지고 있는

강서구를 대표하는 '가덕도 송어들이 축제'가 4월 가덕도 대항 선착장 일원에서 열린다. 외양포앞 어장에서 열리는 송어잡이 시연이 열리고 축제 기간중 대항 선착장-외양포-일군기지터-동두말등대-아동도-대항새바지에 이르는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유람선이 운행된다. 축제 날짜는 송어 어업조건에 맞추어 4월중에 펼쳐진다.

강서구는 송어들이 축제 외에도 대저 토마토 축제와 전어축제가 열린다.

■문의 : 강서구청(970-4066)

▶ 조선통신사 400주년 기념 행사 '파도를 넘어 새길을 열다' : 5. 4~5. 5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선린우호와 문화교류의 첨병역할을 했던 조선통신사가 처음 일본에 파견된 지 400주년을 맞아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향하는 출발지이자 귀환하는 도착지인 부산에서는 5월 4일부터 5일까지 '파도를 넘어 새 길을 열다' 라는 주제로 한일 문화교류축제가 펼쳐진다.

5월 4일 영가대 조선통신사 광장에서 열리는 뱃길 안녕을 기원하는 해신제를 비롯 2,000명 규모의 조선통신사 평화의 행렬, 조선통신사의 연회장에서 연주되었던 춤과 연회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전별연'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400주년 특별 이벤트로 5월 1일부터 6일까지 용두산공원 광장에 韓 - 스타일 체험관을 설치하고 대장금 의상체험전(사진촬영), 대장금 음식체험전, 대장금 출연자 팬사인회 등 '장금아 놀자'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 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888-6965, 816-3371, <http://www.joseontongsinsa.org>)

▶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 5. 2~5. 6 해운대 벅스코 전시장

우리 축제의 다양성과 문화적 가치성을 증명하는 축제박람회가 벅스코 전시장에서 펼쳐진다. 올해 2회를 맞는 축제박람회는 전국의 대표적인 우수축제와 해외축제 등 100개가 넘는 다양한 축제체험과 전통 민속놀이, 전통 국악, 난타 등의 공연이벤트, 축제관련 사례발표, 축제 콘텐츠 경연과 축제 콘테스트 등을 펼친다.

■문의 : 대한민국축제박람회조직위원회(702-0891)

▶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 5. 2~5. 6 해운대 벅스코 전시장

지난해 8월 첫선을 보인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이 개최 시기를 5월로 앞당겨 새로운 모습으로 펼쳐진다. 그 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마술을 일반 시민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아시아 최대의 마술 축제로 관심이 높다. 국내외 최정상 매지션들의 화려한 매직 갈라 쇼를 비롯 마술경연대회, 마술 강연, 마술의 체험공간인 '매직테 마파크'와 인기 매지션들의 팬미팅 등 미래 마술의 메카가 될 부산 시민들을 마술의 세계로 안내한다.

■문의 :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조직위원회(628-0935, <http://www.hibimf.org>)

▶ 2007 부산국제연극제 : 5. 5~5. 15 <11일간>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경성대 소극장·콘서트홀 외



： 특집 2007 부산의 축제

가을을 대표하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이어 부산의 대표적인 봄 문화 축제로 자리 잡은 부산국제연극제는 부산에서 세계적인 극단의 공연을 볼 수 있어 시민들의 인기가 높아가고 있다. 올해는 '세계명작 뒤집기'를 캐치프레이즈로 7개국 20여 작품을 초청한다. 특히 올해는 참가작의 거리 쇼케이스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관객들에게 이색 볼거리를 선사한다. 개막작으로는 극단 목화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선정되어 연극애호가들의 기대가 크다.

■문의 : 부산국제연극제 추진위원회(611-3703, <http://www.bipaf.com>)

▶ 부산국제해변무용제 : 7. 30~8. 3 광안리해수욕장 등

아름다운 부산의 바다와 춤이 어우러지는 부산국제 해변무용제가 여름 부산의 바다를 수놓는다. 올해는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등 국내외 20여개 팀이 참가한다.

■문의 : 부산국제해변무용제 추진위원회(642-0943, <http://www.bibdf.com>)

▶ 제 12회 부산바다축제 : 8. 1~8. 7 해운대 해수욕장 및 시내 주요 해수욕장

바다와 함께하는 '여름도시, 부산'을 알리는 부산의 대표적인 여름축제로, 부산의 바다를 보기 위해 부산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화려한 불꽃놀이에서부터 시민행렬, 개막행사, 현인가요제(8.4~8.5), 바다체험행사와 해변노래자랑, 해변음악회, 해양문화제, 해양스포츠 등의 부대행사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문의 :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888-3391, <http://www.seafestival.co.kr>)



▶ 부산국제록페스티벌 : 8. 3~8. 5 다대포해수욕장

여름도시 부산, 바다와 젊음 그리고 열정이 함께하는 전국 유일의 록페스티벌이 8월 부산의 여름을 뜨겁게 달군다. '록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축제 한마당인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락의 역동성과 부산의 해양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젊음의 축제로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국내외 유명 락 아티스트와의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젊음과 음악의 에너지를 마음껏 분출시킬 수 있다.

■문의 :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888-3391, <http://www.rockfestival.co.kr>)

▶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 8. 17~8. 21 해운대일원

'영화의 아이, 바다에 첨병'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해 첫선을 보인 부산국제어린이 영화제 두 번째 축제가 8월 17일 막이 오른다. 세계 유명 애니메이션을 비롯해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들이 상영된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는 올해 20개국 이상에서 100편이 넘는 작품을 초청 할 계획이다.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조직위원회는 영화제에 앞서 어린이 영화캠프, 어린이 영화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과 꾸준히 만나고 있다.

■문의 :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조직위원회(743-7652, <http://www.biki.or.kr>)

▶ 제 12회 부산국제영화제 : 10. 4~10. 12 해운대·남포동 극장가 등 주요상영관

아시아 신인감독을 발굴하고 아시아 영화를 세계에 소개하며 성장해 온 부산국제영화제는 10주년을 지나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우뚝 섰다. 올해 12회째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PIFF)는 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 5대 영화제 진입을 목표로 65개국에서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1688-3010, <http://www.piff.org>)

▶ 부산자갈치축제 : 10. 12~10. 16 자갈치시장 일원

‘여는 마당, 오이소 마당’ 등 관광객 체험 중심의 4개 마당 30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선보인다. 특히, 지난 12월 현대화로 새 단장된 자갈치시장이 관광명물로 부상함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축제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1월부터 3개월간 일반을 대상으로 자갈치 축제 행사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문의 : (사)부산자갈치문화관광 축제위원회(243-9363, <http://www.ijagalchi.co.kr>)



▶ 차이나타운 축제 : 10. 5~10. 7 초량 상해거리

차이나 타운 축제는 초량동 상해거리에서 펼쳐지는 상해거리의 중국 문화축제로 2004년 첫선을 보였다. 한국과 중국의 같으면서도 틀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사로 구성되어 볼거리가 많다.

부산 경남에서 유일한 중국문화축제로 음식체험, 의상체험, 포토존 황제가마체험, 한중 전통차체험마당 등이 열린다.

■문의 : 동구청(466-7191)

▶ 부산불꽃축제 : 10월중, 광안리해수욕장

‘2005 APEC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광안리 밤바다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환상적인 불꽃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광안리해수욕장과 광안대교 일원에서 개최된다.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꽃축제는 수준높고 예술성 있는 첨단불꽃축제로 떠오르고있다.

■문의 :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888-3391, <http://www.festival.busan.kr>)

▶ 2008 해맞이 부산축제 : 12. 31~2008. 1. 1 해운대해수욕장 등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세계도시 부산의 발전과 시민 및 관광객의 행복을 기원하는 해맞이 축제는 해상선박퍼레이드, 축하비행, 해맞이 기원공연 등 하늘, 땅, 바다의 입체적인 연출로 해양 도시의 부산만의 특색을 살린 해양관광축제로 인기가 높다.

■문의 :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888-3391, <http://www.festival.busan.kr>)

386 세대의 지혜와 열정을 담은 극단 61창단



2007년 1월 창단된 극단 61은 중년들을 위한 연극을 발표할 계획이다.

20대를 위한 작품이 넘쳐나는 연극계에 386 세대 연극인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극단 61’을 창단했다.

“가요계에서 7080 열풍이 불긴했지만 중년들을 위한 문화는 많지 않습니다. 극단 61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년층의 삶과 살아가는 이야기 등 우리들이 함께 공감하는 중년들을 위한 연극을 만들고 싶습니다.”

1월 3일 창단식을 가지고 창단공연 연습이 한창인 극단 61은 연극애호가인 최인호 씨와 부산교육대학교 심상교 교수, 부산시립극단 배우 정행심씨가 주축이 되어 창단되었다. 극

단 이름은 창립 멤버 3명이 모두 1961년 생 소띠들이라 ‘극단 61’로 정하게 되었다. 극단 대표는 최인호 씨가 맡고 심상교 교수가 대표작가, 정행심씨가 대표 객원 배우를 맡았다. 그 외 동의대학교 이철우 교수가 연출을 맡고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씨가 음악을, 발레리나 김옥련씨가 안무를 맡아 극단 61과 뜻을 같이 한다. 또, 동아대학교 손승길 교수, 부산카툰클럽 안기태 회장, 부산의료원 안본근 이사가 극단 61의 고문으로 힘이 되어 주고 있다.

극단 대표 최인호씨는 “요즘 20, 30대가 관객층을 주도 하는 요즘 연극계에 40대 관객층을 극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작품들을 기획, 연극에 빠졌던 젊은 날을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져 보고 싶다”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최인호대표의 열정이 전해져 최대표의 고교 선배인 강동완(대항웰리스병원 병원장) 씨가 자신의 병원 공간을 선뜻 연습실로 제공, 병원 7층 홀에서 창단공연 연습에 한창이다.

극단 61은 오는 2월 21일 사직동 미리내 소극장에서 창단공연 ‘백화’로 관객들과 만난다. 심상교 교수가 정행심씨를 모델로 완성한 ‘백화’는 횃집이 많은 동네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며 생활하는 불행한 여자 ‘백화’의 굴곡진 삶을 담은 작품이다. 극단 61은 창단공연 후 현재 연습을 하고 있는 대항웰리스 병원의 가족들은 물론 극단 61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연극을 통해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 KNN 신년음악회

2월 10일 토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에너지 넘치는 열정으로 객석을 감동시키는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오는 2월 10일 KNN 신년음악회를 통해 오랜만에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고신대학교 오충근 교수가 지휘하고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전지영, 미국 맨하탄과 메릴랜드의 탐위너로 주목받은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가 함께 빛어내는 이번 무대는 스트라빈스키, 프로코피에프, 생상스, 요한 스트라우스 등을 비롯하여, 신년을 노래하는 〈봄의 소리 왈츠〉 〈불새〉 〈밤의 여왕 아리아〉 등 열정의 선율을 선사한다.



오랫만에 부산 무대를 찾는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흥연택에 의해 1985년 순수 민간 오케스트라로 출범한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는 1995년 플라시도 도밍고 내한공연, 1999년 호세 카레라스 내한공연, 2001년 세계적인 테너 3인의 내한 공연 등 세계 저명 연주자들의 음악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2001년 창단 16주년을 맞아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편성, 예술의 전당 상주 오케스트라로 새 출발을 한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는 현재 김민 음악감독 체제 아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지휘자 오충근은 1982년 서울대학교 기악과 졸업과 동시에 KBS교향악단 제1바이올린 주자로 입단하여 본격적인 전문연주자로 활동하던 중 1985년 국내 최연소 악장의 기록을 세우며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악장이 되었다. 1990년 고신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이후 본격적으로 지휘 공부를 시작한 오충근은 미국 보스턴 콘서바토리를 졸업하고 2000년부터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로 본격적인 전문지휘자로 활동을 시작했다. 오충근은 2006년 제9회 KNN 문화대상(문화예술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난이도가 높은 고음역의 소리를 매혹적인 음색으로 소화해내는 소프라노 전지영은 연세대학교 성악과와 뮌헨 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Meister Diplom)을 졸업하고, 1999년 독일 하노버 국립극장에서 오페라 〈마술 피리〉의 ‘밤의 여왕’ 역으로 데뷔한 이래 최근까지 350회 이상 독일 각 국립극장에서 〈마술 피리〉에 출연하였다.

NIMF국제콩쿠르에 2위 입상, 맨하탄 음악대학 실내악 콩쿠르 입상 등을 통하여 재능을 보여준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는 미국에서 음악성을 인정받으며, 뉴저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악장, 메릴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맨하탄 음대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수석 등 오케스트라의 단원과 솔리스트의 면모를 갖추면서 주목받는 연주자로 성장하였다.

‘2007년 돼지의 해’ 展

3월 4일(일)까지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로비



2007년 ‘돼지의 해’ 정해년을 맞아 재물과 행운 그리고 풍요의 상징인 돼지와 관련된 이색전시가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앞 로비에서 펼쳐지고 있다.

2007년 ‘돼지의 해’ 정해년을 맞아 재물과 행운, 그리고 풍요의 상징인 돼지와 관련된 이색전시가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앞 로비에서 펼쳐지고 있다.

12간지 마지막 순서 해(亥)에 해당되는 돼지는 신통력을 지닌 동물로 재산이나 복의 근원, 재물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오래전부터 하늘에 제사지내기 위한 신성한 제물로 많이 쓰여졌다. 선사시대 유적에서 나오는 멧돼지 화석이나 조개무지에서 출토된 토우 등을 통해서도 돼지가 아주 오랜 옛날부터 한반도와 일본, 중



중국 후한시대(AD25~220) 돼지우리 도기

국 등지에서 자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측간(화장실)아래 돼지를 키우던 풍습을 확인할 수 있는 중국 후한시대(AD 25~220) 돼지우리 도기를 비롯 무계를 짤 때 쓰는 추 표면에 돼지를 포함한 십이지신상을 돌을새김한 통일신라시대의 청동십이지추 등 돼지의 모습이 담긴 유물에서 부터 최근의 돼지저금통까지 인간과 함께한 돼지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30여점의 전시물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전시장에는 돼지와 관련된 설화와 민담, 역사 속에 나타난 돼지 이야기 등 재미난 이야기를 실은 리플렛과 브로셔 등이 함께 비치되어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3월 4일까지 계속된다.

■ 문의 : 부산박물관(624-6341~4)

부산근대역사관 특별교류전

독일인 헤르만 산더의 여행-1906~1907 한국·만주·사할린

2월 25일(일)까지 부산근대역사관

100여년 전 한 독일인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의 생생한 모습이 담긴 특별한 전시가 부산근대역사관에서 펼쳐지고 있다.

오는 2월 25일까지 열리는 특별교류전 '독일인 헤르만 산더의 여행 -1906~1907 한국·만주·사할린'은 1906년 주일본 독일대사관 무관으로 근무했던 독일인 헤르만 구스타프 테오도르 산더가 1906년부터 1907년까지 우리나라와 만주, 사할린 등을 여행하면서 남긴 사진과 엽서, 보고서, 갓, 낚그릇, 부채, 화첩 등 한국에서 수입한 92종의 수집유물 등 30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1906년 8월 사할린 여행을 시작으로, 9월에는 한국, 11월에는 중국 여순, 대련, 목단 등을 방문했던 헤르만 산더는 이 여행을 통해 한국문화에 애정을 가지게 되면서 1907년 다시 한국을 방문, 서울지역과 북한산성, 수원, 원산, 성진, 길주 등을 여행하며 많은 자료를 남겼다. 특히 함께 여행했던 일본 사진작가 나카노가 촬영한 사진과 현지에서 수집한 사진 등 335장의 사진이 여행일정순으로 정리된 사진첩은 촬영당시 시간과 장소, 설명까지 담고 있어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우리문화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전시된 자료들은 현재 독일 쾰닉스슈타인에 살고 있는 헤르만 산더의 손자인 슈테판 산더가 2004년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한 것으로, 지난해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에 이어 부산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당시 헤르만 산더가 보았던 한국문화를 1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 현재의 우리 관점에서 우리 문화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문의 : 부산근대역사관(253-3845~6)



부산항



안양역에 선 내가 타고 있는 기차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 콘서트'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

2월 8일 목요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금난새

2007년을 맞아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일보사가 의욕적으로 기획한 웰빙 콘서트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 첫 번째 무대가 오는 2월 8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웰빙 콘서트'는 평소 저녁시간대에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여성과 주부들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오전 11시에 여유롭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획프로그램으로 클래식음악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주부들의 관심이 많다. 2007년 한 해 동안 부산시립교향악단과 국악관현악단은 총 8회의 웰빙 콘서트를 펼친다.



김영희

첫 무대를 여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무대 위의 행복을 선사하는 지휘자 금난새의 지휘, 해설로 부산 시민들에게 유쾌한 무대를 선사한다. 지휘자 금난새는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와 재치 있는 언변으로 클래식 음악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늘 청중과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부산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클래식은 내친구'는 1994~1999년까지 전회, 전석 매진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금난새는 1998년부터는 벤처 오케스트라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협연자로 나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영희는 부산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이화여대자대학교와 비인 국립음대, 뮌헨 국립음대 대학원에서 음악수업을 했다. 그동안 KBS교향악단(전 국립교향악단) 단원, 레겐스브르그 '뚝 슈파첸' 종교음악대학 강사, 레겐스브르그 Solisten Ensemble 실내악 단원, 서울 여성스트링오케스트라 악장 등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음악활동을 펼친 김영희는 현재 부산 시포니에타 음악감독 및 리더, 부산대학교 교수로 후진양성에 열심이다.

이번 무대에서 김영희 교수는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작품 8 중 '봄'을 들려준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 가장 유명한 제 1곡 '봄'은 바이올린 트릴 기법을 활용하여 작은 새들의 지저귀음과 바람에 가늘게 흔들리는 나뭇잎, 맑게 솟아오르는 샘물 등 봄의 장면이 묘사된다. 독주 바이올린은 봄꽃이 만발한 목장에서 들려오는 목동의 한가롭고 평화로운 노래를 연주한다.

■ 입장료 : 균일 1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인 4매 3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한국 합창음악

2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립합창단이 오는 2월 13일 부산지역 작곡가들의 창작 합창음악을 중심으로 2007년 첫 무대를 연다.

그동안 부산시립합창단은 서양음악의 종교 음악에서 출발한 합창을 우리 작곡가들이 작곡한 우리 정서에 맞는 새로운 창작곡들을 들려주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무대는 조영운, 최삼화, 정승원, 백승태, 권오철, 최석태, 윤지영, 백현주 등 8명의 부산 작곡자들이 혼성합창, 성가합창, 남성합창, 여성합창 등 다양한 형태의 합창음악을 발표한다.

혼성합창으로 여는 1부 첫 무대는 홍일중의 시에 이안삼이 곡을 붙인 '이어도 산아', 최종섭의 시에 백성태가 곡을 붙인 '겨울 나그네', 조성래 시에 권오철이 곡을 붙인 '그대 떠나고'가 발표된다. 작곡가 백승태와 권오철은 세남자의 합창이야기를 통해 꾸준히 창작합창곡을 발표해온 작곡가이다.

두 번째 무대에서는 윤지영과 백현주, 최석태의 성가합창곡을 발표한다. 작곡가 윤지영은 부산남성솔리스트앙상블 작, 편곡자로, 작곡가 최석태는 부산시립합창단 작, 편곡 담당자로 활동하고 있다. 백현주는 MBC 창작동요제 대상을 수상하고 동요작곡가로 현재 브니엘예중고에 재직하고 있다.

2부 무대는 남성합창과 여성합창, 혼성합창으로 이어진다. 남성합창은 고려속요 가시리에 단국대학교 박정선 교수가 곡을 붙인 '가시리', 신경림 시에 이동훈이 곡을 붙인 '고향길', 여성합창은 김상훈 시에 정승원이 곡을 붙인 '삼답령 사연', 張谷橋 시에 작곡가 이영조가 곡을 붙인 '소요유(逍遙遊)'를 발표한다.

작곡가 정승원은 독일 카셀 및 데트몰드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신라대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마지막 무대인 혼성합창무대는 박두진 시에 작곡가 조영운이 곡을 붙인 '청산도', 송인필 시에 작곡가 최삼화가 곡을 붙인 '장다리꽃'을 들려준다. 조영운은 신라대학교 교수, 최삼화는 동의대학교 교수로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쳐왔다.

부산시립합창단은 이번 연주회 외에 11월에 '한국 창작합창음악의 밤'을 기획, 부산 경남 지역 작곡가들의 창작합창음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강규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의 작은 거인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초청연주회

3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가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자로 오는 3월 2일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지휘하고 바이올리니스트 권현주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로시니 '빌헬름 텔' 서곡,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제 1번 라장조 작품 6' 엘가 '수수께끼 변주곡 작품 36'으로 3월 새봄의 시작과 함께 어울리는 화려한 음의 향연을 선사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 권혁주는 어릴 때부터 뛰어난 기량과 성숙한 음악성을 겸비하여 세계 무대에서 주목 받은 자랑스러운 연주자이다.

3세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한 권혁주는 6세 때 음악저널 콩쿠르 1위를 차지하면서 두각을 나타냈고 7세 때 김남운 사사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예비학교에 입학하면서 바이올리니스트로 성장하였다. 1995년 9살의 나이에 러시아로 건너간 권혁주는 11세에 차이코프스키 청소년 국제 콩쿠르 최

연소 2위, 16세에 독일의 클로서트-웬탈 콩쿠르 우승, 17세에는 러시아 암폴스키 콩쿠르 그랑프리 및 멘델스존-암폴스키 론도 카프리치오소 최고 연주자상을 차지하는 등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또한 2004년에는 러시아 파가니니 콩쿠르와 칼닐센콩쿠르에서 연거푸 우승을 거머쥐었으며, 대한음악협회에서 주관하는 신인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칼닐센콩쿠르 우승은 19세의 나이로 한국인 최초 우승이라는 기록과 함께 함께 덴마크 작곡가 작품 특별상, 젊은이 인기상을 두루 석권하여 화제를 모았다. 2005년에는 5월에는 벨기에에서 열린 퀴엘리 자베스 콩쿠르에 파이널라운드까지 진출하였고 2006년 그의 스승인 김남윤과 에두아라드 그라치 교수와 함께 '금호음악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에서 에두아라드 그라치를 사사하고 있는 권혁주는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스페인, 이스라엘, 미국 등 다수의 초청 무대에서 끊임 없는 연주를 하고 있다. 권혁주는 금호문화재단에서 제공하는 J.B. Guadagnini(1774)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권혁주는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제 1번 라장조 작품 6'을 들려준다. 파가니니는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그 대가로 악마의 기교를 얻었다는 소문이 있었을 만큼 초인적인 기교를 지니고 있었다. 파가니니의 협주곡은 비루투오조적 기교를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려하고 매혹적인 선율과 인상적인 미학, 낭만성 면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1815년에서 1816년 사이에 작곡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은 파가니니 자신이 가장 즐겨 연주한 곡 중 하나로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바이올린 특유의 화려하고 빛나는 음색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원래는 E♭ 장조로 작곡되었다. 파가니니 당대에는 '연주 불능'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받았을 만큼 어려운 기교를 요하는 곡이지만, 현대의 거장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즐겨 연주하는 레퍼토리가 되어 음악성을 소화해내고 있다. 오케스트라의 사용과 전개는 비교적 단순한 편이며, 독주 바이올린의 매력이 빼어난 곡이다.

2부 무대를 장식하는 엘가 '수수께끼 변주곡 작품 36'는 엘가에게 있어 공전의 대성공을 거두게 한 대곡이다. 1899년에 완성되었으며 테마와 14곡의 독립된 변주로 구성되어 있다. 엘가 자신은 각 변주곡이 누구를 스케치한 것인지 수수께끼에 붙였지만, 구체적인 이니셜을 밝히고 있는 데다 그들의 웃음소리나 억양, 버릇이나 습관 등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추상적으로 암시하기도 함으로써 누구에 관한 곡인지 거의 밝혀져 있다.

엘가는 이 곡 속에 또 하나의 수수께끼를 숨겨 두었다. 직접적으로 연주되진 않지만 또 하나의 주제를 숨겨놓은 것인데, 엘가는 매우 유명한 곡이라고 언급했으나 이 숨겨진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수수께끼는 아직 만족스럽게 풀리지 않았다. 이 숨겨진 수수께끼의 선율이 다른 선율의 대위 선율이라는 설도 있고, 초연 당시 함께 연주되었던 모차르트의 '프라하 교향곡'이라는 설도 있는데, 영국의 국가 'Rule Britannia'의 주요 선율이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려 있다. 전체적으로 엘가의 매혹적이고 깊이 있는 음악성이 잘 드러나 있는 곡이다.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대극장

2007 부산국제음악제
피날레콘서트

1일 월요일 오후 7:30



정명화

올리비에 가르동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실내악의 향연인 부산국제음악제 피날레콘서트.

제네바콩쿠르 우승자로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정명화를 비롯 롱티보 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올리비에 가르동, 인디애나 폴리스콩쿠르에 1위인 바이올리니스트 쿄코 다께자와, 칼프레쉬콩쿠르에 우승한 비올리스트 헤이치로 오야마 등이 화려한 앙상블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3중주 <유령> 작품 70-1(피아노/백혜선, 바이올린/쿄코 다께자와, 첼로/정명화)

포레/피아노 4중주 다장조 작품 15(피아노/올리비에 가르동, 바이올린/백주영, 비올라/헤이치로 오야마, 첼로/폴 말레인)

차이코프스키/현악 6중주를 위한 <플로렌스의 추억>(바이올린/루시 스톨츠만, 쿄코다께자와, 비올라/최은식, 헤이치로 오야마, 첼로/정명화, 폴 말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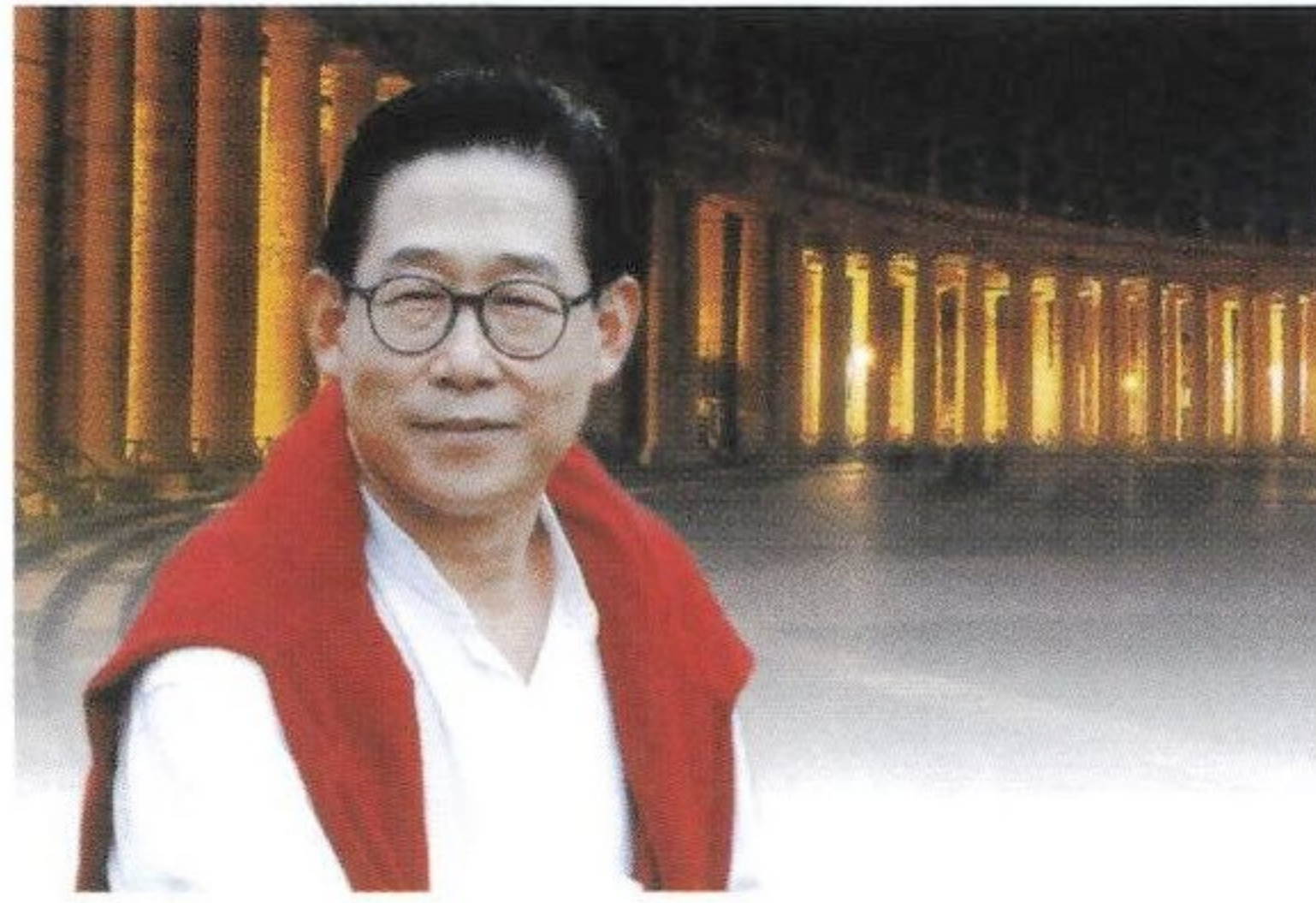
입장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테너 김진수와 함께 떠나는 세계 음악여행

3일 토요일 오후 6:00

국제 오페라단장으로 있는 테너 김진수와 부산의 성악가들이 함께 펼치는 세계 음악여행.



테너 김진수는 부산에서 부산문화방송 FM 프로듀스 겸 고전음악 해설자, 부산오페라단 단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프로그램

헨델/올게 하소서

베르디/오페라 '운명의 힘' 중 '평화를 주소서', 오페라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 오페라 '돈 카를로' 중 '나는 죽네... 그러나 기꺼이'

들리브/까딕스의 여인들

이현철/산유화

장일남/비목

백경환/거문도 뱃노래 등 수곡

· 출연/전이순, 차성실, 김유섬, 권지혜(이상 소프라노), 전연숙(매조 소프라노), 곽성섭(테너), 조현수(바리톤), 박기범(베이스), 김진수(테너)

· 피아노/이현주

입장료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국제오페라단
(627-0839, 011-212-1777)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

8일 목요일 오전 11:00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주부, 청소년들을 위해 부산문화회관에서 2007년 의

욕적으로 시작하는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웰빙콘서트'.

무대 위에서 행복을 전하는 클래식 음악계의 스타 금난새의 지휘, 해설로 오전 시간 여유로운 클래식 음악의 향연을 펼친다.

웰빙 콘서트 첫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나는 김영희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비인국립음대, 원현 국립음대 대학원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KBS교향악단(전 국립교향악단) 단원, 레겐스브르그 '돔 슈파첸' 종교음악대학 강사, 레겐스브르그 Solisten Ensemble 실내악 단원, 서울 여성스트링오케스트라 악장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 신포니에타 음악감독 및 리더, 부산대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모음곡 작품20a 중
비발디/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작품8 중 '봄'
차이코프스키/ '1812년' 서곡 내림마장조 작품 49

입장료 균일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코리아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
KNN신년음악회

10일 토요일 오후 7:30



오충근

전지영

양경아

대한민국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꼽히고 있는 코리아심포니와 마에스트로 오충근, 독일 오페라좌에서 350회 이상 '밤의 여왕' 아리아로 한국인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 프리마돈나 전지영, 그리고 미국 맨하탄과 메릴랜드의 탐위너로 한국을 빛낼 신예음악가로 주목 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가 함께 빛어내는 KNN 신년음악회.

부산 출신 음악가로 세계 정상 반열의 무대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음악인들의 신선한 감흥을 직접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이탈리아 기상곡
프로코피에프/‘로미오와 줄리엣’ 중 ‘타이볼트의 죽음’

번스타인/‘캔디드’ 서곡

스트라빈스키/불새 등 수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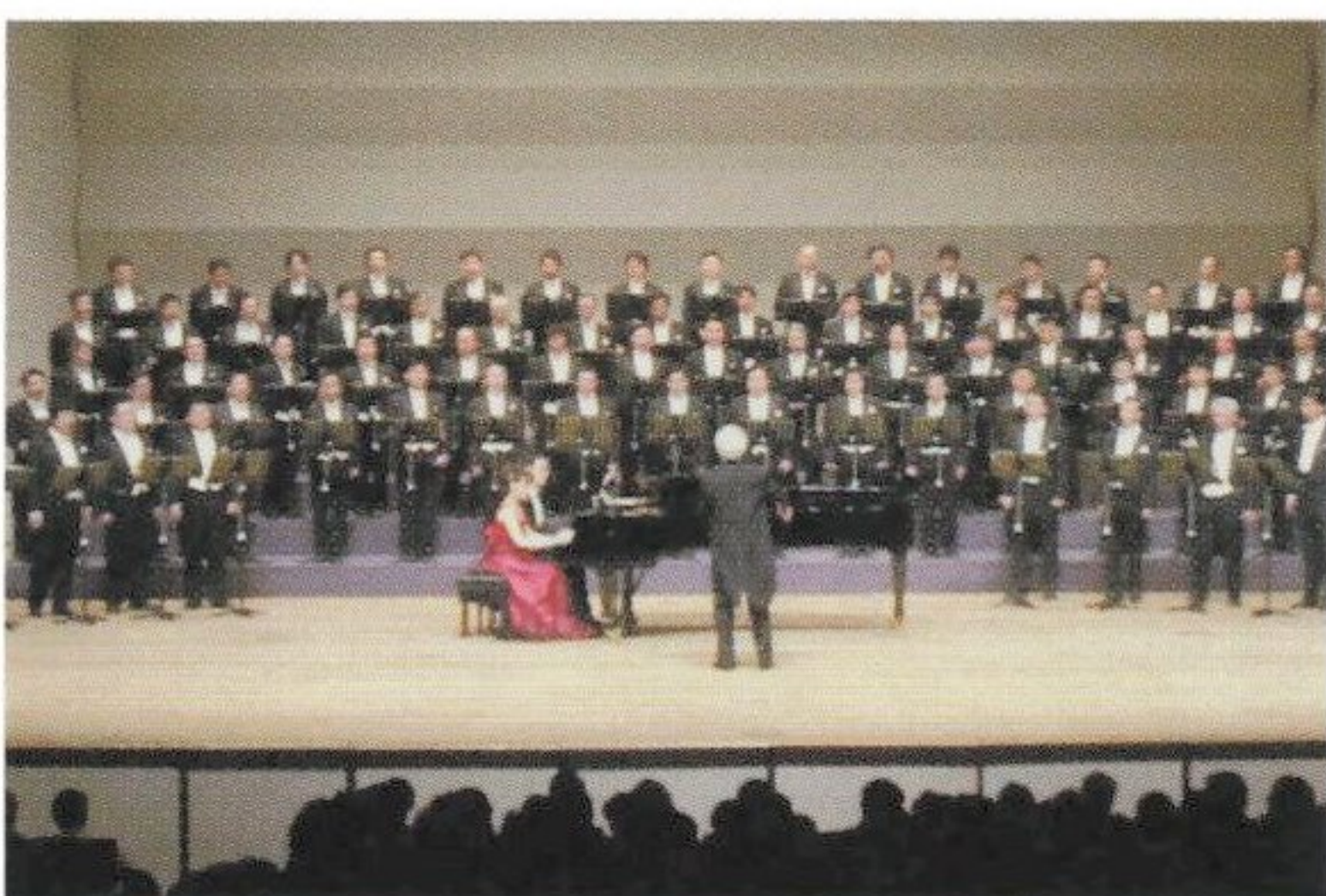
- 지휘/오충근
- 연주/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
- 협연/소프라노 전지영(독일 오페라좌 주역 가수),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미국 맨하탄, 매릴랜드의 탑위너)

입장료 VIP석 90,000원 · R석 7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KNN방송(1577-7600)

2007 남성성악가양상블

27일 화요일 오후 7:30



성악대중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부산지역 정상급 남성 솔리스트들이 한자리에서 들려주는 남성성악가 양상블 2007년 무대.
동아대학교 김명규 교수의 지휘로 외국가

곡, 오페라 합창곡, 세계민요, 창작가곡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곡, 중후한 남성양상블의 매력을 전해준다.

프로그램

코자크민요/젊은이들의 노래

김기영/참좋은신 주님

차이코프스키/오페라 ‘스페이드의 여왕’ 중 ‘모두 잔을 채우리’

김상훈/자갈치 찬가 등 수곡

출연

배승택, 이은민, 이홍득, 윤정윤, 이철성, 김지호(이상 테너), 김길수, 안상철, 박대용, 박기범, 이민환, 안지환(이상 바리톤), 박기범, 김홍진, 김성국, 김성규, 권영준, 김경학(이상 베이스) 외

· 지휘/김명규(동아대학교 교수)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문의 부산일보사(461-4434)
김길수(016-9294-7268)

LOVE 콘서트 with 서경희

3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대학교 서경희 교수의 환갑을 기념,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자들이 마련하는 사랑의 음악회.

· 출연/정태미, 김유섬, 황혜숙, 김미정, 한송이(이상 소프라노), 이철성, 강무림(테너), 구제범(바리톤) 외

문의 프리모아트매니지먼트(622-5529)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의 작은거인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초청연주회

3월 2일 토요일 오후 7:30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권혁주

3월 새봄을 맞아 마련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으로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가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권혁주는 11세에 차이코프스키 청소년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 2위를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16세에는 독일의 클로서트-셴탈 콩쿠르 우승, 17세에는 러시아 암폴스키 콩쿠르 그랑프리 및 멘델스존-암폴스키 론도 카프리지오소 최고 연주자상 수상, 19세에는 칼닐센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우승, 10세에 쾨엘리자베스 바이올린 콩쿠르에 입상하는 등 뛰어난 기량과 성숙한 음악성을 겸비하여 주목받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이다.

프로그램

로시니/‘빌헬름 텔’ 서곡

파가니니/바이올린 협주곡 제 1번 라장조 작품 6

엘가/수수께끼 변주곡 작품36

· 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



통합 마케팅 시대의 뉴 브레인! 포애드

광고기획, TV/RADIO 광고제작 및 대행, 신문/전단/카드록 인쇄광고 제작, 기업CIP/BIP,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광고 마케팅 기획

[주]포애드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2층
TEL: 051) 627-2563(대) FAX: 051) 627-2560

· 협연/권혁주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제20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드보르작의 음악세계
3월 3일 토요일 오후 7:30



박성완 김우진

부산최대의 민간교향악단인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2007년 첫 무대.

부산대학교 박성완교수의 지휘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음악애호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드보르작의 음악으로 화려한 무대를 열어준다.

협연자 첼리스트 김우진은 예원학교, 서울 예고, 서울음대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로 유학,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등을 최우수 졸업하고 귀국, 현재 KBS 교향악단 첼로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 드보르작/첼로 협주곡 나단조 작품 104
 - 드보르작/교향곡 제8번 사장조 작품 88
 - 지휘/박성완(부산대학교 교수, 포항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 협연/첼로 김우진(KBS교향악단 수석단원)
-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청소년 5,000원
BSO(620-4917, 4918)

중 크 장

**동그라미 그리기 세계명작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2일 금요일 오전 10:20, 11:40
3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4일 일요일 오후 1:00, 3:00



어린이들에게 널리 알려진 세계 명작 '아기돼지 삼형제'를 캐릭터 뮤지컬로 제작,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 극본, 연출/오계영
- 출연/오계영, 김혜원, 이선화, 송판수

입장료 균일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매표소에서
카드제시 3,000원 할인)

문의 동그라미그리기(818-1772~3)

제18회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귀향연주회

8일 목요일 오후 7:30



주혜림 김해리 이소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있는 부산출신의 음악도들이 마련하는 귀향연주회.

프로그램

- 프로코피에프/소나타 제 3번
- 슈베르트/바위 위의 목동
- 리스트/메피스토 왈츠
- 임금수/강 건너 봄이 오듯 등 수곡
- 연주/주혜림(소프라노 · 4년), 김해리(피아노 · 1년), 이소라(피아노 · 2년)

입장료 초대
문의 고희란(011-9503-4498)

**극단 파란 뮤지컬
미녀와 야수**

9일-10일 금-토요일
오후 2:00, 4:00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벨과 마법에 걸린 야수, 힘세고 거만한 청년 개스통 등 다양한 출연진들과의 만남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위대한 사랑의 힘을 느끼게 줄 어린이 뮤지컬 '미녀와 야수'.

- 연출/김영주
- 출연/최미현, 전금선, 조성미, 유진선, 배기범, 배철민, 신동선, 차지은, 임현균, 유환웅

입장료 일반 15,000원 · 예매 12,000원
단체 8,000원(30명 이상)

문의 극단 파란(02-922-7292)

**나광자교수 정년 퇴직
기념음악회**

12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대학교에서 20여 년간 재직해 온 피아노 교육계의 원로인 나광자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음악회.

제자들로 구성된 가은예술회 회원

32인의 연주자가 베토벤의 교향곡 5번과 6번을 피아노양상블로 편곡된 곡을 오케스트라가 아닌 피아노의 양상블로 새롭게 들려준다.

나광자교수는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학장, 부산 피아노듀오협회 회장, 한국피아노협회 부산, 경남 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프로그램

- 베토벤/교향곡 제5번 다장조 작품 67 '운명'
- 베토벤/교향곡 제6번 바장조 작품 68 '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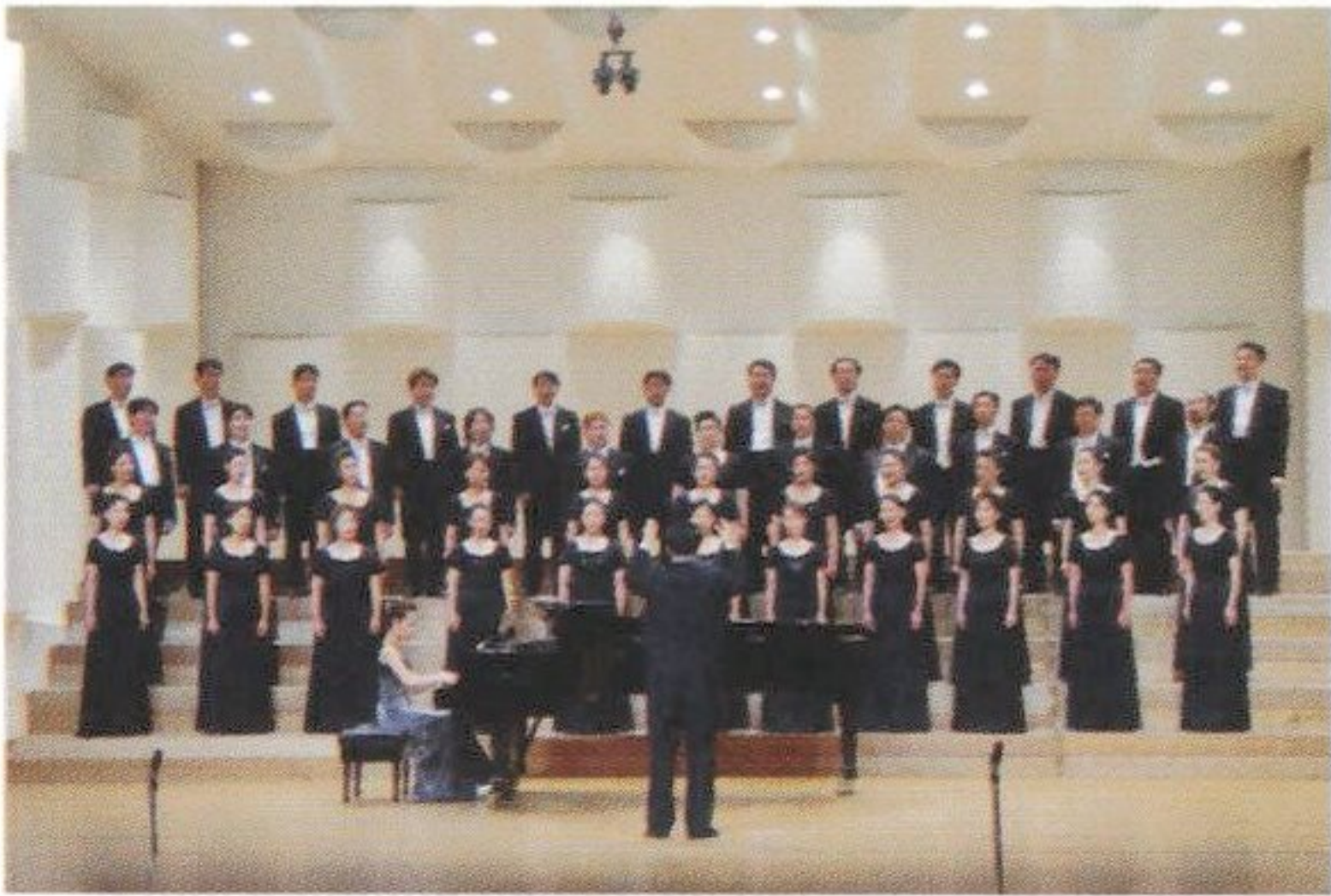
입장료 초대
문의 가은예술회(010-6772-6404)

부산시립합창단 신춘 특별연주회

한국합창음악

- 부산 작곡가를 중심으로 -

13일 화요일 오후 7:30



2007년 신년을 맞아 부산시립합창단에서 처음으로 마련하는 신춘 특별연주회.

한국창작음악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들의 창작 합창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이안삼/이어도 산아

백승태/겨울나그네

권오철/그대 떠나고

윤지영/시편 23편

백현주/시편 46편

최석태/볼찌어다(요한계시록 3장 20절)

박정선/남성합창 가시리

정승원/여성합창 삼담령 사연

조영윤/청산도

최삼화/장다리꽃 등 수곡

· 지휘/김강규

· 반주/이승윤, 이경미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신춘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14일 수요일 오후 7:30

봄을 맞아 김해시립합창단원, 양산시립합창단원, 부일 외국어고등학교 교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성악도 소프라노 정현희, 송미영, 한수경, 권유진, 정수임이 아름다운 가곡과 아리아의 향연을 펼친다.

프로그램

그리그/이히 리베 디히

롯시니/피렌체의 꽃 파는 아가씨

한국가곡/수선화, 동심초

토마/미농 '폴로네이즈'

베르디/일트로바토레 아리아 등 수곡

· 반주/이현주

입장료 초대

문의 명성커뮤니케이션(010-750-6564)

장애우돕기 아름다운 자선음악회

뮤직포럼교육연구회 창립연주회 꿈을 그리는 음악 이야기

24일 토요일 오후 5:00



음악문화를 사랑하는 교사 및 원장, 일반인들로 구성된 순수한 음악교육 연구단체 뮤직포럼교육연구회가 전국유아동교육협회 산하 뮤직포럼교육연구회를 발족,

소년소녀합창단, 오카리나 앙상블단, 뮤직포럼오케스트라, FAMI중창단을 창단하여 마련하는 창립 기념 음악회.

'21세기 음악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합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의욕적으로 출발한 뮤직포럼교육연구회는 부산지역의 새로운 음악문화발전과 회원구성의 위상을 높이고 장애우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성과 사랑의 나눔 한마당을 가진다.

프로그램

동요/아기 다람쥐 토미, 이슬

가곡/목련화, 박연폭포, 그리운 금강산

스트라우스/천둥과 번개

김동조/한국 환상곡 '농촌의 아침' 등 수곡

· 음악감독/엄정행(경희대학교 교수)

· 특별출연/김혜정(팝페라 초대가수), 부산맹학교 음악과 학생

· 오케스트라/뮤직포럼 오케스트라, 부산 아카데미오케스트라(지휘/박종휘)

· 합창/부산아버지합창단, 기장군 소년소녀합창단

· 사물놀이/FAMI Junior 사물놀이단

· 오카리나/FAMI Junior 오카리나 앙상블

입장료 균일 3,000원

문의 뮤직포럼교육연구회(634-6121, 011-9308-9500)

심정운, 이상준 2인 음악회

25일 일요일 오후 7:30



국제수준의 어쿠스틱음향 연주, 녹음홀

가수비가 녹음하였던 전문 녹음홀

글로빌아트홀

연주자에게 즐거움을 주고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국내 최고음향의 연주홀
독창회 독주회 실내악 국악연주회 마스터클래스 제자발표회에 가장 적합한 연주홀

이곳에서 연주했던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은 연주해본 홀 중에 가장 행복했던 홀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은 너도나도 유럽의 어느 좋은 홀에서 연주하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세계무대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아름답고 음향이 최고인 연주홀에서 당신의 격조높은 연주회를 실현해 보세요.



GloVil 문화예술원
Cultural and art center
글로빌 아트홀 · 글로빌 콘서트홀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1243-21 (지하철3호선 미남역1번출구에서 5분거리)
TEL. (051)505-5995 FAX. (051)505-5935 http://www.glovil.org
공연장대관 / 녹음홀대관 / 음반제작

부산대학교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있는 심정운(1년, 피아노 전공), 이상준(4년, 테너)이 마련하는 2인 음악회.

프로그램

프랑크/생명의 양식

말로테/주기도문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 18번 내림 마장조

작품 31 제 3번

라벨/라발스 등 수곡

· 우정출연/이혜진(부산대학교 대학원 1년)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이상준(010-6801-9733)

풍류송아 두 번째 나들이

28일 수요일 오후 7:30



2005년 '담백한 느낌의 미학을 회복하자'는 기치를 내걸고 창단된 정악연주단체 '풍류 송(頌)·아(雅)' 두 번째 무대.

풍류송아의 두 번째 나들이 첫 번째곡은 부산에서 접하기 어려운 가곡으로 남창 초수대엽, 여창 이수대엽, 남창 언락, 여창 편수대엽, 마지막으로 남녀창으로 태평가로 장식하고 두번째는 자진환입(경풍년) 전 바탕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가곡-초수대엽, 이수대엽, 언락, 편수대엽,

태평가

합주(삼현육각)-자진환입

출연

풍류송아 식구들 유경조, 성기만, 이장우, 송영남, 정미자, 박용란

· 특별출연/조순자(중요무형문화재제 30호 예능보유자), 이종록(중요무형 문화재 제 41호 가사 이수자)

· 객원연주/김용우, 강영현, 김경수, 송강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입장료 초대

문의 유경조(017-557-6184)

부산멜로스 오케스트라 제 4회 정기연주회

3월 3일 토요일 오후 6:00



2002년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창단된 부산멜로스오케스트라의 제 4회 정기연주회.

부산멜로스 오케스트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 울산 음악협회 초청연주회, 좋은 강안병원 초청연주회 등을 통해 음악사랑을 실천해 왔다.

프로그램

베토벤/에그몬트 서곡

부루흐/콜리드라이

스트라우스/라데츠키행진곡 등 수곡

· 지휘/정홍기

· 첼로/박현영 · 테너/김주곤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멜로스오케스트라(611-785, 010-5077-0097)

인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29회 정기연주회

3월 4일 일요일 오후 7:30

부산의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인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2007년 첫 연주회.

프로그램

비탈리/샤콘느

랄로/첼로협주곡 등 수곡

· 지휘/김용문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인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011-565-8088)

소극장

김희정 무용단 제2회 발표회

4일 일요일 오후 4:00

동아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발레 대중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김희정 무용단이 선보이는 무대.

프로그램

꽃의 왈츠(이소현 외 9명)

숲의 요정(지수현 외 13명)

입장료 무료

문의 김희정(019-474-8247)

since 1955



MUN WOO DANG BOOK STORE
www.mwdangbook.com

문우당서점

Tel: 245-3843(대표)
245-2714(공연문의)

자갈치시장정문 아치탑앞
(미니몰 건너편)

각종 공연에 매처

통도원타지아, 경주월드, 광안리마일드 연중계속 예매

52년의 양심경영 앞으로도 이어가겠습니다!!

대형종합서점(지하 1~5층) 최대의 종합지도센터

지금부터 ~ 3월까지
그 이후로는 「세계지도」 기타, 선물

'2007' 세계지도캘린더 증정

❖ 문우당서점회원카드로 문우당서점과 CGV
영화관까지 공용적립(회원카드 무료발급)

❖ 가마골소극장 특정요일할인(50~20%)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

충별 : 만남과 휴식공간
(커피 · 코코아 각 100원)

- 음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콘서트
- 행사
- 전시

● 주요문화공간

- 가람아트홀(626-6664)
- 가마골소극장(245-0042)
- 가톨릭센터(462-1870)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620-4561)
- 국도아트홀(247-4242)
- 금정문화회관(519-5651)
- 글로벌아트홀(505-5995)
- 놀이아트홀(631-0660)
- 너른소극장(622-3572)
- 동래문화회관(550-4481)
- 동보서적 문화홀(803-8000)
- 동서대학교 소향아트홀(320-1209)
- 동아대학교 석당홀(240-2651)
- 동의대학교 석당아트홀(890-1081)
- 미리내소극장(504-2044)
- 민족굿터 신명천지(515-7314)
- 부산민주공원(462-1016)
- 부산사회체육센터(744-1181)
- 부산시민회관(630-5200)
- 부산전시컨벤션센터(740-7300)
- 실천무대 소극장(245-5919)
- 엑터스소극장(611-6616)
- 열린소극장(555-5025)
- 을숙도문화회관(220-5321~4)
- 추리문학관(743-0480)
- 프랑스문화원(465-0306)
- 40계단문화관(600-4041)
- KBS 부산홀(620-7100)
- MBC아트홀(760-1000)
- SH공간소극장(621-8518)

(※ 가나다순)

음 악

새우리음악회 5주년 기념콘서트

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002년 1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새우리 신경외과에서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들을 위해 마련해온 새우리음악회 5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특집 콘서트.

클래식과 재즈, 락,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입장료 무료

문의 새우리신경외과(513-9999)

콰르텟 퀸즈 연주회

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대학교 음악과 1학년 탁서연(바이올린), 정아람(바이올린), 마유미(비올라), 김기량(첼로)으로 결성된 콰르텟 퀸즈의 첫 번째 연주회.

프로그램

스메타나/나의 생애에서
보르딘/스트링 콰르텟 제 2번
드보르작/아메리칸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정아람(011-9315-5198)

**글로벌아트홀 한낮의 음악회
여성들을 위한 건강한 음악회**

매주 금요일 오전 11:00 글로벌아트홀

매주 금요일 오전 주부와 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글로벌아트홀에서 마련한 주제가 있는 여성을 위한 음악회.

글로벌콘서트바토리 교수들이 출연, 각 주제



에 맞는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 2일 주부를 위한 해설이 있는 클래식음악
- 9일 임산부를 위한 태교음악회
- 16일 주부를 위한 해설이 있는 우리음악
- 23일 엄마랑 아가랑 함께하는 음악회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2007 부산국제음악제

후원자를 위한 디너콘서트

3일 오후 6:30 해운대 그랜드호텔



세계적인 연주자를 가까이서 보는 즐거움 속에 기품있는 식탁으로 마련되는 후원자를 위한 디너콘서트.

프로그램

헨델/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듀오
베토벤/피아노 3중주 '유령' 작품 70-1 등
· 출연/백혜선, 올리비에 가르동, 안소영, 주희성(이상 피아노), 백주영, 교코 다케자와(바이올린), 정명화(첼로), 최은식(비올라), 김영률(호른), 찰스 나이드히(클라리넷)

입장료 균일 150,000원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PBC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 6일 2007 신인음악회-부산대학교

부산, 김해지역 음악학과 졸업생들을 중심

으로 뛰어난 기량의 신인들이 들려주는 2007 PBC 신인음악회 네 번째 무대.

부산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무대에 선다.

프로그램

남현수/숲속의 정경

쇼팽/발라드 제 2번

베토벤/소나타 작품 2-2 등 수곡

· 출연/남현수(작곡), 김기연, 박성아(피아노), 김지영, 김민지(소프라노), 이지영(플루트), 이지윤(바이올린)

· 해설/박진홍(음악평론가)

■13일 2007 신인음악회-신라대학교

2007 PBC 신인음악회 다섯 번째 무대로 신라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무대에 선다.

프로그램

정미선/미제(未題)

쇼팽/발라드 작품 52

프로코피에프/악마적 암시 제 4번 등 수곡

· 출연/정미선(작곡), 오지수, 김윤영, 정애란(피아노), 유진(더블베이스), 김상호(트럼펫), 서나은(소프라노)

· 해설/황시내(피아니스트)

■20일 소프라노 장은영 독창회

‘봄, 설렘을 노래하다’



독일가곡의 사색적 아름다움을 서정적으로 노래해온 소프라노 장은영이 봄의 설렘을 담아 들려주는 국내외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의 밤.

프로그램

헨델/오페라 ‘리날도’ 중 ‘울게 하소서’

임금수/강 건너 봄이 오듯

스트라우스/오펠리아의 세 개의 노래 등 수곡

· 해설/오동주(성악가)

■27일 2007 신인음악회-동아대학교

2007 PBC 신인음악회 여섯 번째 무대로 동아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무대에 선다.

프로그램

김동진/수선화

슈만/아다지오와 알레그로

쇼팽/피아노소나타 작품 35 제 2번 등 수곡

· 출연/박미숙, 장윤정, 오채영(피아노), 김유진(트럼펫), 이지혜, 권설희(소프라

노), 장은이(바이올린), 박호민(바리톤), 박용인(호른), 임수미(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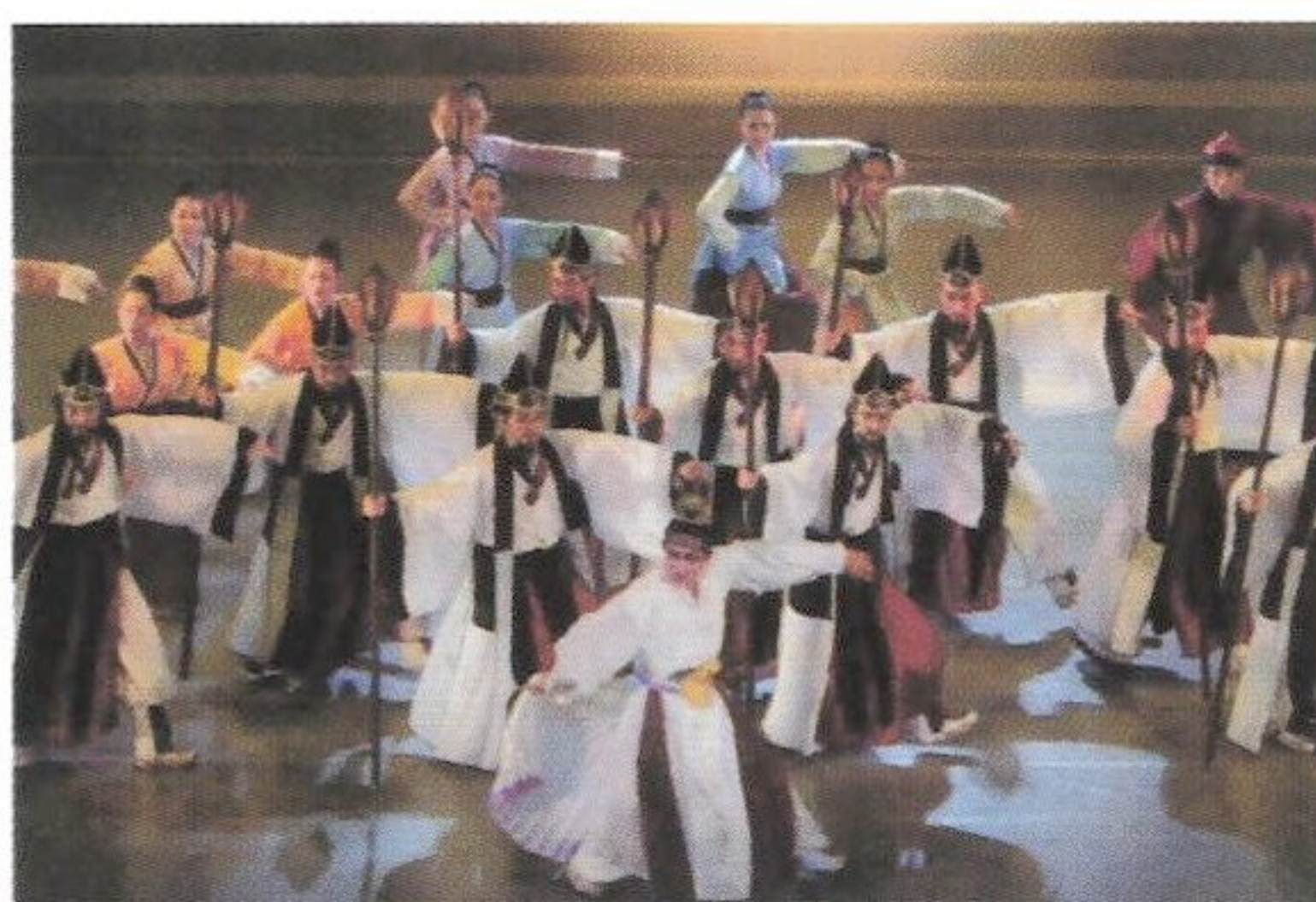
· 해설/김윤선(음악평론가)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가톨릭센터(462-1870)

**글로벌아트홀 한낮의 음악회
관광객을 위한 우리문화알리기**

매주 수요일 오전 11:00
글로벌아트홀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명인을 초청, 우리문화를 소개하는 특별한 무대로, 미리 예약을 한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문 음악회.

· 7일 현악-가야금, 거문고, 해금, 아쟁 등

· 14일 관악-대금, 피리, 태평소 등

· 21일 성악-가곡, 판소리 등

· 28일 국악뮤지컬-총체무극 ‘허황후’ 등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21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7일 플루티스트 손소정 독주회



전국 초·중학교 음악경연대회 최우수상, 한국 플루트 협회 콩쿠르 고등부 2등, 부산음악콩쿠르 3위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는 차세대 유망주 손소정 플루트 독주회.

대 유망주 손소정 플루트 독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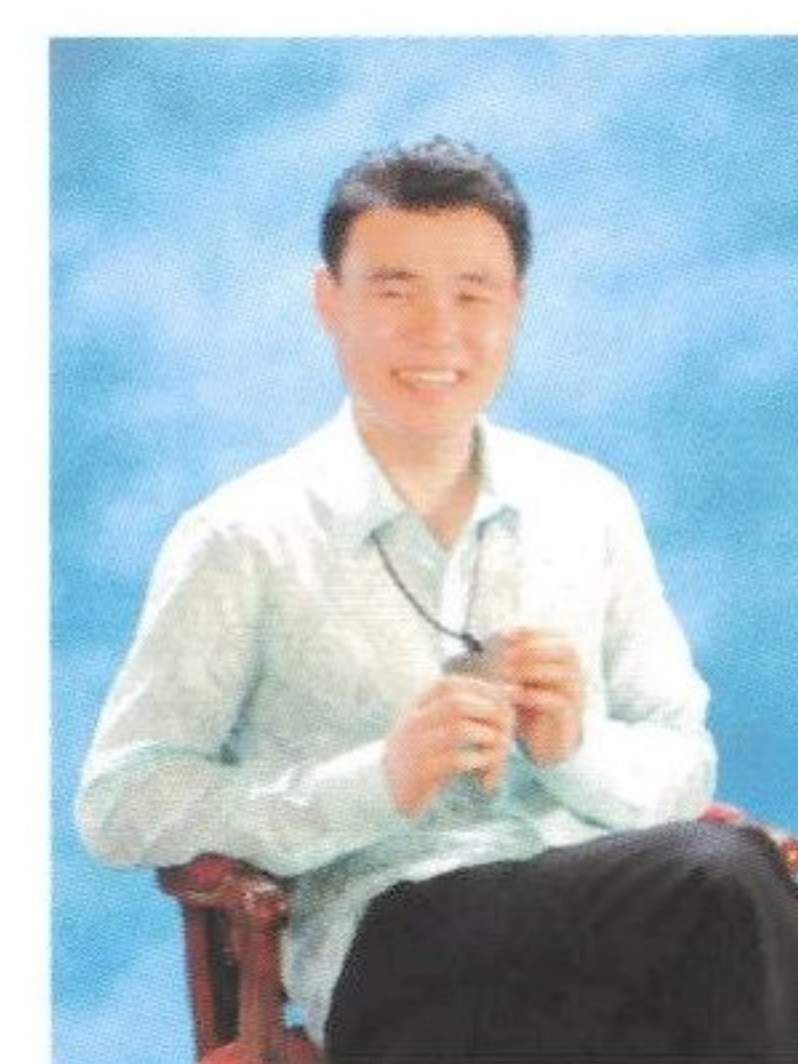
프로그램

바흐/소나타 가장조

라이네케/소나타 ‘운디네’ 작품 107 등 수곡

· 해설/박진홍

■14일 이탁교 오카리나 독주회



경성대학교 음악과와 영남대학교 음악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글로벌아트홀 오카리나부 교수, 한국음악오카리나협회 운영위원으로 활동중인

이탁교 오카리나 독주회.

프로그램

새소리, 탬버린, 자전거, 바운스, 아름다운 숲, 눈의 꽃, 엘 콘도르 파사 등 수곡

· 해설/윤성원

■28일 부산음악사랑연구회 연주회



음악을 통한 봉사활동으로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 지난 2005년 7월 결성된 부산음악사랑연구회 연주회.

프로그램

수선화, 뱃노래, 넌 할 수 있어, 향수, 강 건너 봄이 오듯, 그리운 금강산 등 수곡

· 해설/오동주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박진홍(017-563-7966)

**제 8회 앙상블 클래식
브런치 콘서트**

8일 목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앙상블 클래식의 상세한 해설과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브런

치 콘서트.

프로그램

모차르트/클라리넷 5중주 4악장 '테마와 변주'
타레가/알함브라궁전의 추억
쇼팽/별밤의 세레나데 등 수곡

- 출연/박치상, 박미선(바이올린), 김지연(비올라), 이선아(첼로), 홍성택(클라리넷)
- 협연/고충진(클래식기타)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의 앙상블 클라시아(506-6306)

첼로 앙상블 트라움 (Traum) 콘서트

9일 금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첼리스트 전명희와 그의 제자들로 결성된 첼로 앙상블 트라움 콘서트.

'꿈'이라는 뜻을 지닌 트라움은 이번 무대에서 다양한 앙상블과 솔로연주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스트라우스/박쥐 서곡
클렝겔/찬미가 등 수곡
· 지도/전명희

입장료 초대

문의 전명희(018-560-2944)

옥샘하모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동래초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40여명으로 구성된 옥샘하모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엘가/위풍당당 행진곡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 21번
하차투리안/갈의 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주제곡 등 수곡

· 지휘/박진홍

· 협연/김혜빈(피아노)

입장료 초대

문의 박진홍(017-563-7966)

김영지 제자 음악회

15일 목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피아니스트 김영지의 제자들로 마련된 제자 음악회.

프로그램

쇼팽/폴로네이즈 작품 61 '환상'
하이든/소나타 제 62번 Hob.XVI-52 1악장
베토벤/변주곡 작품 34
리스트/메피스토 왈츠 등 수곡

- 출연/방승희, 오에스더, 김태현, 김소정, 김경은, 김태길, 김민정, 이다정, 이지운, 하희라, 김수정, 박송이, 박민경, 김예빈, 박재영, 김찬미, 김구민, 강주원

입장료 초대

문의 한미수(017-541-9425)

신은진 피아노 독주회

15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학생음악경연대회 대상, 음교 피아노 콩쿠르 대상, 울산광역시 초·중·고등학생 피아노경연대회 최우수상 등을 수상한 바 있는 부산예술고등학교 1학

년 신은진 피아노 독주회.

프로그램

하이든/소나타 내림마장조 Hob 49
바흐/사콘느 라단조
베토벤/소나타 가장조 작품 2 제 2번 등

입장료 초대

문의 김희남(011-9543-7706)

김성숙 피아노 독주회

22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성숙 독주회.

그동안 다수 독주회와 앙상블 연주회, 청소년음악회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김성숙은 이번 무대에서 'Schubert Abend-내 마음의 노래' 라는 주제로 슈베르트의 대표적인 곡들을 들려준다.



부산의 새로운 문화공간 콘체르트하우스

The Classic Wine Cafe Konzerthaus

- 연주회 및 전시회 유치 및 대관 상담
- 음악, 기악 및 와인 동호회 모임 상담
-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 및 DVD/Project 보유
- MBC 장한나 음악여행 촬영지로 매주 금요일 16시 싱싱뉴스에 10회 방송예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491-2 문화2길 32(1층)
TEL:051)742-9520, E-mail:konzerthaus@hotmail.com



프로그램

슈베르트/12개의 그라츠의 왈츠 D.924, 악
흥의 한때 D.780, 소나타 D.845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클래식 프로인트(521-5729)

**한국피아노지도자협회
2007 겨울시즌 페스티벌**

24일 토요일 오후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한국피아노지도자협회 회원들이 매년 여름
과 겨울 두차례 마련하는 정기무대로, 지난
1월 울산과 부산에서의 연주에 이어 세 번째
로 마련된 2007 겨울시즌 페스티벌.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피아노지도자협회 회
원들과 그의 제자들이 출연, 정겨운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쇼팽/즉흥환상곡

베토벤/운명교향곡

림스키 코르사코프/왕벌의 비행

오펜바흐/천국과 지옥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박선연(011-9508-6846)

조현선 피아노 독주회

27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독일 쾰른국립음
대 피아노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경성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
니스트 조현선 독
주회.

조현선은 그동안
12차례의 독주회와 유명 오케스트라와의 협
연무대, 대한민국 작곡대제전, 부산국제음악
제, 통영음악제 등 국내와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150여회가 넘는 연주회를 통해 감성
적이면서도 테크니컬함이 돋보이는 연주로
호평을 받아왔다.

프로그램

바흐/이탈리아 풍의 협주곡 BWV 971

브람스/슈만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9

이상근/Projection I

쇼팽/녹턴 작품 9 제 1번 나단조, 소나타 작
품 35 제 2번 나단조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클래식 프로인트(521-5729)

**아퀴스그라나(Aquisgrana)
리코더앙상블 내한공연**

27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독일 악헨음대 크리스티안 제어 교수와 그
제자들로 구성된, 다국적 리코더 앙상블인
아퀴스그라나 리코더앙상블 내한공연.

아퀴스그라나(Aquisgrana)는 이들이 활
동하고 있는 독일의 도시 악헨(Aachen)의
옛 이름이자 '분수'라는 뜻을 지닌 말이다.

프로그램

바흐/푸가 다장조 BWV 545

비발디/협주곡 라장조 작품 3 제 11번 RV
565

파흐벨/케논 등 수곡

· 출연/Ch. Seher, Kay Schuhmacher,
Nico Jeong, Yueh-Hung Weng

입장료 초대

문의 강희숙(016-562-6561)

**부산아버지합창단 3번째 이야기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의
콘서트**

3월 1일 목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두란노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단원들로 결
성된 부산아버지합창단은 2005년 창단공연
이후 매년 정기연주회와 고아원, 양로원 등
찾아가는 연주회를 통해 음악을 통한 사랑나
눔에 힘써왔다.

프로그램



영원한 사랑, 바위섬, 최진사댁 셋째딸, CM
송 메들리,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 등 수곡

· 지휘/이홍길

· 피아노/안선애

· 협연/CCM가수 남궁송옥, 박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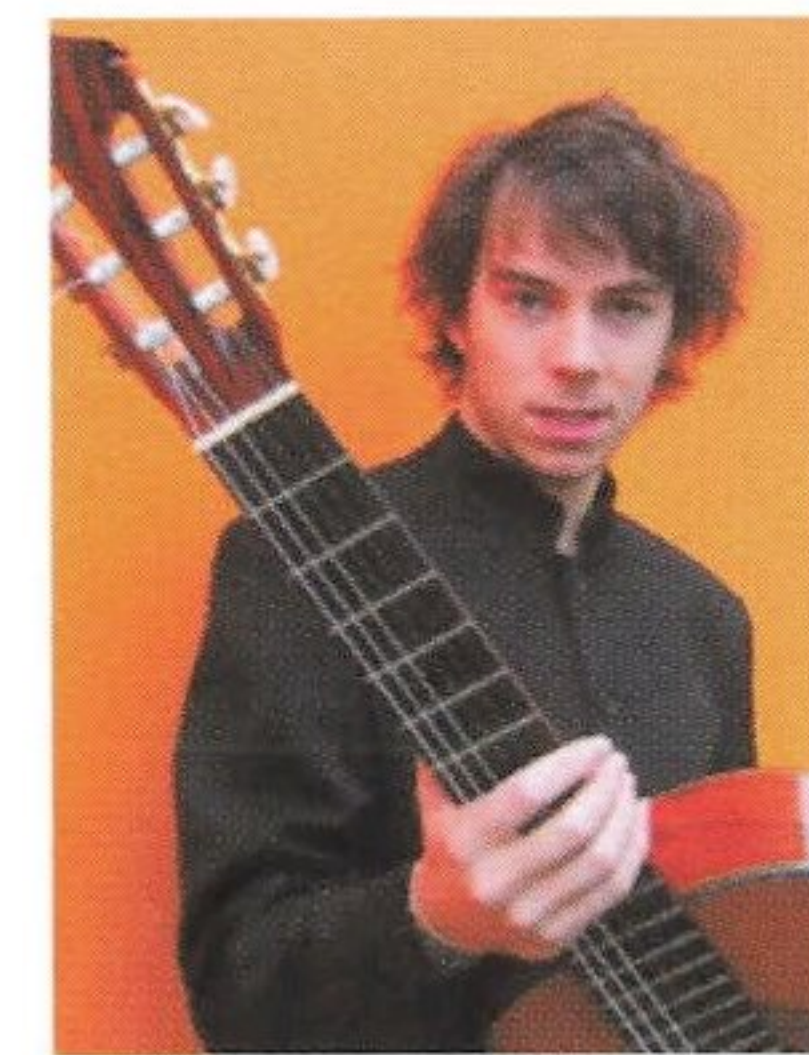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아버지합창단

(516-1616, 011-599-9937)

**천재적인 기타리스트
띠보 코방 리사이틀**

3월 3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전 세계 유명콩쿠
르를 휩쓴 프랑스
가 자랑하는 천재
기타리스트 띠보
코방 리사이틀.

보르도 국립고등
음악원, 파리 국립
고등음악원을 우수

한 성적으로 졸업한 띠보 코방은 그동안 유
럽은 물론 캐나다, 미국, 브라질, 러시아 등
전 세계를 무대로 명성을 쌓아왔다.

프로그램

스칼라티/5 Sonatas

R. 롤랑디옹/3 Arrangement

카를로 도메니코니/Koyunbaba, suite
pour guitare 작품 19 등

문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배효정 가야금독주회

3월 3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대학교 국악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
고 전주시립전통예술단 가야금 수석을 역임
한 가야금 연주자 배효정 독주회.

현재 진주교육대학교와 부산가톨릭대학교

음악교육원에 출강중인 배효정은 그동안 프랑스 그르노블 박물관 '한국문화축제' 공연, 일본 나가사키 공연 등을 가져왔다.

프로그램

감영재/17현 가야금 독주곡 '풀잎'
김계옥/25현 가야금 독주곡 '궁타령의 멋'
(부산초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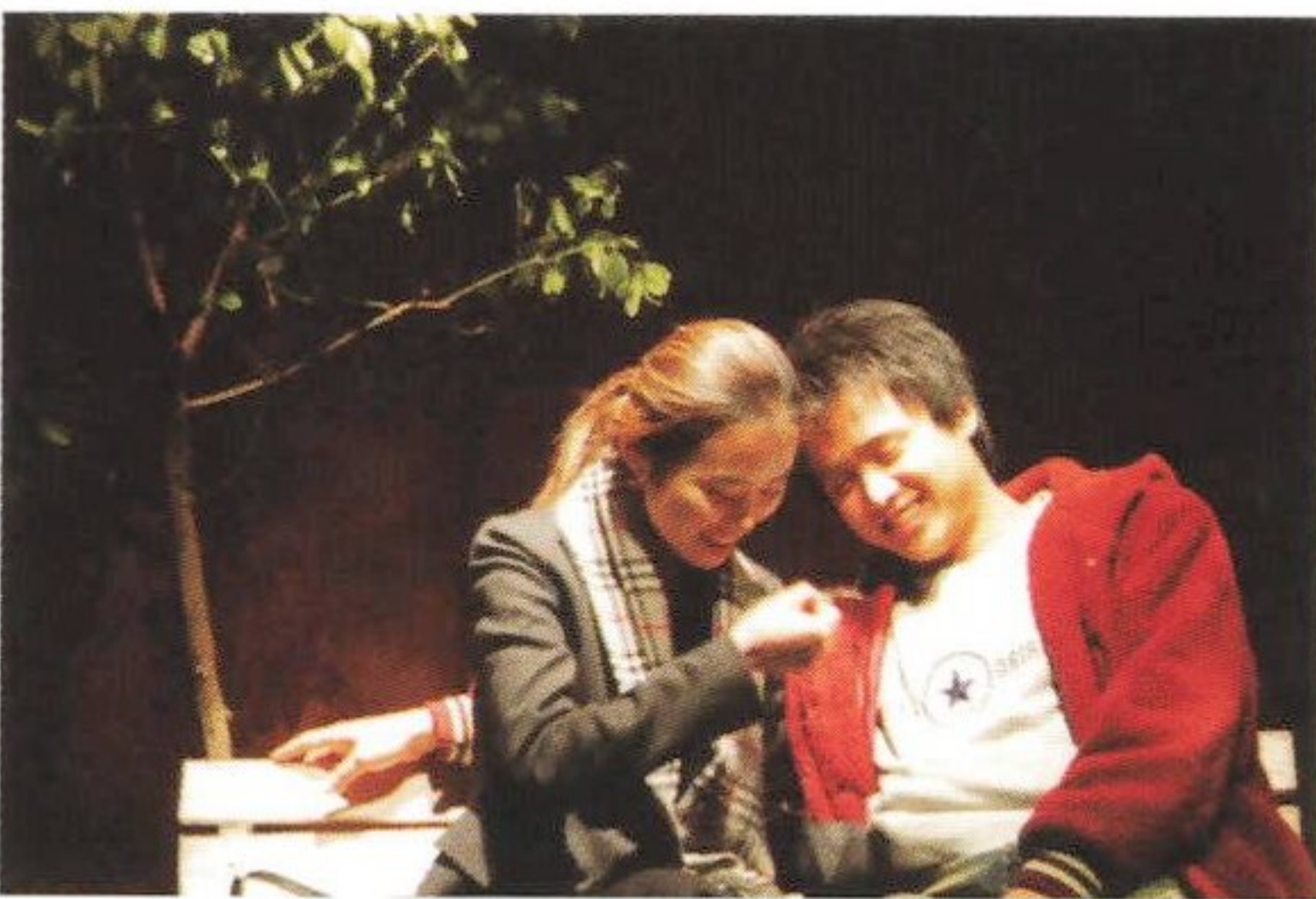
· 장구/송강수(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입장료 초대
문의 배효정(016-866-0844)

연극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1월 26일(금)-2월 15일(목)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진 후, 그 질문의 해답을 관객 스스로가 찾아나가는 열린 구성의 작품.

· 구성, 연출/오치운
· 출연/양효윤, 정애경, 백선우, 김성훈, 김현주, 이정형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하녀들 for men**

2월 9일(금)-3월 11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6:00 (월요일, 17일~19
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여주인과 딸을 살해한 뒤 동성애를 즐기다 발각되어 프랑스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줬던 뽀빠자매 사건을 소재로 한 장 주네 원작의 '하녀들'을, 두 주인공을 여자가 아닌 남자들로 설정,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한 작품.

· 작/장주네 · 연출/심문섭
· 출연/김혜정, 고인범, 박지현, 김성훈, 강기훈, 박훈영

입장료 균일 30,000원
문의 부산연극제작소 동넵(751-0858)

극단 61 창단공연 백화

21일(수)-27일(화)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미리내소극장



중년층의 살아가는 이야기와 정서를 담아내겠다는 취지로 창단한 극단 '61' 창단공연. 국밥집 여자 백화의 굴곡진 삶에 투영된 진한 모성애를 담은 창작극 '백화'를 선보인다.

· 작/심상교(부산교육대학교 교수)
· 연출/이철우(동의대학교 교수)
· 음악/고충진 · 안무/김옥련
· 출연/정행심, 정종호, 전상미, 임호준, 배문수, 김유석

입장료 일반 20,000원(예매 10,000원, 창단초
연특별할인가) · 학생 7,000원
문의 극단61(202-2993, 019-390-1319)

**극단 아센 제 14회 정기공연
여보세요!!! 누구세요???**

2월 23일(금)-3월 25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6:00
SH공간소극장

아내의 외출을 틈타 정부를 집으로 불러들인 남편과 외출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온 아내, 갑작스런 상황전개에 정부의 애인역할을 역지로 맡게된 남편의 후배이자 아내의 정부인 남자 등 서로의 정부이던 네 사람이 한 공간에 모이면서 각자의 부정과 비밀을 감추기위해 눈물겨운 역할바꾸기가 전개되는 코미디극.

· 작/까몰레띠 · 각색, 연출/호민
· 출연/호민, 구민주, 최수희, 양진억, 황자미



부산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클래식음악애호가 바라던 클래식음반전문매장
부산에도 있습니다.

· 비바체 목요음악감상회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8:00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비바체클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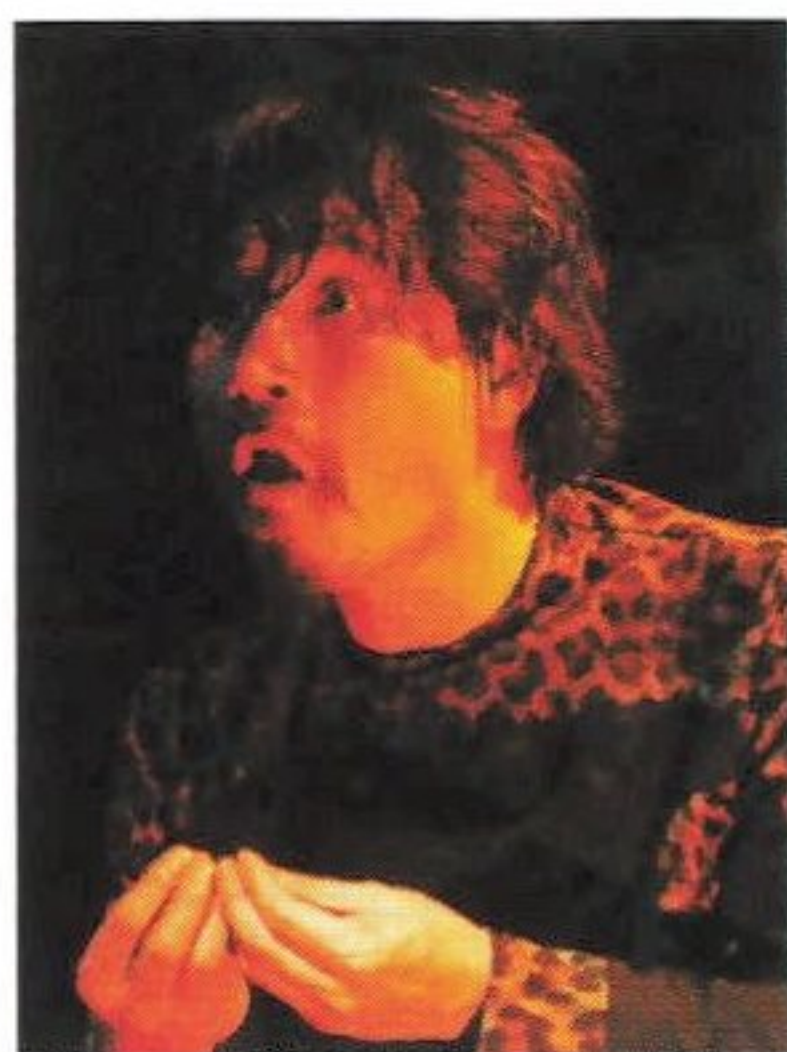
해운대 선플라자 빌딩 1층(지하 2, 3, 4층 무료주차)
TEL 743-0003, FAX 743-3301, vivaceclassic.co.kr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2/23~2/25일 프리뷰 관람시 50% 할인)

문의 (주)코엔(1544-3164, 611-8518)

미리내소극장 초청 권철 모노드라마 호랑이아줌마

3월 1일(목)-31일(토) 평일 오후 6:30, 주말 오후 3:00(월요일 공연 없음) 미리내소극장



지난해 놀원아트홀 장기공연과 서울에서 열린 제 1회 모노페스티벌 초청공연으로 올려져 많은 호평을 받았던 권철 모노드라마 '호랑이아줌마'는 중국 인

민군 병사로 대장정에 나갔던 한 남자가 부상으로 낙오된 뒤 호랑이 아줌마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작품이다.

입장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미리내소극장
(504-2544, 010-5449-2544)

아 동 극

마법의 성과 피노키오의 모험

1월 16일(화)-2월 4일(일)
평일 오전 10:00(단체공연),
주말 오후 1:00(월요일, 1/19일,
2/2일 공연없음) 너른소극장

할아버지가 사는 시골로 오게된 도시소년 기호와 인형친구 피노키오가 마법의 성에서 펼치는 신나는 모험의 세계.

· 작/정경환 · 연출/강혜란

입장료 일반 12,000원 · 어린이 7,000원

문의 문화기획 좋은사람(861-4654)

어린이를 위한 영어 코메디 Five Fools(다섯 명의 유쾌한 바보들)

1일-2일 목-금요일 오후 2:00, 5: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다섯 명의 바보들이 펼치는 좌충우돌 서커스 만들기를 통해 맘껏 웃으며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어린이를 위한 영어 코메디.

· 연출/로저 린드(라트어린이극장 예술감독)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라트어린이극장(02-5600-999)

가족뮤지컬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3일-4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시민회관 소극장



일곱난쟁이의 도움으로 못된 왕비를 물리치고 이웃나라 왕자와 결혼해 행복하게 산다는 내용의 명작동화 '백설공주'를 가족뮤지컬로 각색한 작품.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의 제일기획(557-4277)

어린이 영어뮤지컬 흥부와 놀부

24일 토요일 오후 3:00, 7:30,
25일 일요일 오후 3: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어렵기만 한 영어를 뮤지컬과 접목시켜 어린이들의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마련한 어린이 영어뮤지컬.

우리의 고전인 '흥부와 놀부'를 초등학교생들이 직접 무대에서 영어로 연기한다.

입장료 무료

문의 Song and Soul(512-5868)

어린이 뮤지컬 마술 피노키오

3월 1일 오후 12:00, 2:00,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나무인형 피노키오 이야기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마술



을 결합시킨 가족뮤지컬 '마술 피노키오'.

· 각색/홍은경 · 연출/홍보선

· 출연/석경화, 이보현, 이형철, 유돈기 외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가람뮤지컬(019-284-4842)

영 학

시네마테크와 떠나는 작은 겨울 여행

1월 23일(화)-2월 4일(일)
오전 11:00, 오후 1:00, 3:00, 5:00,
7:00 시네마테크 부산



아들의 여자와 불륜에 빠지는 유명작가의 욕망이 흘러가는 궤적을 보여주는 '겨울 여행'과 여행길에서 벌어지는 가족간의 영동하면서도 가슴 훈훈한 사건들을 그린 '미스 리틀 선샤인' 등 두 작품이 교차 상영된다.

입장료 균일 4,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
(742-5377, cinema.piff.org)

필름 누아르 걸작선

6일(화)-16일(금) 오후 1:00, 3:00,
5:00, 7:00 시네마테크 부산

필름 누아르의 원형을 보인 오손 웰스의 '시민 케인', 팜므 파탈의 숨막힐 듯한 매혹을 그린 '길다'와 '푸쉬 오버', 영화사상 가장 폭력적이고 비정한 세계를 그린 '키스 미 데들리', 프랑스의 누아르 영화인 장 뤽



고다르의 '네멋대로 해라' 등 11편의 필름 누아르 대표작을 상영하는 시네마테크 부산 기획 상영전.

입장료 균일 4,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김기영 감독 특별전

2월 20일(화)-3월 4일(일)
시네마테크 부산(시간미정, 월요일·2/28일 상영없음)

인간마성에 대한 탐구와 악녀를 주제로 한 영화를 통해 그 독창적인 세계로 극찬을 받았던 김기영 감독 특별전.

대표작 하녀, 총녀, 이어도를 비롯 그동안 공개되지 않다가 최근에 복원된 고려장 등 10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입장료 균일 4,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콘서트

빅마마 콘서트

3일 토요일 오후 7:00, 4일 일요일 오후 6:00 KBS부산홀

입장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에이엔씨티(1644-4484)

김건모 콘서트

10일 토요일 오후 7:00
KBS 부산홀

입장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A석 44,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에이엔씨티(1644-4484)

이은결 10주년 콘서트

10일 토요일 오후 7:00
KBS 부산홀



2006 국제마술연합회 마술대전 1위, 라스 베가스 특별상 수상에 빛나는 세계적인 마술사 이은결의 마술인생 10년을 기념해 마련한 동화같은 마술이야기.

입장료 1층 55,000원 · 2층 44,000원
3층 33,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에이엔씨티(1644-4484)

행사

런던카니발

2006년 12월 20일(수)-2007년 2월 20일(화)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입장료 일반 15,000원 · 중학생 12,000원
초등학생(어린이 포함) 10,000원

문의 런던카니발(740-3415)

봄슬레이 벅스코 설매 대축제

2006년 12월 15일(금)-2007년 2월 20일(화)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입장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8,000원

문의 (주)에이원(740-8091)

반쪽이의 고물 자연사 박물관

2006년 12월 21일(목)-2007년 2월 4일(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자연을 주제로 재활용제품이 상상력을 만나 탄생한 고물 자연사 박물관.

입장료 일반 6,000원 · 초등생 5,000원
20인 이상 단체 3,000원

문의 반쪽이의 고물자연사 박물관 준비위 (731-5912)

2007 제 4회 슈퍼키즈랜드

2006년 12월 21일(목)-2007년 3월 18일(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KNN부산방송(740-8800)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족 종합건강검진 10% 할인

부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병원

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은 부산유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한발 앞서가는 큰 병원으로 새롭게 도약·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내과 | 소화기내과 | 소아과 | 신경과 | 정신과 | 피부과 | 외과 | 흉부외과 | 정형외과 | 성형외과 | 신경외과 | 산부인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비뇨기과 | 치과 | 가정의학과 | 재활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진단방사선과 | 진단검사의학과 | 병리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 1330

• 대표전화 : 051)507-3000 • Fax : 051)507-3001 • 홈페이지 : www.busanmc.or.kr

전 시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다섯번째 특별전 **'아름다운 바다' 수중사진전**

12월 1일(금)-2007년 2월 11일(일)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특별전시실

입장료 일반 2,500원 · 청소년 1,500원
12세 이하 어린이 무료

문의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553-4944)

재불한국작가전 **시간의 흐름에서展**

12월 16일(토)-2007년 2월 11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대전시실

· 참여작가/김성수, 안중대, 전강욱,
한명옥, 한순자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0-4218)

최민식 사진展

12월 21일(목)-2007년 2월 19일(월)
용두산미술전시관



50년동안 멈추지 않고 인간에 대한 애정을 필름에 담아온 리얼리즘 사진의 독보적인 존재 최민식의 50년 사진인생을 기념하는 기획전 '인간, 그 아름다운 이름'.

문의 용두산미술전시관(244-4228)

유토피아-이태리 판화 400년展

12월 22일(금)-2007년 2월 19일(월)
부산시립미술관 2층 대전시실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0-4218)

'2007년 돼지의 해' 展

1월 2일(화)-3월 4일(일)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앞 로비

문의 부산박물관(624-6341~4)

인도현대미술-Hungry God展

1월 12일(금)-2월 19일(월) 부산시립미술관 3층 대전시실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0-4218)

서기문 초대전

1월 16일(화)-2월 4일(일)
갤러리 예가

문의 갤러리 예가(624-0933)

영광도서갤러리 개관 9주년 기념 기획전 **공간의 시학**

1월 16일(화)-2월 11일(일)
영광도서갤러리

사진을 전공한 프로와 사진애호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획전.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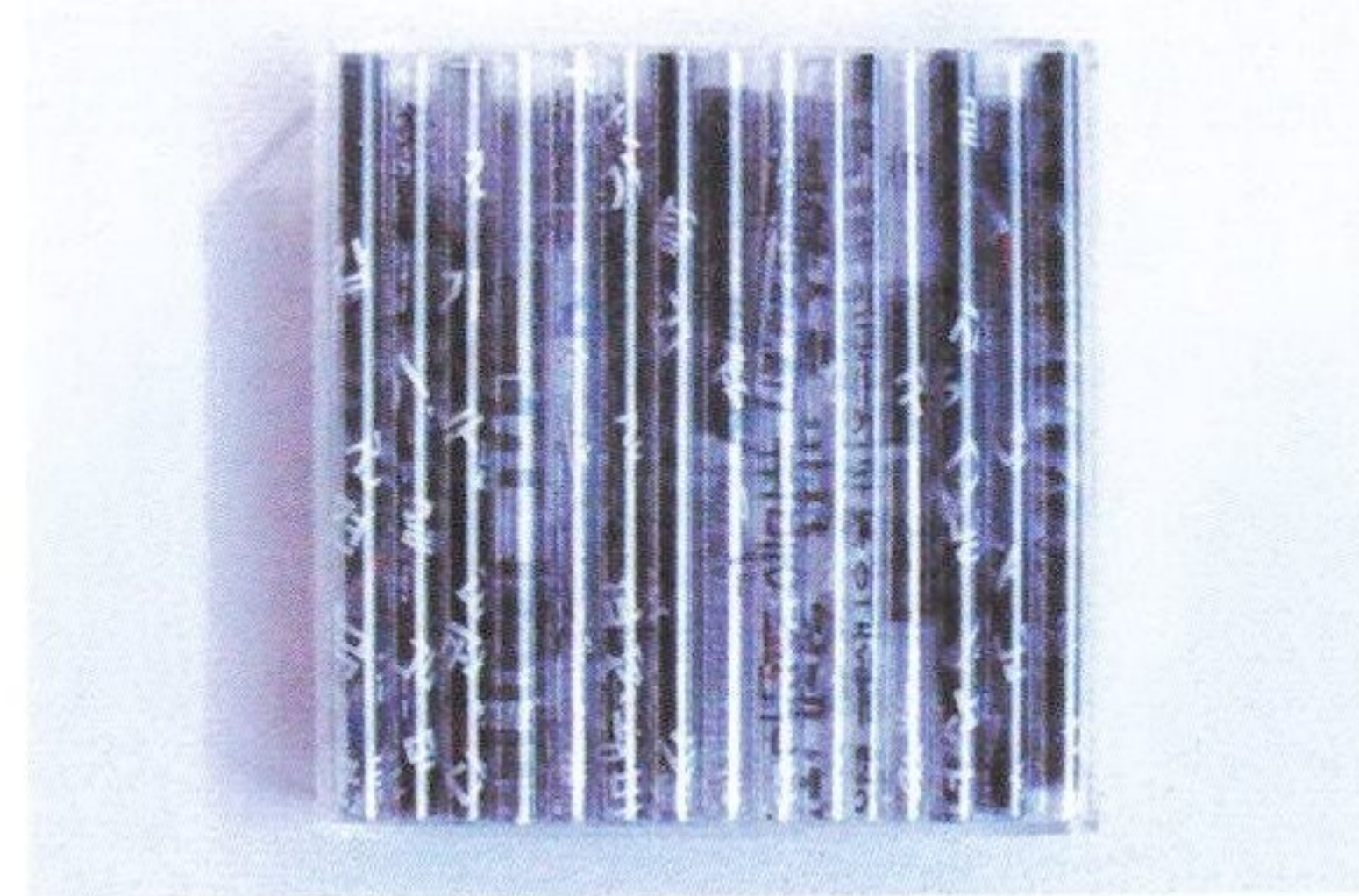
권혁展

1월 26일(금)-2월 3일(토)
롯데화랑 부산점

문의 롯데화랑 부산점(810-2348)

김경선 초대전

2월 1일(목)-2월 28일(수)
부산프랑스문화원 전시실



프랑스 파리1-뵘데옹 소르본느대학교 조형예술과에서 석,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김경선 초대전.

이번 전시회에서는 책이 제공하는 문자와 그림 이미지를 하나로 결합시켜주는 조형적 표현을 시도한 '間:보기와 읽기' 시리즈를 선보인다.

문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한·중·일 현대미술제

2월 5일(월)-2월 10일(토)
부산광역시청 제 1전시실

문의 김기철(011-9304-8861)

뭉환경 제 31회 정기전 B-Rode

2월 13일(일)-2월 25일(일)
영광도서 갤러리



한유화 作

· 참여작가/한유화, 최대근, 왕정아, 박슬아, 문진수

문의 영광도서 갤러리(816-9500)

Scott McMaster 사진초대전

2월 23일(금)-3월 11일(일)
갤러리 예가



캐나다 Memorial University를 졸업한 사진작가 Scott McMaster 초대전.

문의 갤러리 예가(624-0933)

현대미술연구회 정기전 생활일기

2월 27일(화)-3월 4일(일)
영광도서 갤러리



현대미술의 본질을 연구하는 신진작가들의 모임인 현대미술연구회의 2007년 정기전. 일상생활을 테마로 작가 개인의 개성을 살린 작품을 선보인다.

· 참여작가/어은경, 정유순, 김미옥, 신은지, 박진희, 박영주, 정지연, 김미숙, 고미숙, 박정선

문의 영광도서 갤러리(816-9500)

Recommended Performance in February

Morning Hell with Nanse Gum! Special Concert by Busan Cultural Center and Busan Philharmonic

8th(Thu) 11:00 a.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It gives you unforgettable morning and the precious chance for those who are not free in the evening especially many housewives and stud-ents. Busan Cultural Center is preparing enthusiastically this concert for them. Nanse Gum the star of classical music will give you easy presentation of music at ease in the morning.

Program

P.I.Tchaikovsky / From 'The Swan Lake' Suite op.20a
A.Vivaldi / 'La Primavera' from Violin Concerto 'Four Seasons' op.8
P.I.Tchaikovsky/ '1812' Festival Overture in E^b Major op.49

- Conduct & Narrator/Nanse Gum
- Soloist/Kim Younghee(Violin)

Ticket : All Seat 15,000Won

For More detail:607-6101, 607-6070

New Year's Greeting Concert of Korean Symphony Orchestra by KNN

10th(Sat) 7:3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2007 begin. You may have many new year's resolutions. How about going to the goals with powerful music? It is offered by the



number one Korean Orchestra, Korean Symphony, maestro Oh Chun-ggeun, Jeon Jiyoung prima donna in German Opera stage and Yang Kyungah the rising violinist in Manhattan and

Top winner of Maryland.

Program

Tchaikovsky/Capriccio Italien, Op.45
Prokofiev/Tybal's Death from 'Romeo and Juliet'
Bernstein/Candide Overture
Stravinsky/The Firebird etc.

- Conductor/Oh Chunggeun
- Soprano/Ji-Young Jeon
- Violin/Kyung-Ah Yang

Ticket : VIP 90,000Won · R 70,000Won · S 50,000Won

A 30,000Won · B 20,000Won

For More detail:1577-7600

Special Concert by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with Kwun Hyuk-Joo, Little Hero of Paganini Competition

2nd, Mar. (Fri.)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Can you feel a scent of spring? Maybe it seems too far. But here are some people to prepare for spring. They will present lively music for you especially with Kwun Hyuk-Joo the winner of Paganini Competition.



Alexander Anissimov

Kwun Hyuk-Joo

Program

G.Rossini/Overture to 'Wilhelm Tell'
N.Paganini/Violin Concerto No.1 in D Major op.6
E.Elgar/Enigma Variations op.36

- Conductor/Alexander Anissimov
- Soloist/Kwun Hyuk-Joo(Violin)

Ticket:R 10,000Won · S 7,000Won · A 5,000Won

For More detail:607-6101, 607-6070

The Regular Performance in February

Every Saturday 4:00 p.m. Busan Cultural Center Small Theater

- 3th(Sat) 4:00p.m Performance of Busan Traditional Music

Program

Buchaechum, Busan Taryung, Gisangjumgo- Gayageum duet of Chunhaynggeon, Orijeong Yibyeolga(goodbye scene) of Chunhaynggeon, Jangguchum

- Commentation/Jang Junyoung

- 10th(Sat) 4:00p.m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Program

Cheoyongmu, Sanjochum, Daekamnolee, Yipchum, Sogochum, Dalbitchum

- Dance Composition/Hong Kitae

- 24th(Sat) 4:00p.m Busan Metropolitan City Chor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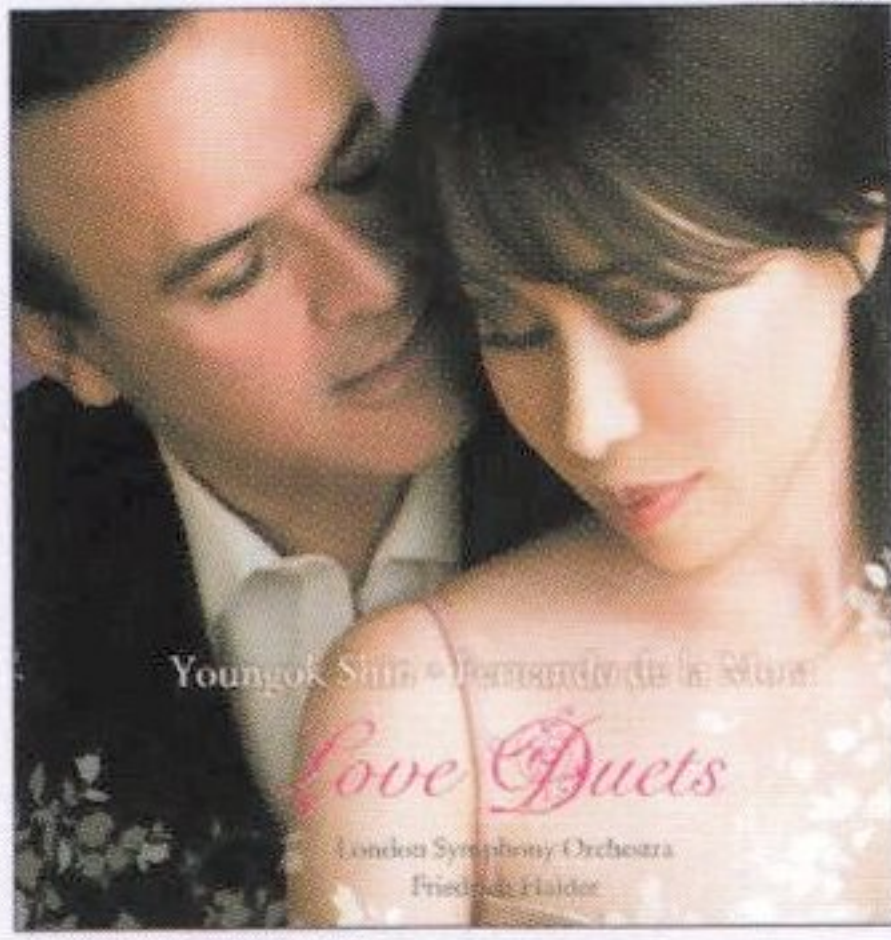
Program

E.Toch/Geographical Fugue
G.Ives/Name that tune
Mary L.Lightfoot/Pie Jesu
Deborah.C.Lutz/Ave Maria
Deep River, Amaging Grace etc.

- Commentation and direct/Kim Kanggyu

Ticket: Free

For More detail:607-6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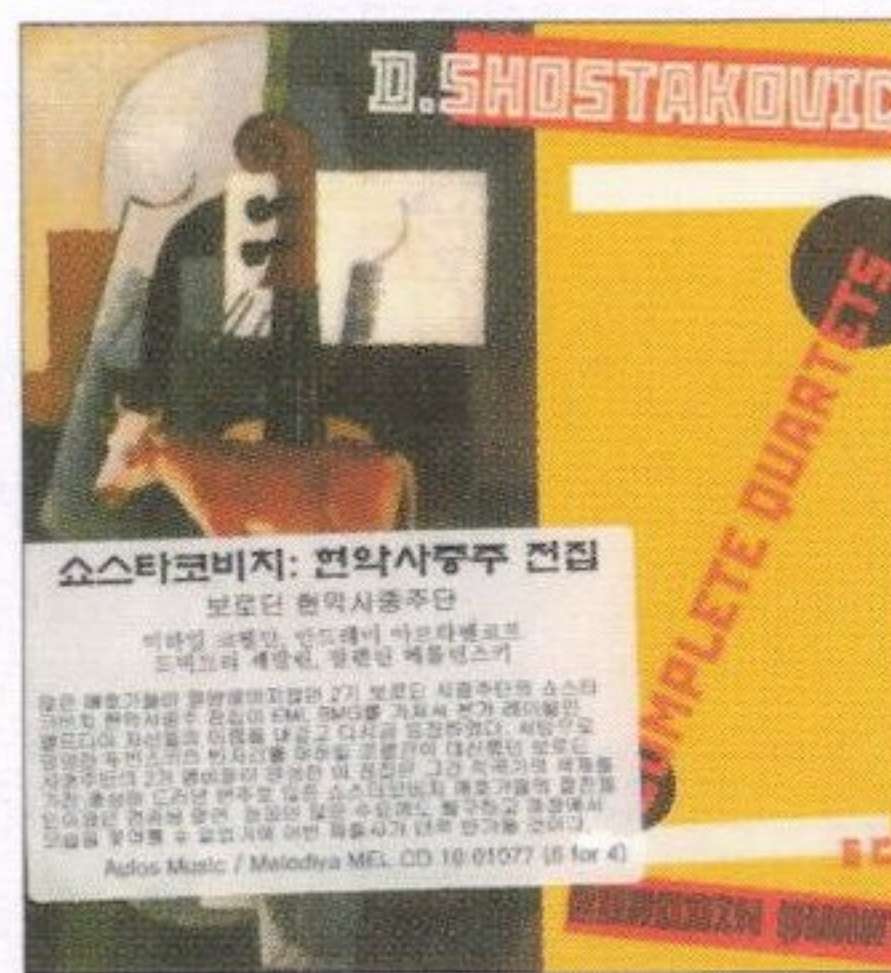
신영옥의 러브 듀엣 (Love duets)

감미로운 사랑의 노래들 (신영옥 & 페르난도 데 라 모라)

3년 만에 나오는 신영옥의 새 음반이자 최초의 듀엣 앨범이다. 멕시코 최고의 테너로 주목 받고 있는 페르난도 델 라 모라와 함께하는 사랑의 메들리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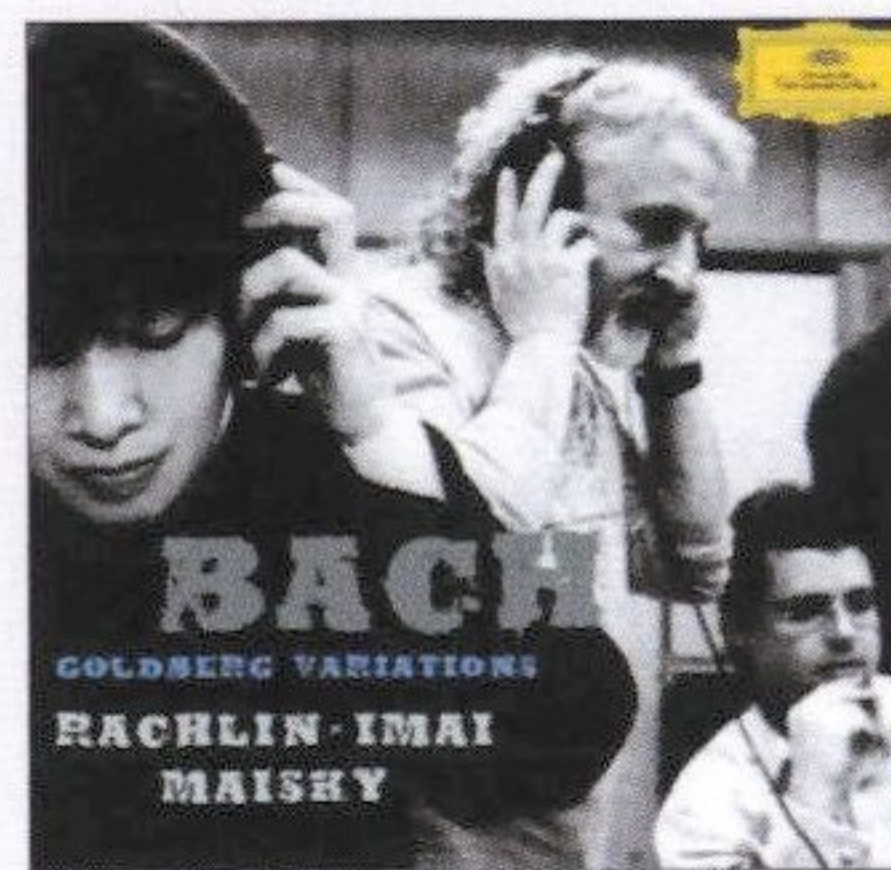
사랑의 위기를 강조하고, 규정하고,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는 것은 다름 아닌 이중창이다. 푸치니의 <라 보엠>은 그 뜨거운 사랑의 이중창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오페라 하우스에서 그

렇게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짜릿한 사랑의 표현은 이 비극을 더욱 절절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모차르트는 때때로 엉뚱한 상대가 가장 감미로운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면서 자신의 이중창을 아이러니컬하게 만들었다. 베르디는 이중창을 장대하게, 또는 덧없게 만들었다. 푸치니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다루기도 했지만, 두 영혼이 하나가 되기를 꿈꾸는 이중창(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한 교과서와 같다)은 언제나 중요하다. 이 음반은 오페라 레퍼토리에서 가장 뛰어난 이중창들을 다루고 있다. 나아가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작품들 까지 수록되어 있다.



Borodin String Quartet (with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 프로코피에프 현악사중주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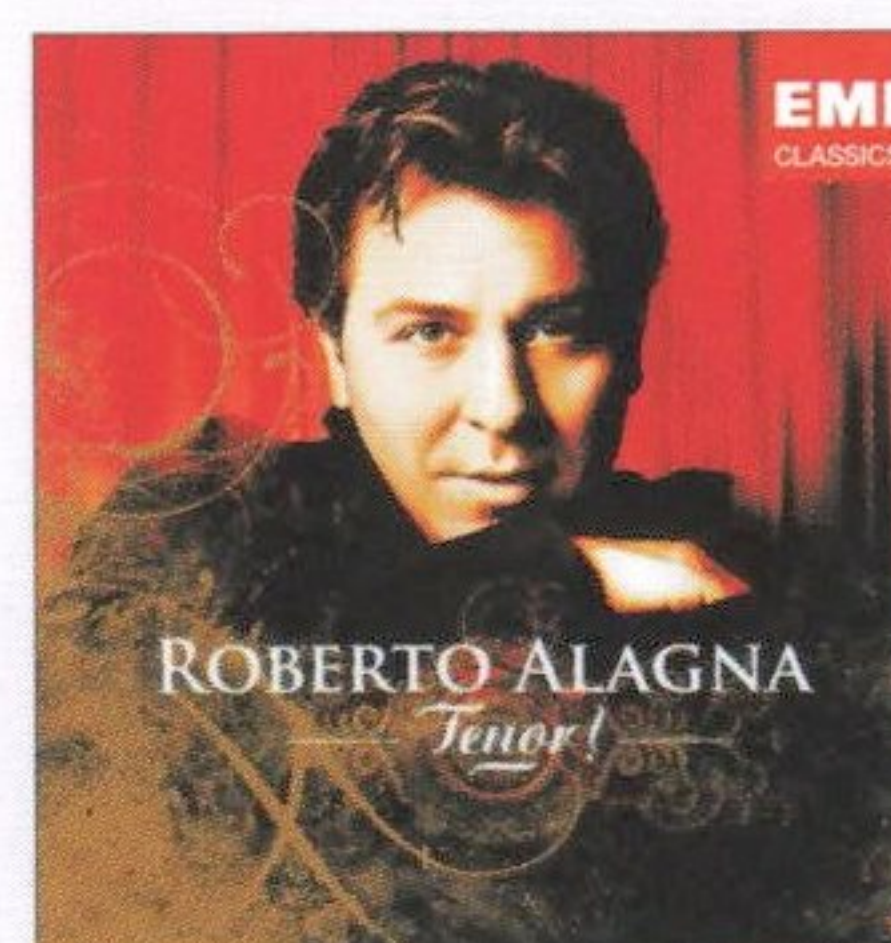
많은 애호가들이 열망해마지않던 2기 보로딘 사중주단의 쇼스타코비치 현악사중주 전집이 EMI, BMG를 거쳐서 본가 레이블인 멜로디야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고 다시금 등장했다. 서방으로 망명한 두빈스키의 빈자리를 미하일 코펠만이 대신했던 보로딘 사중주단의 2기 멤버들이 완성한 이 전집은 그간 작곡가의 색채를 가장 충실히 드러낸 연주로 많은 쇼스타코비치 애호가들의 절찬을 받아왔던 검증된 명연이다. 한동안 많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매장에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기에 이번 재출시가 더욱 반갑다.



바흐 프리미엄 에디션 (40 for 2)

위대한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명곡들을 40장에 담아 3장 가격에 내놓은 초특급 프리미엄 전집!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전곡, 골트베르크 변주곡, 관현악 모음곡, 프랑스 모음곡과 이탈리아 모음곡 전곡, 안나 막달레나를 위한 음악수첩, 그리고 많은 건반 음악(오르간&하프시코드) 등 바흐의 주요 작품들이 콤팩트 박스에 담겼다. 크리스티안 자

코테(Christiane Jaccottet)의 골트베르크 변주곡 및 환상곡과 푸가, 토카타, 파르티타 등 하프시코드 명곡들은 바흐의 음악을 많이 연주해온 명인의 솜씨, 환상적인 연주가 펼쳐진다. 독일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콘라트 폰 데어 골츠(Conrad von der goltz)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 음원도 그동안 좀처럼 구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호기심을 당긴다. 잔잔하고 고혹적인 관악기의 음색을 만끽할 수 있는 플루트 소나타 음원도 이 세트의 각별한 선물이다. 유명한 플루트 연주자 밀로슈 유르코비츠(Milos Jurkovic)가 연주했다. 트리오 소나타, 오르간 환상곡, 전주곡과 푸가, 토카타와 푸가 등 주옥같은 바흐의 명곡들이 웅혼하고 찬란하게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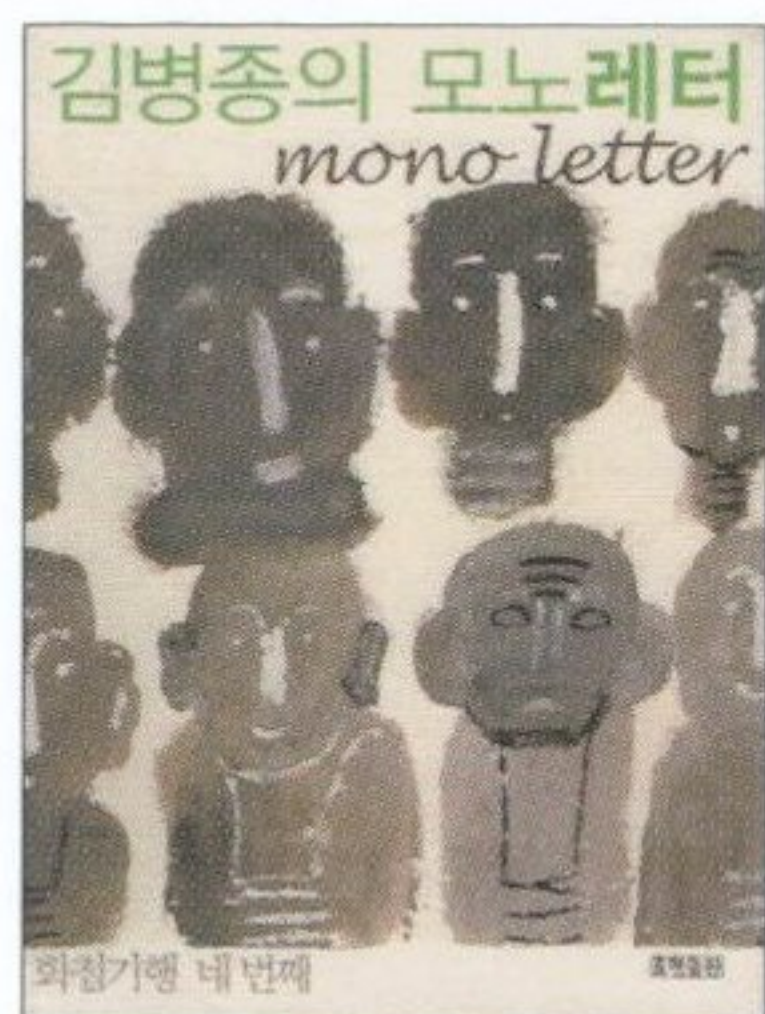
EKC2D 0871 (2for1)

비록 야유를 받으며 문제를 일으켰지만 로베르토 알라냐가 정말 노래 잘하는 테너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 하지만 흠잡을데 없는 미성, 완벽한 디션, 열정적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의 테너이며,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마법 같은지 알기 위해서는 이 두 장의 음반을 듣기만 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대의 찬손>, <별은 빛나건만>, <선조들의 무덤이여> 등 유명 아리아와 실제 부인인 안젤라 게오르규와 함께한 사랑스러운 듀엣들까지 2장에

담아 1장 가격에 배포하는 로베르토 알라냐의 진정한 베스트 음반일 것이다.

김병종의 모노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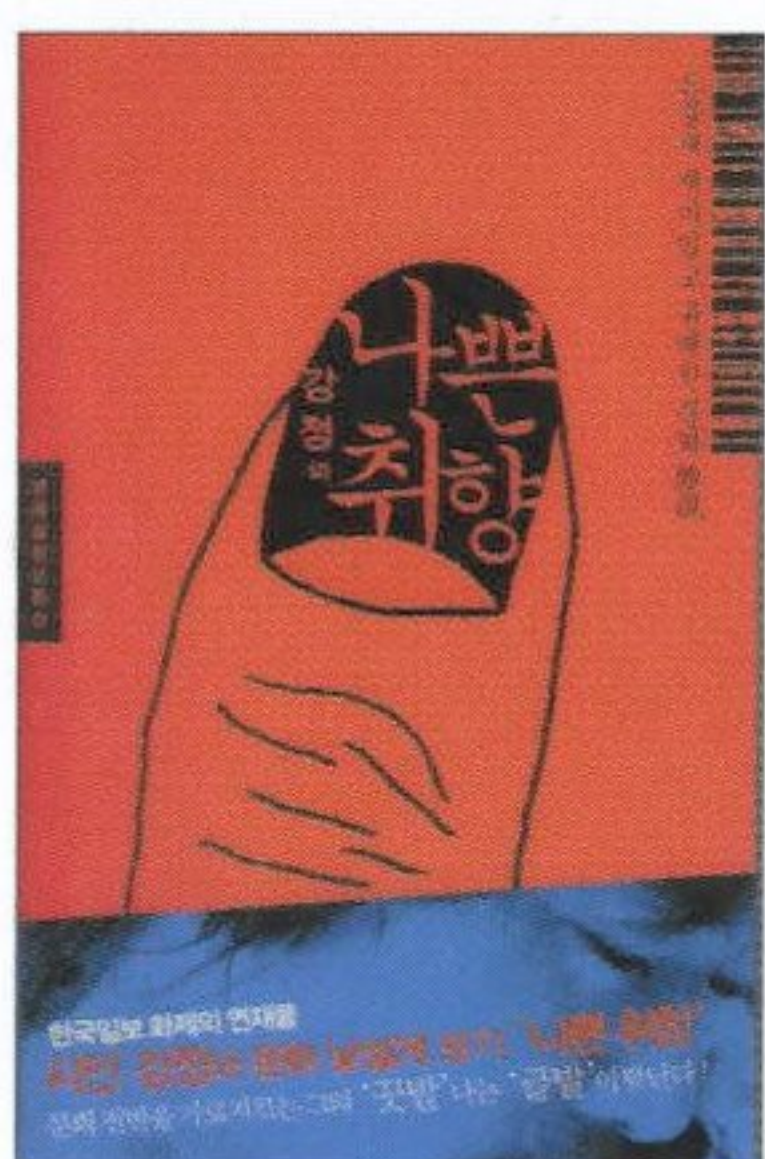
김병종 지음 / 효형출판 / 269p / 15,000원



동양화가 김병종 서울대 미대 교수가 '김병종의 화첩기행' 1~3권에 이어 한평생 열정을 불태우며 살아간 예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서른 한 통의 편지를 보낸다. 50대 중반에 접어든 저자는 편지를 '한 개인의 일상과 고뇌와 고백을 듣는 황홀한 경험을 전해주는' 메신저라고 말한다. 그 편지 형식으로 26명의 예술가와 5곳의 장소를 소개하는 이 책은 4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소설가 최명희, 한국 마임의 개척자 유진규, 시대의 음유시인 김민기 등을 다룬 1장 '미치다 赤'에서는 삶을, 때론 목숨까지 내놓으며 예(藝)와 의(義)의 부름에 화답했던 사람들의 붉은빛 열정에 주목한다. 2장 '음지 綠'에서는 섬진강 시인 김용택, 모악산방 시인 박남준 등 자본의 질서를 거부하고 자연에서 숨을 길러 생을 여는 인물들이 그려진다. 현재 발 딛고 선 공간을 벗어나 낯선 곳으로 향한 이들을 다룬 3장 '바람 白'에서는 고려미술관 설립자 정조문, 성악가 헬렌 권, 도예가 권대섭 등이 등장한다. 유택렬 화백과 그의 딸인 피아니스트 유경아, 소설가 오정희, 전설의 무용가 최승희의 발자취를 찾아 떠난 마지막 장 '달다 黑'에서는 현실논리 속에 점차 잊히고 있는 소중한 추억에 대해 이야기다.

강정의 나쁜 취향

강정 지음 / 랜덤하우스 / 351p /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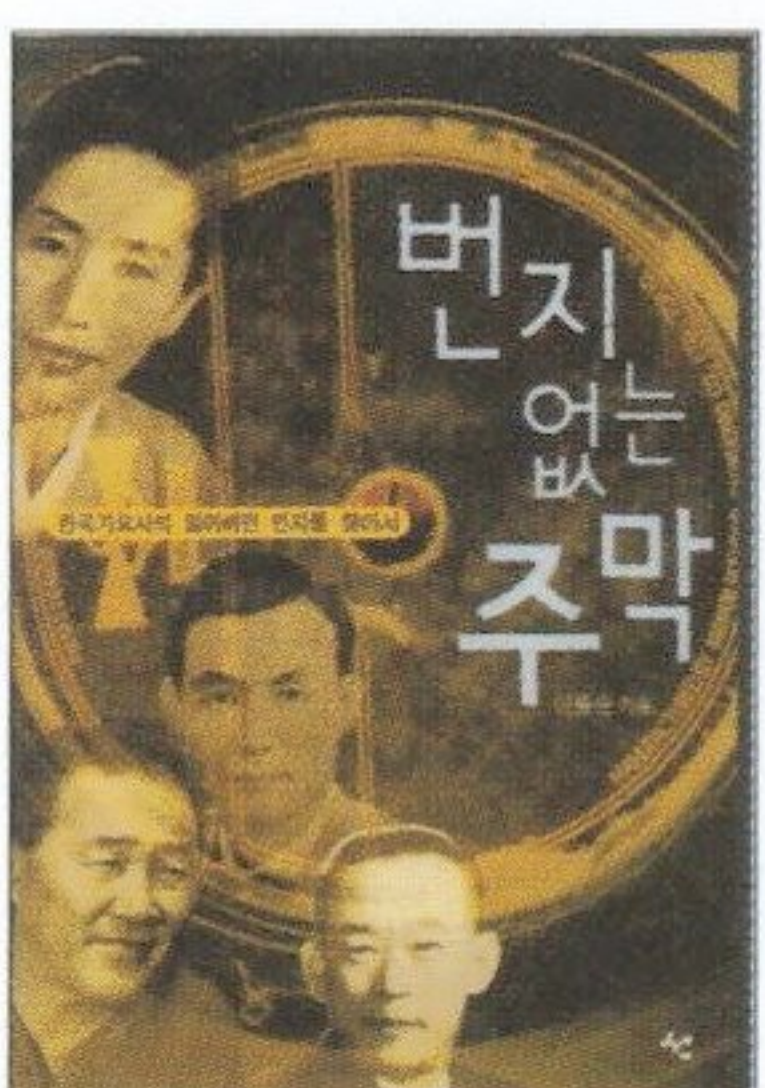


2005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화제를 일으키며 한국일보에 연재되었던 강정 시인의 문화 낯설게 보기 '나쁜 취향'이 책으로 엮어졌다. 다양한 문화 전반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저자의 관심은 문학, 영화, 음악, 사진, 건축 등 전 방위로 뻗어 있었던 바, 예술에 관심이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제목에 굳이 '나쁜'을 붙인 이유를 저자는 "수전 손택이 말한 '나쁜 취향'의 그 '나쁨'은 사회적으로 나쁜 감수성을 유포하는 문화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잘 모르거나(unknown), 잘 언급되지 않는(unmentioned) 문화를 포용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판단을 벗어나 새로운 미학을 발견하게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한다. 그의 의도대로 문학, 음악, 미술, 비평 등 문화 전반을 가로지르며 낯선 풍경들을 펼쳐 보

이는 책이다. 세상과 '잘 싸운' 가수 전인권, '삶의 에너지로 폐쇄회로의 그물을 찢'었던 배우 장국영, '영원한 미래의 육체' 이소룡 등 우리가 알던 스타들에 대한 우리가 모르던 '새로운 미학'을 전한다. 또 음악집단 <쌍짓 프렌즈>, 파올로 솔레리의 대안적 미래 공간 <아르코 산티> 등 우리가 알면 좋을 '새로운 가치'들을 말해준다.

번지없는 주막

이동순 지음 / 선 / 528p / 25,000원



영남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중인 이동순 시인은 멋있는 괴짜다. 문단에서는 모르는 노래가 없는 가수이자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유명한 악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행가 노랫말을 학문으로 연구하는 유일한 정통 국문학자이다. 그런 저자가 펴낸 이 책은 딱딱하고 현학적 설명이 아닌 노래가 우리들을 얼마나 윤택하게 해주는가를 이야기하는 재미난 수필집이며, 아무렇게나 불리어진 유행가의 이면에 숨겨진 배경을 구수하게 풀어낸 이야기보따리다. 격동의 시대를 거쳐 오면서 온 생애로 시대를 관통하며 살았던 우리 민족은 노래로 시름을 달래 왔다. 그렇게 성장해온 우리 가요는 이 나라 민족사와 모든 생사고락을 같이해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러한 가요에 대하여 연구와 분석의 시도가 있었지만, 문화의 주축으로 대접받지 못했기에 한결같이 부족하고 미흡한 것이었다. 이 책은 우리 가요가 아직 정확한 자신의 문화적 주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저자가 우리 가요에 확실한 번지를 되찾아주고자 하는 열정을 바탕으로 쓴 가요산문집이다. 한국가요사 분야에서 하나의 획기적 정리작업으로도 기록될 책이다.

대안공간 비움, 소극장 미리내, 아트 스페이스 민들레



부산대학교 이왕주 교수와 화가 김상헌씨가 주축이 되어 탄생된 대안공간 비움.

2007년 새해를 시작하며 부산 곳곳에 개성 넘치는 새로운 문화공간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부산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 시작은 부산대학교 앞에 새롭게 문을 연 대안공간 비움(VIUM). 지난해 12월 22일 개소식을 가진 비움은 철학자이자 영화평론가인 부산대학교 이왕주 교수와 화가 김상헌씨가 주축이 되어 탄생된 공간이다.

원래 비움은 화가이면서 현재 부산대학교 대학원 예술문화와 영상협동매체 박사과정에서 영상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상헌씨가 작업실로 사용하던 공간이다. 그동안 이곳에서 부산미술연구회와 영화/영상 연구모임 다반사가 매주 정기모임을 통해 연구활동을 가져왔다. 비움 개소식과 함께 비움을 찾는 모임이 더욱 활기를 띠면서 부산미술회, 영화/영상모임 다반사 외에도 부산가톨릭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대안포럼 등 4개 단체가 비움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40평 규모에 전시공간과 담론을 나누는 큰 책상이 비움을 잘 반영해 준다. 앞으로 이 곳에서 전시회, 영화상영회와 지역민을 위한 각종 강좌 등을 가질 계획이다.

2월부터 사진작가 김홍희씨의 사진 제작강좌와 금요 영화정기상영회가 이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비움의 가족들인 박근재(문화재 사진 작가), 이순행(사진작가), 고혜민(인체드로잉 화가), 심유양(한국화가) 등의 전시가 이어질 계획이다.

■ 문의 : 대안공간 비움(517-7555)



극단 미리내의 주 무대가 된 소극장 미리내.

소극장 미리내는 지난해 12월 23일 사직동 주택가에 미리내 소극장을 새롭게 열었다. 극단 미리내의 주 무대가 될 소극장 미리내는 극단 대표 박범식씨가 앞으로 연극을 통해 꿈을 키워보자는 포부를 담고 마련한 공간이다.

창단기념 공연으로 지난해 극단 에저또의 '친구'가 무대에 오르는데 이어 창단 공연을 준비하는 극단 61의 연극 '백화' (2월 21일~27일)와 권

철의 모노드라마 '호랑이 아줌마' (3월 1일~3월 31일)가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40평 규모 90여석의 객석은 여느 소극장과 다를 바 없지만 부산교육대학교와 여명중학교, 아파트 단지 등이 가까이에 있어 극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 문의 : 소극장 미리내(504-2544)

'아트 스페이스 민들레'는 2월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부산대학교 부산은행 사거리 위쪽 골목에 위치한 '아트 스페이스 민들레'는 카페와 주점들이 넘쳐나는 대학가 골목에서 만나기 힘든 문화공간이라 의미가 더욱 깊다. 현재는 정식오픈에 앞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전인수, 전병수, 김치곤, 최성환, 김소선, 김애경, 백지연, 신혜영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부산대학교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작업장을 찾던 중 젊은작가들을 위한 전시공간을 구상하게 되었다는 함승수관장은 생명력 넘치는 민들레의 특성을 살려 공간 만들레를 꾸몄다. 함승수 대표는 '아트 스페이스 민들레'를 앞으로 전시를 중심으로 공연과 문화적 활동이 살아 있는 대안문화공간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 문의 : 아트스페이스 민들레
(581-2660, art-mindle.co.kr)

그 외 지난해 12월 부산미술협회 송영명 이사장이 자신의 작업실 한편에 마련한 전시공간 '송아트홀',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종로학원이 지하철 2호선 수영역 벽면에 조성한 상설갤러리 '종로 갤러리 II' 등 다양한 문화공간이 탄생되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2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협연자 모집

1. 연주회 개요

가. 일시 : 2007년 4월 27일(금) 19:30

나.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2. 모집 개요

가. 응시자격 : 원서접수시 부산 소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

※ 단, 2004년 3월(제56회 청소년협주곡의 밤)이후 협연한 자는 응시 불가

나. 모집부문 : 피아노, 현·관·타악기
(협주가능한 악기)

다. 모집인원 : 부문에 관계없이 4~7명

3. 원서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07년 2월 20일(화) ~ 2월 26일(월)

나. 장소 : 부산문화회관 관리동 1층 부산시향 사무실

다.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재학증명서
(3개월 이내), 사진(3×4cm) 2장

※ 응시원서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4. 전형 개요

가. 전형일시 : 2007년 2월 28일(수) 14:00 ~ 18:00

나. 장소 :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습실

다. 전형과목 : 협주곡 단악장(자유곡/단, 교향악단과 협연이 가능한 곡목)

※ 전 파트 반주자 대동

5. 기타

가. 합격자 발표 : 2007년 3월 2일(금) 10:00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공고 (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나. 전형 과정에 학부모 등의 참관이 가능함

■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탄생 90주년 기념

민족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한국 초연

- 9월 2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의 음악세계가 집대성된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가 오는 9월 20일 부산광역시와 윤이상 평화재단 주최로 한국에서 초연된다.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는 방대한 규모와 엄청난 연주기량이 요구되는 작품으로 아직까지 한국에서 연주되지 못한 작품이다. 이 작품의 초연은 우리나라 근, 현대 음악사의 최대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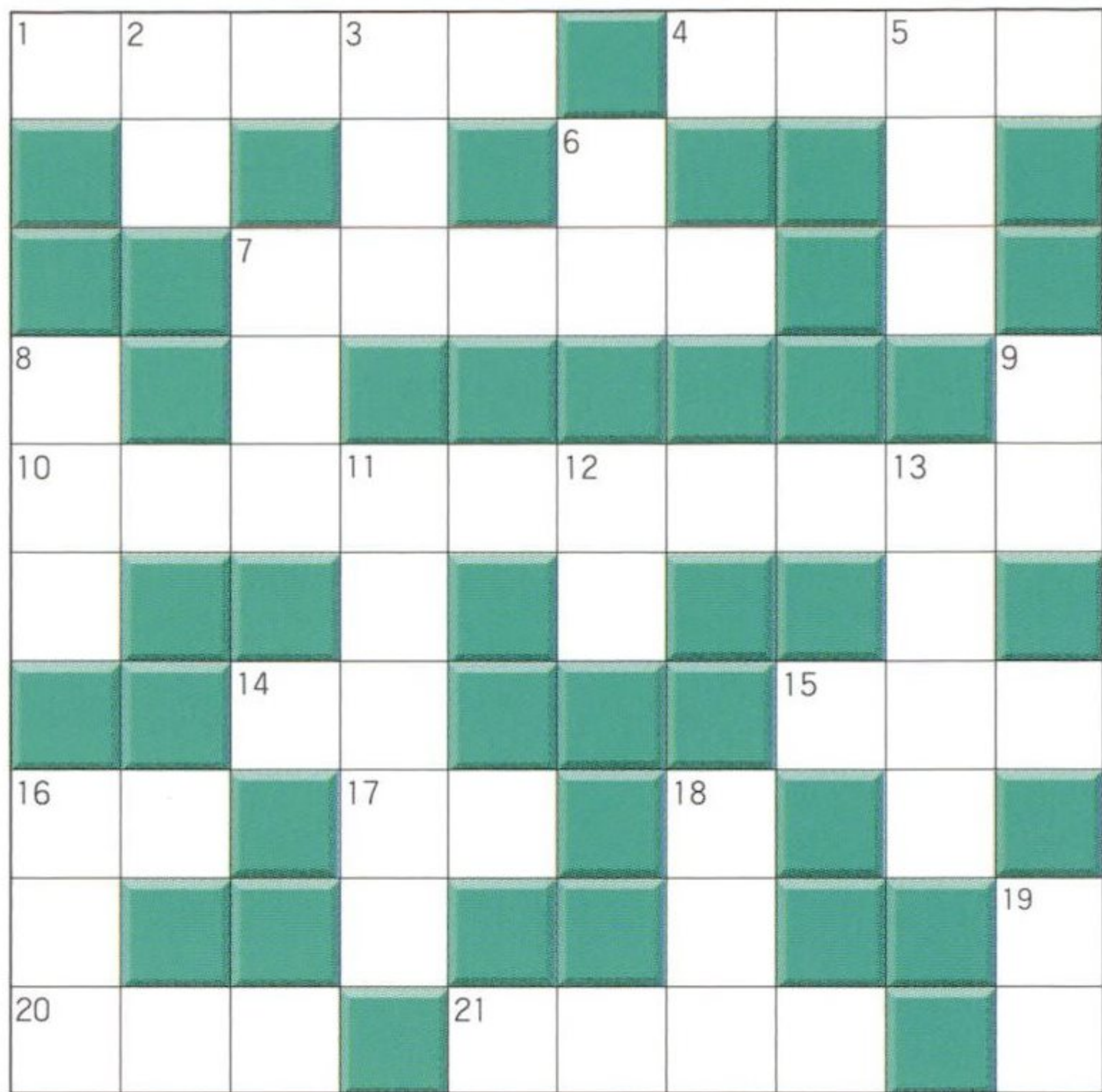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과 한울림합창단이 주관하는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 한울림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 솔리스트 등 출연진만 230여명에 이른다. 지휘자는 독일 하노버 국립오케스트라 극장 수석 상임 지휘자 및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자범이 지휘자로 선정되어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대장정을 시작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2007년 윤이상 탄생 90주년 국제음악제 공식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다.

통영 출신인 윤이상은 부산과 많은 인연을 가진 작곡가이다. 음악청년 시절 윤이상은 부산에서 교육자로, 음악가로 많은 활동을 하며 긴 세월을 보냈고 부인 이수자여사는 부산토박이다. 9월 연주시기에 맞추어 이수자여사의 부산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는 11개의 민족시를 우리민족의 '역사, 현실1, 현실2, 미래'라는 4개의 주 테마로 구성하여 만든 44분짜리 칸타타로 윤이상의 음악원숙기인 1983년 작곡된 곡이다. 까르미나 브라나를 작곡한 칼 오르프의 부인 루이제 린저는 그의 저서 '용의 귀환'에서 까르미나 브라나를 뛰어넘는 대서사곡이라 칭송했다. 그러나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정서가 깊이 배여 있고, 까르미나 브라나보다 큰 스케일 때문에 대작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연주되지 못했다. 북한의 세계적인 지휘자 김병화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국립교향악단, 낙원합창단 등과 함께 녹음한 비공식 음반이 있다.





가로문제

1. 저녁시간 대에 공연장을 찾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 오전 11시에 마련하는 부산문화회관 브런치 콘서트.
4. 인간을 모랄리스트적으로 고찰한 함축성 있는 희극을 창작했던 17세기 프랑스의 극작가. 그의 희극적 천재성이 잘 드러난 '수전노'를 3월 15일 부산시립극단 정기공연작으로 선보인다.
7.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1900년에 작곡한 오페라 '살탄 황제의 이야기' 2막 1장에 연주되는 음악. 바다를 건너온 호박벌떼가 백조 주위를 날아다니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독주곡으로 편곡되어 많이 연주되고 있다.
10. 세계적으로 쿠바음악 붐을 일으켰던 5인의 멤버로 이루어진 쿠바의 대표적인 재즈그룹. 1999년 영화감독 빔 벤더스의 동명의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했다.
14. 문신.
15. 오페라, 오라토리오 등에서 기악 반주가 있는 서정적인 가락의 독창곡.
16. 유연한 동작을 취하며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손질, 발질을 하여

- 그 탄력으로 상대편을 제압하고 자기 몸을 방어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 택견
17. 제주 지역에 있는 기생화산을 이르는 제주 사투리.
 20. 늦가을에 처음 내리는 묽은 서리.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가 저리 내리고'.
 21. 입춘을 맞이하여 길운을 기원하며 벽이나 문짝 따위에 써 붙이는 글귀.

세로문제

2. 0도. 물이 얼기 시작하거나 얼음이 녹기 시작할 때의 온도.
3. 신라, 경주의 옛 이름.
5.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쓴 산문 형식의 글. 수필.
6. 중국 삼국 시대 촉한의 제 1대 황제. 자는 현덕(玄德). 제갈량의 도움을 받아 오나라의 손권과 함께 조조의 대군을 적벽(赤壁)에서 격파하고 스스로 제위에 올라 성도(成都)를 도읍으로 삼았다.
7. 왕실 아이들의 가정교사로 태국에 간 영국인 미망인이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면서 왕을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영화화한 작품.
8. 음악과 무용의 요소를 포함하는 일본 전통극.
9. 미국의 여론조사 통계가로 1936년 대통령 선거에서 루스벨트의 당선을 예측, 발표한 것이 적중함으로써 명성을 얻었다. 오늘날 실시되는 여론조사를 세계에 보급시켰다.
11. '탁월함' '가치' 라는 의미의 라틴어 'Vitus'에서 나온 말로, 악기 연주에서 특별한 기교를 지닌 연주자를 일컫는다.
12. 조승우, 김혜수 주연의 동명의 영화로, 노름판에서 남을 잘 속이는 재주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13. 아름다운 음색과 넓은 음역으로 각종 합주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목관악기로 관(管)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차차 넓어진다.
16. 중요무형문화재 92호. 왕과 왕비, 그리고 태평성대를 축원하기 위하여 추는 춤.
18. 속리산의 절경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고봉. 큰 암석이 하늘 높이 치솟아 흰 구름과 맞닿은 듯한 절경을 이루고 있어 운장대(雲藏臺)라고도 불린다.
19. 설날 그림이나 정초에 웃어른께 인사로 하는 절.

지 기 회 정 답	정		나	이	아	가	라	명
	해	인	사	력				개
	년	랑	서	경	덕			황
		방	짜		수	야		후
	가	위	손		수	궁	가	
	우	님	의	침	목			에
	디	과			화	성		난
			어	라	연		천	마
	소	머	산				년	일
	고	라	니	군	계	일	학	

가마골소극장 초대권

채승영(부산진구 부암3동) 이영희(사하구 감천1동) 유이화(사하구 괴정1동) 천동혁(부산진구 당감1동) 송경희(연제구 연산9동)

동보서적 도서교환권

심종석(부산진구 전포3동) 김민승(부산진구 연지동) 박광수(부산진구 부전2동) 최승애(해운대구 재송2동) 허지영(부산진구 개금2동)

큰집 식사권

김주영(부산진구 부전동) 강희범(부산진구 범천4동) 김지혜(수영구 남천2동) 김재엽(금정구 정전1동) 민진팔(사하구 하단동)

산마루 고풍(구 돈방불패)

최정운(금정구 부곡3동) 송연진(해운대구 우1동) 강태균(해운대구 반송3동) 이상금(수영구 남천2동) 박은주(동래구 안락2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음식점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시 담당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더욱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마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산실

가마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납품 : 804-6391
• www.dongbobook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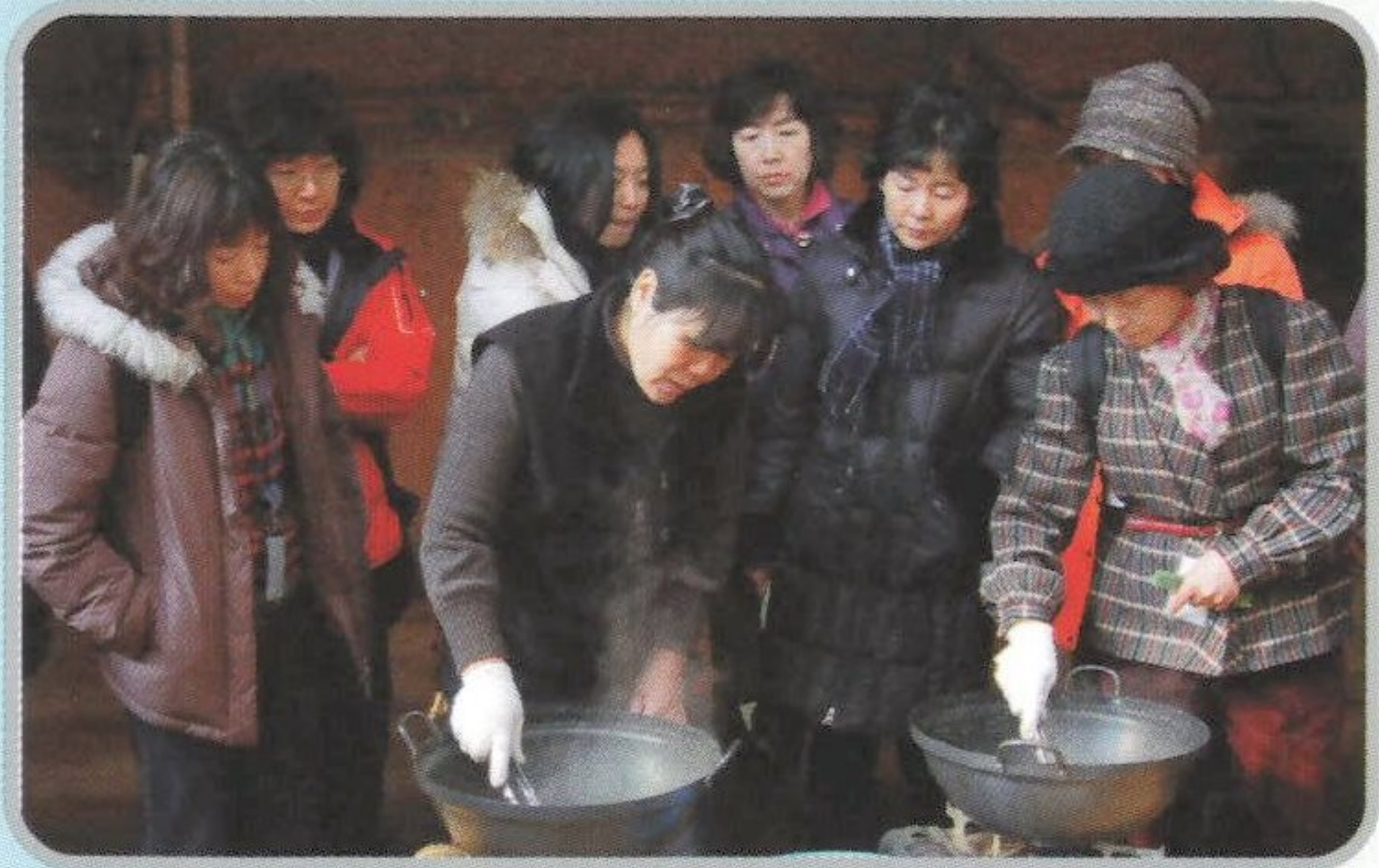
산마루 고풍

• 찜갈비
• 삼계탕, 돌솥비빔밥
• 30초 완성 참숯판구이 삼겹

UN로타리 문화회관 영빈관 앞 예약문의 : 611-4040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07년 2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1월 사천 비봉내 팜스테이로 떠난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테마여행



2007년을 맞아 처음으로 떠난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테마 여행지는 사천에 위치한 비봉내 팜스테이마을.

겨울 여행은 역시 추위라는 복병 때문에 출발부터 걱정이 앞선다. 1월 5일, 출발일을 앞두고 추위를 걱정하는 참가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1월 테마여행 참가자들은 모두 45명.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 가족들이 많아 어느 때 보다 활기가 넘쳤다.

비봉내 팜스테이마을(<http://www.bamboo.co.kr>)은 1965년부터 조성된 국내 최대의 대나무숲과 대나무 체험을 할 수 있는 팜스테이 마을이다. 맹종죽(2만평), 왕대(2만6천평), 솜대(4,000평) 등 각종 대나무가 교육용으로 활용되고 있고 대나무 체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방문객들의 인기가 높다.

부산문화회관을 출발, 2시간 남짓 거리에 울창한 대나무 숲이 있다는 사실에 많은 회원들이 놀랐다. 비봉내 팜스테이 마을 강태욱 촌장과 동행하며 대나무의 특성, 종류, 대나무의 효능 등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그동안 몰랐던 대나무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

죽어가는 어머니를 살린 중국 맹종의 효심에서 유래된 맹종죽과 관련한 일화를 들으며 대나무 숲 산책이 시작되었다. 어머니가 병환중에 죽순을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여 겨울에 눈덮인 산에서 죽순을 찾아 다닌 맹종이 어머니가 원하는 죽순을 찾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자 그 자리에 눈이 녹아 땅 속에 있는 죽순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죽순을 어머니께 드려 효도했다는 이야기다.

대숲 산책에 이어 어머니들은 댓잎차 만드는 법을 배우고 그 익힌 차향기도 맡으며 맛을 보았다. 대나무 잎을 썰어 불에 튀는 과정에 이어 처음으로 맛본 댓잎차에 감탄에 끊이지 않았다. 어머니들이 댓잎차를 만드는 동안 아이들은 강태욱 촌장과 대피리

를 만들었다. 대나무를 다듬고 목공품을 붙이고 몇 차례 과정을 거친 후 훌륭한 대피리가 탄생되었다. 고사리 손으로 만든 대피리로 아이들은 즉석에서 “뗏다뗏다 비행기...” 합주를 펼치고 어머니는 물론 참가회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죽순 된장으로 맛있는 점심을 먹고 무용단원들과 시간을 가졌다. 강강술래의 한 부분인 청어여기, 풀기를 했다. 겨울이라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던 회원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인 강강술래를 소개하고 직접 참가한 회원들과 어우러져 노래가락에 맞춰 강강술래를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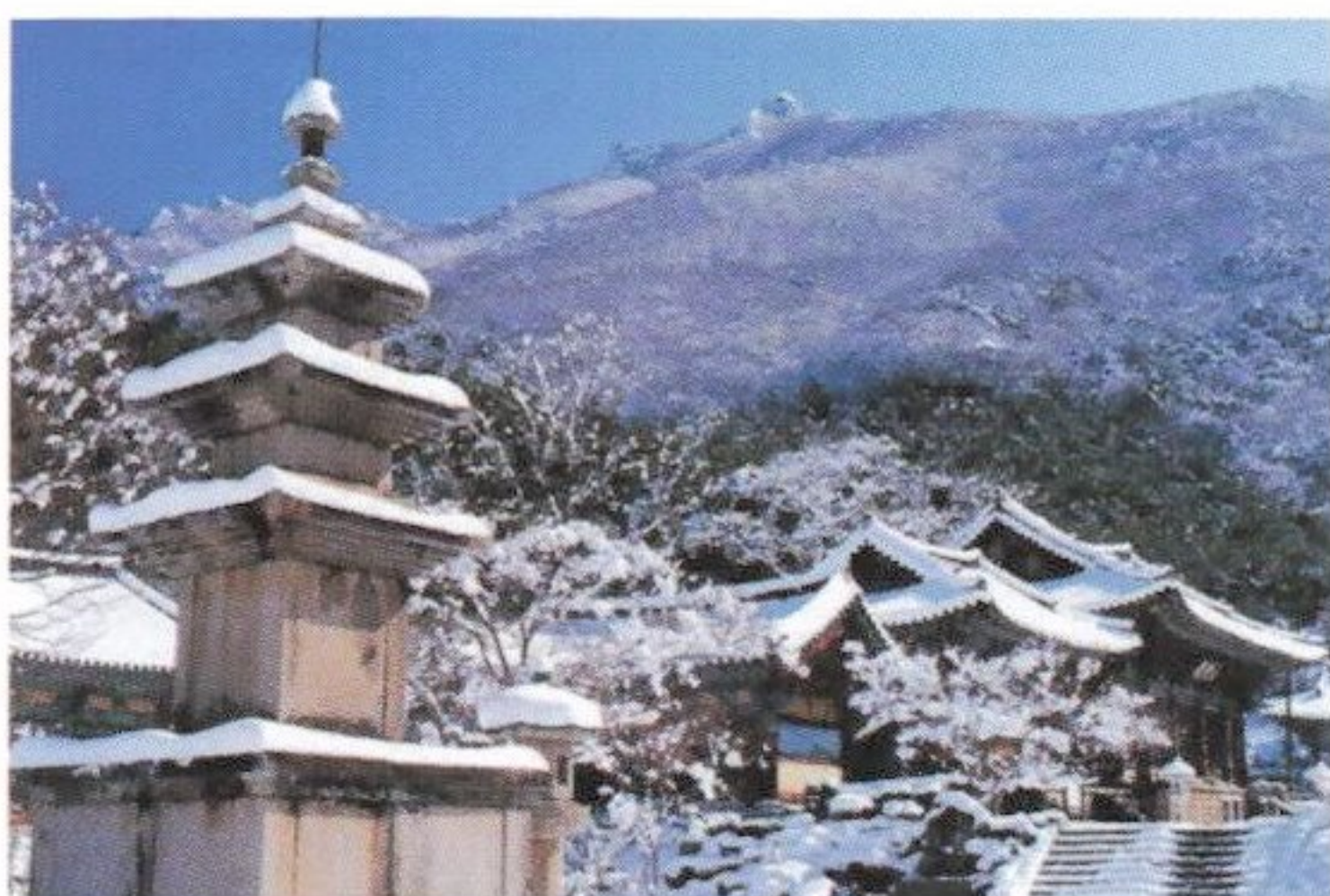
강강술래가 끝나고 드디어 기다리던 ‘굴구워 먹기 시간’. 강태욱 촌장과 함께 비토섬으로 향했다. 비토섬은 별주부전의 고향이다. 그 형상이 토끼가 나는 섬이라 하여 비토섬으로 불린다. 비토섬에는 별주부전 이야기와 관련 있는 거북섬과 목섬이 있어 별주부전의 이야기를 뒷받침해준다.

맑은 남해의 청정 바다에서 자란 싱싱한 굴과 고구마를 숯불에 구워 먹고 아이들은 석화를 보며 바닷가에서 마냥 즐거워했다. 비토섬을 떠나오는 모두의 마음에는 ‘2007년 한 해 오늘만 같아라’는 작은 소망이 하나 더 생겨났다. <협찬/파란여행>

※ 지난한 해 동안 테마여행을 협찬해주신 (주)파란여행에 감사드립니다. 2007년 3월부터 (주)레임이 부산시립예술단 테마여행 협찬사로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님들과 만납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2월 당첨자

▶ 2월 9일 (금)
밀양 표충사, 평리 팜스테이 마을



■ 신규가입 당첨자 명단(10명)

장의형(북구 만덕3동)
김근수(금정구 구서2동)
김동임(북구 화명동)
김해린(부산진구 부전2동)
김창희(서구 서대신동 3가)
김미정(남구 문현4동)
이춘화(남구 용호동)
최홍봉(해운대구 중동)
장성주(연제구 거제1동)
이명복(해운대구 좌동)

■ 기존가입 당첨자(엽서) 명단(10명)

김명순(남구 문현동)
송연진(해운대구 우1동)
배휘(사하구 구평동)
장양애(서구 서대신동3가)
장소은(해운대구 좌동)
성외순(남구 대연1동)
김송지(부산진구 부전1동)
나춘선(사하구 하단2동)
이상금(수영구 남천2동)
황정문(부산진구 개금2동)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정기회원 여러분들에게 자연과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3월 9일(금) 울산 고래박물관과 외고산 옹기마을



귀신고래의 회유지인 장생포에 있는 고래박물관과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간절곶 탐방.

- 09: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고래박물관 도착
- 12:00 중식
- 13:30 온양 옹기회관 도착
- 15:00 온양 옹기회관 출발
- 15:30 간절곶 나사리 등대 도착
- 16:00 부산문화회관으로 출발
- 17:30 부산문화회관 도착 예정

※ 테마여행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신한은행 · 신한카드와 함께하는
부산아쿠아리움

북극탐험전

기간 : 1/5~3/18

올겨울 최고의 체험 이벤트!

이색적인 북극체험

개설매 체험 / Petting Zoo / 이글루 만들기

눈앞에 펼쳐질 극지방 생태계!

살아있는 북극생물 전시

생생하게 느껴보는 북극세계!

눈내리는 바다속 북극



부산아쿠아리움
www.busanaquarium.com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행사 및 예약 문의 : 051-740-1700

예술의 초대 협찬사를 모집합니다

부산지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공연, 전시 정보를 매월 전해드리는 월간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가 협찬사를 모집합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비롯 문화 예술 기관, 부산시내 주요 예매처에 배부되는 <예술의 초대>는 문화를 사랑하는 부산시민들과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문화예술 정보지입니다.

<예술의 초대> 광고는 문화를 사랑하는 기업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공연, 전시 팸플릿 제작, 홍보비 등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료

표지 4면-100만원

표지 2면, 표지 3면(표지 안쪽 면)-70면

내지 전면 컬러- 50만원

내지 하단(5cm×16,5cm)-10만원

※ 광고기간, 규격은 신청자가 직접 지정하고 광고안이 없을 경우 별도의 비용없이 제작하여 드립니다.

문의

부산문화회관(051-607-6077~8)

예술의 초대를 받아 보시려면

<예술의 초대>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들에게 무료로 배부되는 회원정보지입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회원가입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051-607-6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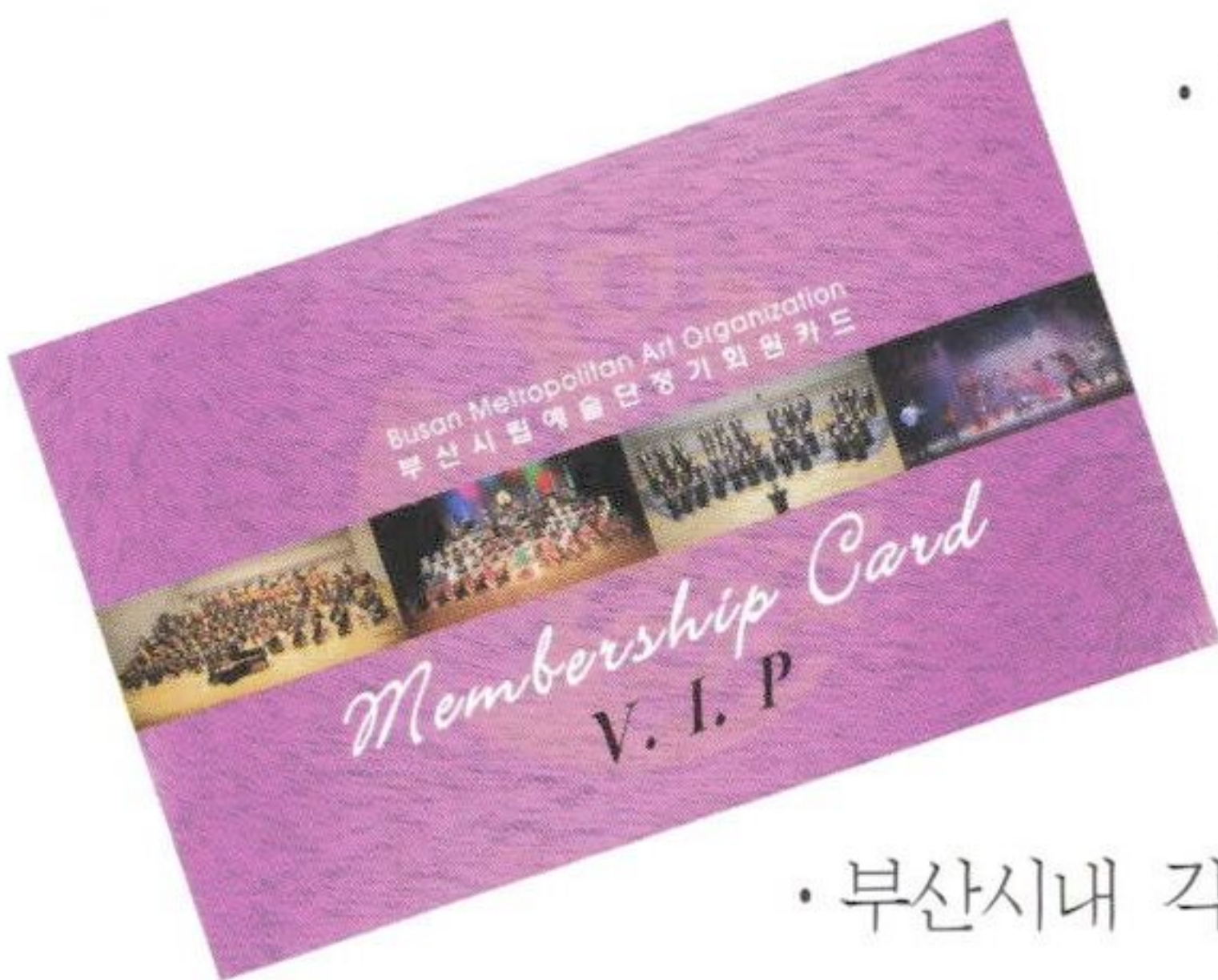
문화생활의 필수품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카드결제 가능
- 다양한 할인혜택과 부대서비스 제공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제도가 알뜰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1년 25,000원 한번 가입으로 예술단 공연 5회 관람과 부산문화회관에서 주최하는 기획공연 할인,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권을 구입하는 번거로움 없이 전화로 공연 예약이 가능합니다.
- 부산시내 전 공연장의 정보와 문화예술계의 동향 등을 담은 '예술에의 초대' 월간지를 매달 무료로 우송해 드리며, 부산시립예술단에서 마련하는 모든 무료 공연에 최우선으로 초대합니다.
- 부산시내 각 공연장에서 열리는 외부 단체의 공연 입장료를 할인해 드립니다.(주최측과 협의된 공연에 한함).
-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특별기획공연 입장료를 20~50% 할인해 드립니다.
- 50명 이상 단체 가입시는 가입 총액의 10%가 할인되어 관람료가 더욱 저렴합니다.
- 청소년 푸른회원은 20%, 장애인(1~3급)·경로우대(만 65세)·국가유공자 사랑회원은 가입회비가 50% 할인되어 더욱 저렴합니다.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들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 아쿠아리움, 별난물건 박물관, 필하모니, 가마골소극장 등 이용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 부산광역시의료원 건강검진시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007년 3월까지)



◆ 사용방법

- 공연 예약(전화, 홈페이지) 후 당일 공연장에서 카드를 제시하면 관람인원을 체크한 후 좌석권을 드립니다.
- 회원카드는 정해진 관람횟수에 한해서는 타인과 함께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일행이 있으신 회원님들은 입장권을 따로 구입하실 필요없이 정기회원 출입문으로 같이 입장하셔서 일행 수만큼 체크하시면 됩니다. 단 회원기간 이후의 남은 관람횟수는 무효가 되므로 1년 내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예약한 티켓은 정기회원 전용창구에서 교환하시면 됩니다.

◆ 자주 하는 질문

- **어떤 공연을 볼 수 있습니까?** = 입장료가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예술단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은 회원 카드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입장료가 2,000원인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공연은 현장 매표하시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 **공연 관람 예약을 하고 관람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그동안은 공연 예약을 하고 취소 연락도 없이 관람을 하지 않는 경우에 별다른 제재가 없었지만 부득이한 경우 예약문화 정착을 위해 공연 당일 오전까지 취소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예약을 하고도 오지 않는 일부 회원 때문에 다른 회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예매문화 정착을 위해 공연 예약 취소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정기회원가입회비

VIP 회원 1년제 10회 관람 100,000원

일반회원 1년제 5회 관람 25,000원 **10회 관람 45,000원**

(청소년 푸른회원 20% 할인, 장애인·경로·국가유공자 사랑회원 50% 할인)

■ 가입비 납입 은행계좌번호 :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 부산문화회관)

■ 가입 및 공연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ulture.busan.kr)에서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교통편 • 버 스 : 25, 51, 51-1, 68, 93, 134

• 지하철 : 대연동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도보 15분 거리

■ 셔틀버스운행 • 출 발 지 : 청심꽃조경 앞(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100m 지점

• 출발시간 : 월~금요일 오후 7시(공연이 있는 날 무료로 운행)



2007 금난새와 함께하는 연주회

Nanse Gum · Concert Program 2007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및 해설 · 금난새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 콘서트” 금난새와 77세 만나요!

2007. 5. 18(금) 11:00



바이올린 이성주

드보르작	슬라브 무곡 제1번 중 제8곡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 ‘여름’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중 제2악장, 제4악장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2007. 8. 22(수) 11:00 / 16:00



마림바 박혜령

로시니	‘빌헬름 텔’ 서곡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 ‘가을’
레스피기	로마의 소나무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 콘서트” 금난새와 77세 만나요!

2007. 12. 6(목) 11:00



바이올린 백재진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 ‘겨울’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

부산시립교향악단 3월 프로그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on March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오후 7시 30분

지휘 ·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Alexander Anissimov

3월 2일 (금)

로시니 '빌헬름 텔' 서곡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엘가 '수수께끼' 변주곡

2004년 러시아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 (19세)
2004년 '칼 닐센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
러시아 얀폴스키 콩쿠르 그랑프리 최고 연주자상 (17세)
독일 클로서트 - 쉐탈 콩쿠르 우승 (16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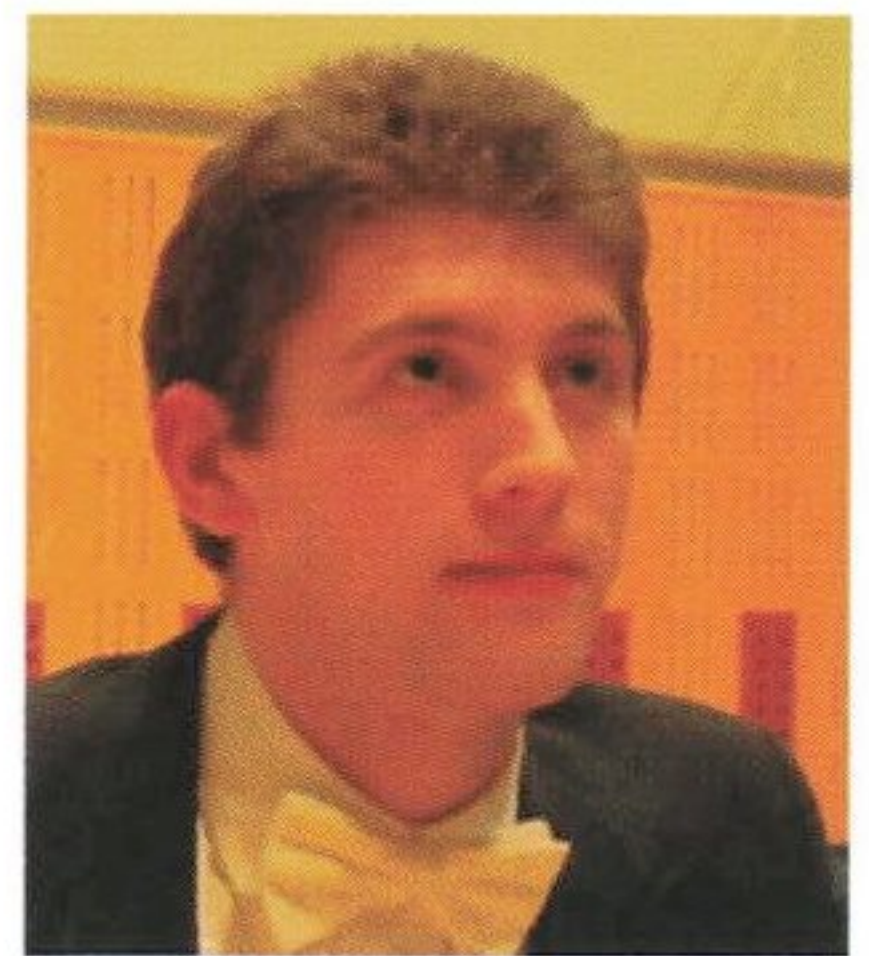


Vn. 권혁주
Hyuk-Joo Kwun

3월 9일 (금)

드뷔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
라벨 피아노 협주곡
림스키-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1999년 더블린 시티 대학 최우수 장학생 졸업
제네바 도미니크 메를레 음악원(대학원) 최우수 졸업
스위스 '클라라 하스킬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
'뉴 로스 피아노 페스티벌' 예술 감독



Pf. 핀인 콜린스
Finghin Collins

3월 30일 (금)

세드린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제1번
엘가 첼로 협주곡
비제-세드린 카르멘 모음곡

유로비전 콩쿠르 및 유벤투스 수상자
2001년 유럽콘서트홀협회 '라이징 스타' 선정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리아 카날스 콩쿠르' 최고상
벨기에 '브뤼셀 콘서바토리'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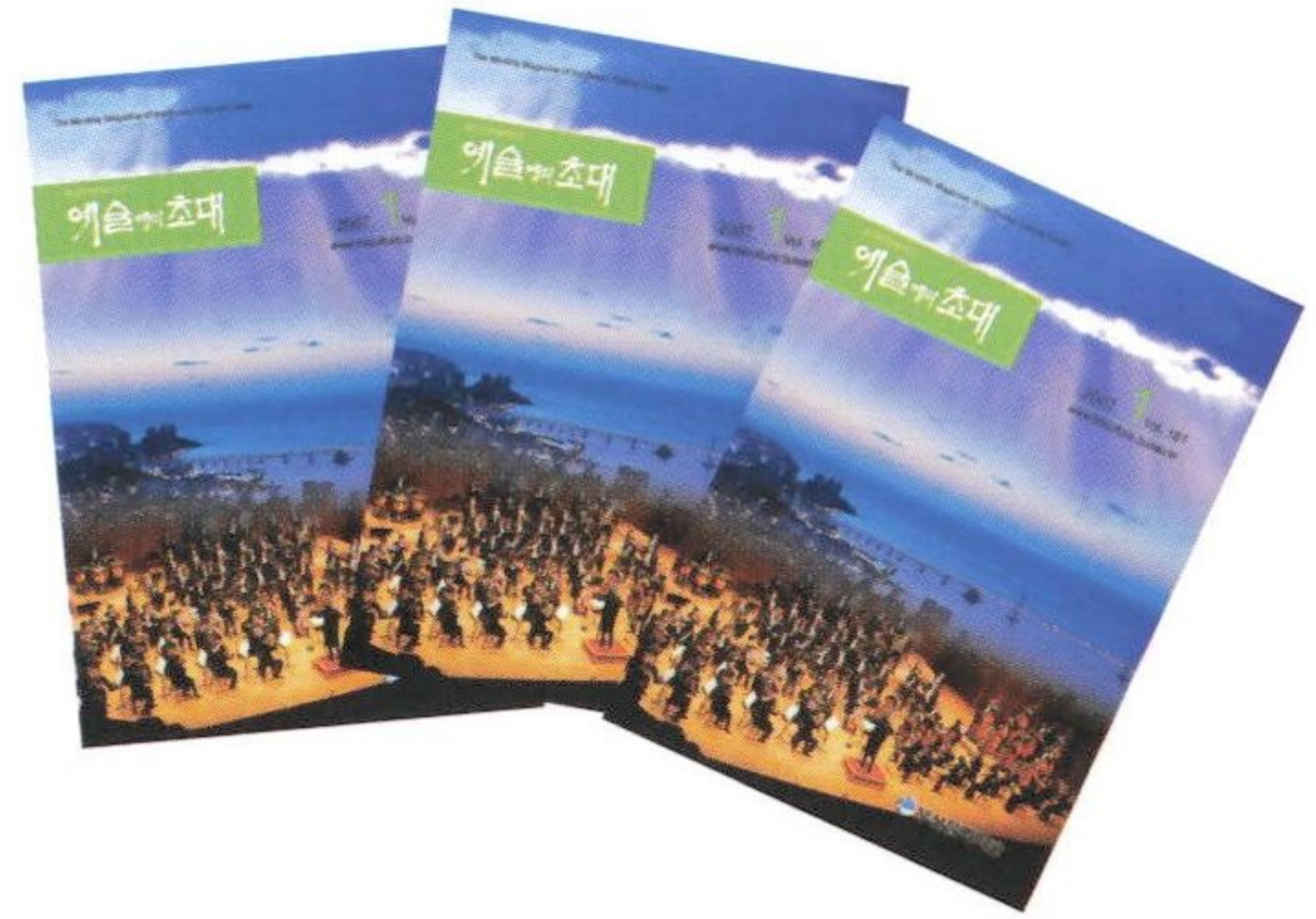


Vc. 마리 할링크
Marie Hallynck

예술에의 초대 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듭니다

공연 재미있게 즐기는 법

- 예술에의 초대로 화제의 공연 정보를 미리 체크한다.
- 공연 할인 정보, 할인 쿠폰을 꼼꼼히 정리한다.
- 공연 관람후기로 상품타기에 도전한다.
- 어려운 예술용어, 궁금증을 언제든지 Q&A코너에 질문한다.



■ 2007년 3월 호부터 독자들의 100자 공연 후기를 모집합니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을 비롯 부산 전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의 감동을 100자로 요약, '100자 토크'에 도전하십시오. 매달 3명을 선정, 예술에의 초대 지면에 소개하고 선물을 드립니다.

■ 2007년 예술에의 초대가 예술장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평소 관심이 많았던 장르, 예술에 대한 궁금증, 어려운 예술용어 등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을 선별하여 명쾌한 답을 찾아드립니다.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와 'Q & A'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와 'Q & A' 질문과 답변은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새로운 시설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전문레스토랑

모짜르트

TEL. 051-622-1456

H.P. 011-842-0183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맞은편 1층
리셉션 · 생일잔치 · 각종모임 예약 받습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7~8)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중 3명을 선정하여 모짜르트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KOREA

부산문화회관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2월 3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국악협회 공연

프로그램

부채춤(출연/이혜영, 이현경, 박새별, 심호진, 김미정, 강지은, 박한영)
부산타령(출연/김정애, 조정례, 신수방)
가야금 병창/ '춘향전' 중 '기생점고' (출연/김현주, 정주연, 배유경, 윤혜란, 박소영, 유지훈)
판소리/동초제 판소리 '춘향가' 중 '오리정 이별대목' (창/곽은진 · 고수/강성인)
장구춤(출연/이혜영, 이현경, 박새별, 심호진, 김미정, 강지은, 박한영)
* 국악반주/송재운(대금), 강명욱(장구), 오상훈(거문고)
* 해설/장준영

● 2월 10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프로그램

처용무(춤/이정식, 허태성, 류권홍, 최의욱, 김운호)
산조춤(춤/김동숙)
대감놀이(춤/오숙례)
입춤(춤/이창규)
소고춤(춤/서정숙, 정진희)
달빛춤(학춤/권봉정 · 선비/김병주 · 아낙/김주령 · 강강수월래/김공주, 정은정, 이현정, 이화성, 박창희, 오수연, 김주연, 김미란, 김경미, 이경현)
· 안무/홍기태 · 훈련지도/이윤혜

● 2월 24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합창단 연주회 '앙코르 앙상블'

프로그램

오프닝 앙상블 - '반짝반짝 작은 별 변주곡' (편곡/최석태)
앙상블 1 - 지리적 푸가, 네임 댓 튠
앙상블 2 - 자비로운 예수, 아베 마리아
앙상블 3 - 우리는 하나, 내가 만일(안치환)
앙상블 4 - 깊은 강, 놀라우신 은혜
앙상블 5 - 테킬라 삼바, 다시 트위스트를 취요

출연

· 해설 및 지휘/김강규
· 소프라노/유수정, 남순천, 기미현, 최선희
· 알토/김윤희, 박진희
· 테너/강종철, 김웅태
· 베이스/최기호, 오승중, 서관수
· 피아노/이경미, 이승운

· 입장권 : 무료(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방콕 / 파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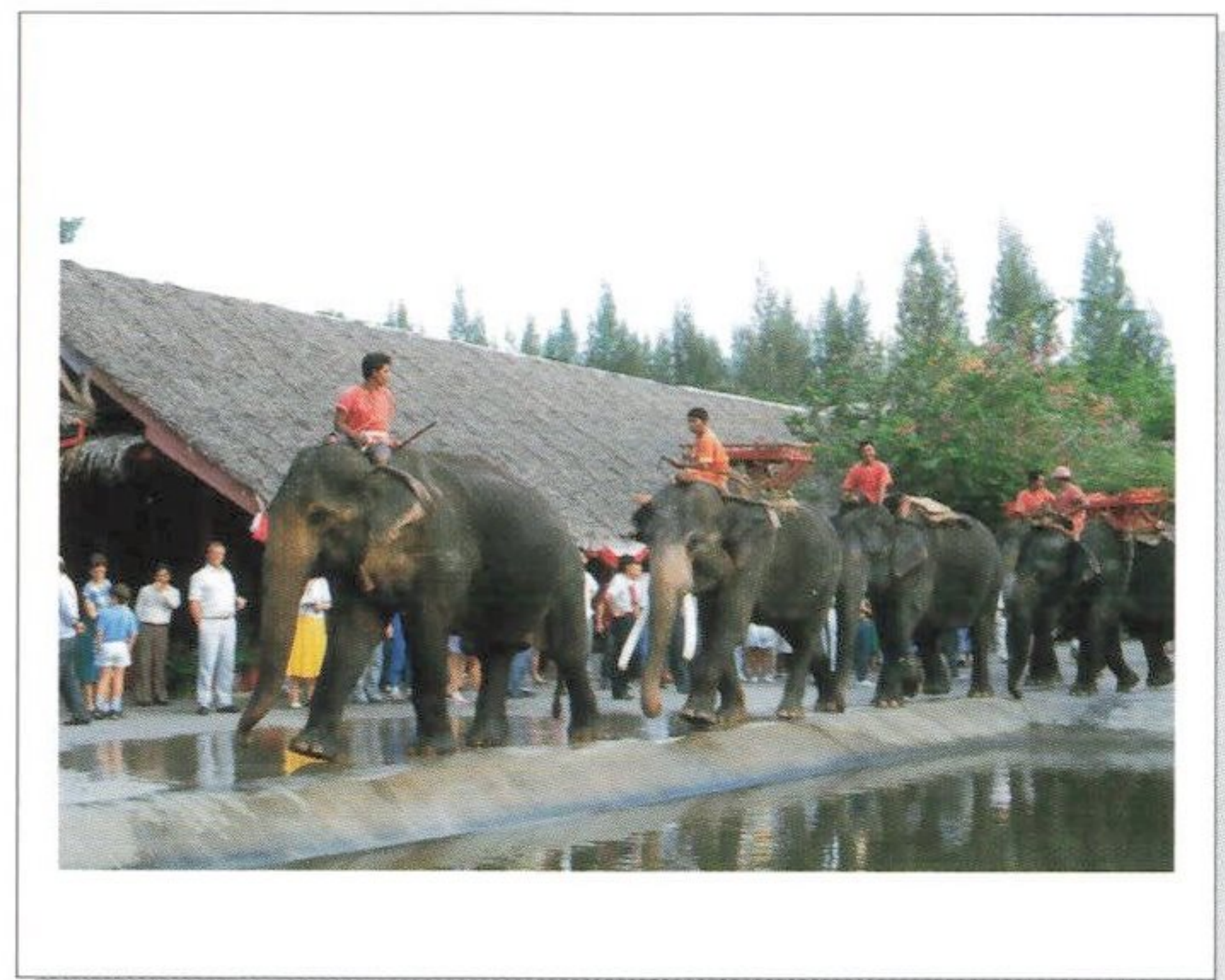
출발일자별 10명 한정

방콕/파타야 5일 ₩479,000

특전 항공, 각종TAX, 기사,가이드TIP, 특급호텔3박, 알카자쇼, 미니시암, 수끼, 씨푸드, 코끼리트래킹, 전통안마 1시간

화요일 출발상품 20:00 출발 / 07:30 도착(3박5일)

목, 토요일 출발상품 09:00 출발 / 18:30 도착(3박4일)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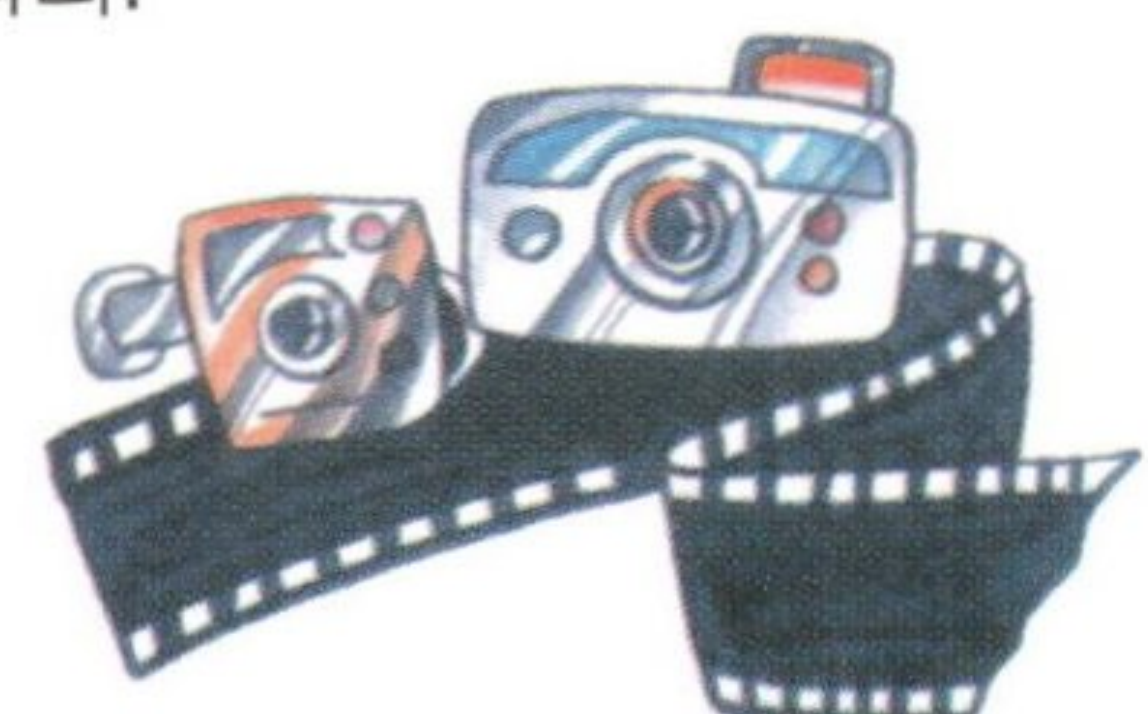


시민의 문화수준은 공연장 관람 질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공연장 신사, 숙녀

- ◇ 입장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좌석번호를 확인하여 앉습니다.
- ◇ 공연 중에 지정좌석을 찾으실 때는 뒤에서 기다리거나 빈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한 곡이 끝나면 조용히 자리를 찾습니다.
- ◇ 공연장내에서는 발소리, 기침소리, 부스럭대는 소리, 수근거리는 소리까지도 옆사람에게 방해가 되니 조심합니다.
- ◇ 공연장내에서는 신발을 벗거나 무릎 위에 발을 올리지 않습니다.
- ◇ 남의 앞을 지날 때는 몸을 숙여 남의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 연주중에는 들락날락하거나 뛰어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 옷차림은 가능한 정장이나, 암전한 복장을 합니다.
- ◇ 껌을 씹거나, 음료수·음식물 등을 반입하여 드시면 안됩니다.
- ◇ 휴대폰, 호출기 등 소리나는 물건은 반드시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입장합니다.
- ◇ 공연시작 5분전까지는 입장하여 자리에 앉습니다.
- ◇ 냄새나는 음식을 드셨을 때는 옆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입을 씻고 입장합니다.
- ◇ 7세이하의 어린이는 공연장내에 동반하지 않습니다.(공연장 3층 어린이 놀이방 활용)
- ◇ 화환이나 꽃다발은 입장시 로비에 보관하셨다가 공연후 증정하도록 합니다.
- ◇ 앵콜 연주까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일어서거나 나가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 ◇ 공연장내 휴지나 인쇄물(프로그램, 좌석권 등)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 ◇ 공연장내에서의 사진 촬영은 연주자의 연주에 방해가 되므로 삼가야 합니다.




상관개는
별난 물건 박물관

10% 할인권
(1매 4인 사용가능)

대상 : 할인쿠폰 소지자 또는 예술단 정기회원카드 제시자
기간 : 2007년 6월 30일까지

해운대 스펀지 3층 TEL : 051-740-4858



Since 1981 -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 퓨전레스토랑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시민의 문화수준은 공연장 관람 질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수준높은 감상을 위한 우리의 마음

- ◇ 혼신의 힘으로 작품에 임하는 예술가의 열정과 관객들의 진지한 감상태도가 같이 만날 때 비로소 예술작품은 향기로운 꽃을 피웁니다.
- ◇ 모처럼 공연장을 찾았다가 공연장 예의를 무시한 일부 관객들의 비문화적 태도로 감상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올바르게 감상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 숨소리마저 죽이고 예술가들의 작품을 경의의 마음으로 감상하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예술 작품을 함께 완성시켜 가는 성숙하고 수준높은 관객의 역할입니다.
- ◇ 부산문화회관은 이러한 공연장 예의를 지키며, 진정 예술을 이해하고 아끼고 사랑하려고 하는 분들을 가장 소중한 관객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고자 합니다.
- ◇ 부산문화회관이 품위있고 격조높은 세계적인 공연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음악회에서는 언제 박수를 쳐야 할까?

- ◇ 박수를 언제 쳐야 할 지 모른다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칠 때를 기다렸다가 박수를 쳐도 늦지 않습니다.
- ◇ 교향곡이나 협주곡 등 악장의 수가 3~4악장으로 되어 있는 곡은 모든 악장이 끝난 후에 박수를 치는 것이 좋습니다.
- ◇ 성악연주회의 경우는 한 작곡가의 곡이 모두 끝났을 때, 연주자가 3~4곡씩 묶어 부를 때는 다 들은 후 박수를 치면 됩니다.
- ◇ 오페라 공연의 경우에는 막이 내릴 때 치면 되고, 곡이 진행중에도 그 오페라의 대표적인 아리아나 혹은 유명한 아리아를 열창하고 나면 환호의 박수를 보내는 것이 예의입니다.(단, 오케스트라의 후주가 끝난후에)
- ◇ 레퀴엠(진혼곡)은 연주가 끝나도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추모의 뜻으로)
- ◇ 앵콜곡을 듣고 싶을 때는 지휘자 또는 연주자가 연주를 다 마치고 인사할 때 박수와 브라보라는 말로 요청합니다.(휘파람이나 고함소리를 내지 않는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예초대 담당자 앞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예초대 담당자 앞

-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Busan City Chorus

한국합창음악

부산작곡가를 중심으로



지휘: 김강규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부 산 작곡가



작곡: 조영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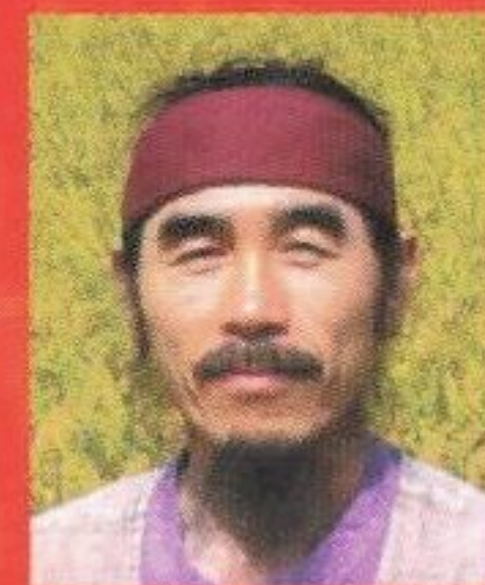
작곡: 최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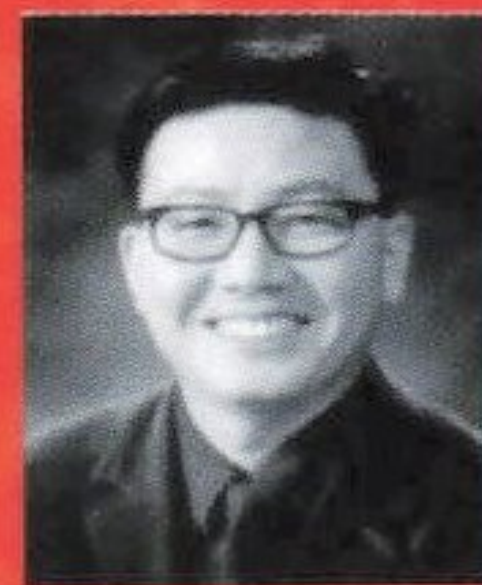
작곡: 정승원



작곡: 백승태



작곡: 권오협



작곡: 최석태



작곡: 윤지영



작곡: 백현주

혼성합창

- 이어도 산아
- 겨울 나그네
- 그대 떠나고

- 홍일중 시 이안산 곡
- 최종섭 시 백승태 곡
- 조성래 시 권오협 곡

성가합창

- 시편 23편
- 시편 46편
- 불찌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 윤지영 곡
- 백현주 곡 곡중술로 이정란
- 최석태 곡 곡중술로 남순현

남성합창

- 가시리 고려속요
- 고향길

- 박정선 곡
- 신경립 시 이동훈 곡

여성합창

- 삼답령 사연
- 소요유

- 김상훈 시 정승원 곡
- 이영조 곡

혼성합창

- 청산도
- 장다리 꽃

- 박부진 시 조영운 곡
- 송인필 시 최삼화 곡

2007. 2. 13(화)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607-6070 부산시립합창단 607-6126 www.bschorus.or.kr

인터넷 예매 ■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www.bsCulture.busan.kr ■ 부산은행 - 티켓 365 www.ticket365.co.kr

DESIGN JANG JUN KYUE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공연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
박호성 · 심수봉과 만나는

11시 **키스틱** 콘서트



탄탄한 라이브 실력과 화려한 무대매너로
사랑 받는 심수봉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만남

“우리나라 음악은 **한(恨)**과 **흥(興)**이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한**을 노래했는데 이제는 **흥**을 넣고 싶어요”



2007. 3. 16 (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 최 :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 프로그램

박범훈/화사한 봄을 주제로 한 춤과 관현악 '춘무' (춤/최의옥 안주희)
강상구/세상이야기를 담은 해금협주곡 '세상풍경' (해금/방병원)
심수봉의 삶과 사랑이야기 '사랑밖에 난 몰라,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원일/힘찬 내일을 위한 관현악 '신뱃놀이' (소리/박성희 정선희)



■ 입장료 : 균일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인 4매 30% 할인, 30명 이상 단체신청시 10% 할인)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